

중국선교전문지

1999/ 1 · 2

(통권 55호)

# 중국을 주제로

특집/중국선교,  
그 밝은 미래를 위한 뒤돌아보기

기획/소수민족을 알자

윈난성의 소수민족(VI)

두룽(獨龍)족과 지뉘(基諾)족

중국은 지금

개혁 개방의 물결 속에 갈라서는 천만 쌍의 부부들

중국뉴스 초점

민주화를 향한 중국의 뫼뭉침

별책부록 『중국기도』

격월간 중국을 주제로/발행처: 시님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 137-069 전화: 02-533-5497, 592-0132

발행인: 이종래/발행일: 1993. 12.20/등록일: 1994. 2. 14일자 (등록번호/바-2078통권55호)

중국은 어떤가요? 어떻게 후원하?

# 중국을 주께로

98/11·12

발행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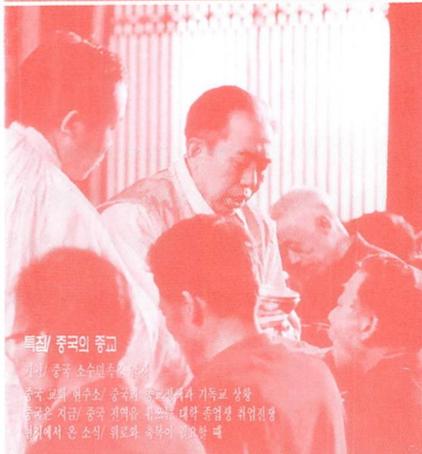
발행처: 한국기독교선교사모회

발행인: 김성환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길 10, 1201호

전화: 02-599-2786

팩스: 02-599-2786



## 특집/ 중국의 종교

기원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

중국 교회 현황과 중국에 중국선교사 기독교 상황

중국인 선교/ 중국 선교의 현황과 대외 선교의 현황

중국에서 온 소식/ 위로와 축복이 임할 때

#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습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익어진 발,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서 우리를 도와라’

중국교회의 침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30,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시오.

TEL: 02)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지구독요금이라 적어주시시오.)

##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비중과 그 책임-

이동화

세계선교에서 차지하는 한국 교회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발간된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한국선교핸드북(1998년판)』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98년 6월 현재 총 145개국에 5,94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파송 교회나 소속 선교회가 없는 독립선교사들과 사역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선교사 및 유학생 선교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역량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즉, 이 수치는 자국을 떠나 사역하는 해외 타문화권 선교사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이제 한국이 세계 3대 선교대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선교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훨씬 크다. 『한국선교핸드북』에 의하면 현재 492명의 한국 선교사가 파송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선교지와는 달리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 중에는 파송 교회나 파송 선교회가 없이 사역하고 있는 독립선교사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한국 선교사 수는 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현재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외국 선교사의 추산치 2500여 명의 40%를 넘는 수치다. 단일국가로서 세계 교회의 중국선교 인력 중 40%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은 사역 연륜이 쌓이면서 사역의 질적인 면에서도 큰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 선교사들은 전문인 선교사역 부문에 상당한 노우하우를 갖고 있는 반면, 직접 선교사역에는 한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한국 선교사들은 직접 사역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신학교육 사역, 주일학교 사역, 청년 사역, 소수민족 사역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외국선교사들과는 달리 평생선교사의 비율이 단기선교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사역의 질적 성장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중국선교에서 차지할 한국 교회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역할을 맡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 교회를 올바로 섬기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당연히 한국 교회에 물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사역 초기단계였다든 것과 중국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크고 작은 잘못도 앞으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사역의 공과를 심판받을 것이다. 어떤 이의 사역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또 어떤 이의 사역은 정금처럼 빛날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중국이라는 복음의 밭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으므로 중국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다하였을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 특집/중국선교, 그 밝은 미래를 위한 뒤돌아보기

- 8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를 말한다/장사무엘
- 14 현지인의 소망/서형
- 20 경험을 통해서 본 중국선교 사역/유진광
- 24 많이 성숙하고 진보하고 성장했음을 감사하자/유관지
- 28 국내에서의 중국선교는 어디까지 왔나?/석은혜

## 중국선교 길라잡이

- 33 중국 교회 현주소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3) - 삼자교회의 신학/주피득
- 40 중국 교회를 찾아서(14)  
중국 토속 기독교의 초상-저장성 샤오산 교회/이엔 그로브스
- 42 디아스포라 한국인  
산둥성의 해상 통로인 웨이하이(威海)시의 한국인/왕도생
- 45 선교 나침반  
삼군합작 전략으로서의 방송선교의 역할/보아스
- 50 관문도시  
북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파롄(大連), 칭다오(靑島)/연구부

## 헌신의 삶

- 54 중국사역 체험기  
중국 가정교회의 말씀사역의 [삼대관문]/왕쓰웨
- 60 현지에서 온 소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김재호
- 65 송선교사 고별사  
사랑하는 동료 송 선교사를 보내며/무명
- 66 내가 만난 하나님  
이방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저우위차이(周玉才)
- 70 이상열의 중국이야기  
시남땅에 전해진 복음/이상열
- 73 중국선교사 행전(9)  
중국 복음화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김종영

## 중국은 지금

- 78 중국은 지금  
개혁 개방의 물결 속에 갈라서는 천만 쌍의 부부들/지슈오밍
- 83 중국뉴스 초점  
민주화를 향한 중국의 몸부림/손바울



특집/ 경험을 통해서 본 중국선교 사역



특집/ 많이 성숙하고 진보 했음을 감사하자

- 86 중국체험기  
로마의 법이나, 주님의 법이나? / 석은혜
- 90 이런일 저런일  
1998년 중국의 10대 뉴스/ 연구부
- 92 중국동향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 연구부

### 기획/소수민족을 알자

- 100 윈난성의 소수민족(VI)  
두룽(獨龍)족과 지늬(基諾)족

### 선교중국어 코너

- 110 중국어 기도문  
식사 기도문(謝飯禱告)
- 111 선교중국어 회화  
罪與救恩(죄와 구원의 은혜)
- 112 중국어 복음성가  
부흥(復興)

### 자료실

#### 광저우(廣州)시 종교사무 조례

- 1 발행인 칼럼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비증과 그 책임/ 이동화
- 4 선교일언  
중국선교, 준비가 필요하다/ 박성주
- 59 목상의 생  
선교사의 예정
- 89 시사만평  
신고 나갈 신발이 없다?
- 97 궁금합니다  
어떻게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석은혜
- 113 희소식  
중국 공인회계사 외국인에게도 개방/ 이상식
- 114 선교 다이제스트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외 2권
- 115 신간도서  
플 씨로우의 중국기행 외 2권
- 116 선교게시판  
해외 선교단체 정보
- 118 선교복덕방  
새 일꾼을 찾습니다.



소수민족을 알자 / 두룽족



중국은 지금/  
개방 개혁의 물결속에 갈라서는 천만쌍의 부부들



관문도시/ 칭다오

# 중국선교, 준비가 필요하다

박성주



## 들어가는 말

중국은 거대한 나라이다. 인구만 본다면 더러도 중국은 세계 최대이다.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자그마치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합친 것 만큼이나 많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비기독교인수는 전세계 비기독교인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따라서 중국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곧 전세계 비기독교인의 절반이 복음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히 세계선교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실감나게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중국선교의 큰 부분을 한국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세계적인 중국선교 전문가 조나단 차오 목사는 일찍이 그의 저서 『중국선교핸드북』의 한국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앞으로 서기 2천년이 되면 중국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추수 현장이 될 것입니다. …… 중국에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이르게 되면 중국은 전세계로부터 추수 사역에 참여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믿는 바는 그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크게 고무시킨다. 그렇다면 조그만 한국이 어떻게 거대한 중국을 향하여 선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마치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이 아닌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 하나님이 하신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네가 무엇이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스가랴 4:6-7).

중국선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우리는 다만 그의 종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분부를 준행할 뿐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중국의 복음화를 예언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돌우리니 흑자는 원방에서 흑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흑자는 시냇방에서 오리라”(이사야 49:11-12). 여기서 ‘시냇방’은 곧 중국을 의미한다고 많은 성경주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중국에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동안 중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 중 몇 가지만 들어보자.

우선 중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불과 7~80만이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그 수는 6~7천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동안 교회에 가해졌던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상기해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앞에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대혁명 기간 중 중국의 모든 종교와 미신들이 타파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종의 정지작업과도 같은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언어통일이다. 중국은 땅도 넓고 방언도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 중국정부에 의

해 강력한 언어통일정책이 추진된 결과 이제는 중국 어느 곳을 가도 표준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교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언어의 통일로 인하여 그만큼 사역이 수월해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우리 민족의 이주를 들 수 있다.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이들 재중(在中)동포는 현재 2백만이 넘는다. 이들이 중국에 거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들도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의 파트너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비단 이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중국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이다.

### 우리가 할 일

이처럼 중국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믿음이 결국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평소에 물뿔들을 잘 던지기 위해 많은 훈련을 했으며 또 실전의 경험도 쌓았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준비된 것을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가?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가? 물뿔들을 잘 던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철저한 훈련을 쌓으며 준비하는 성실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사역자세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평소 선교지망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지 않은 이들이 선교지에 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나머지 국내에서 갖추어야 할 훈련과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선교지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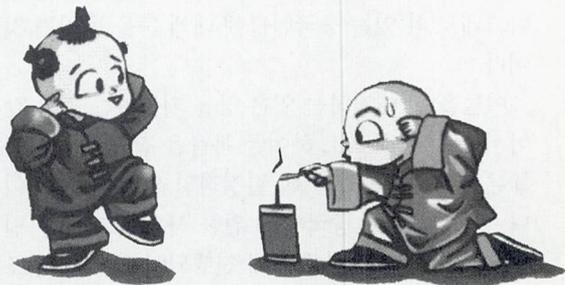
나가는 군인이 무장도 하지 않고 덩령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다 알아서 하시므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훈련이나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막상 사역의 때가 되면 자신은 부족해서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아무런 훈련이나 준비도 없이 곧장 사역에 뛰어드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주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훈련이나 준비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윗의 교훈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훈련과 준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선교지망자들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언어에 대한 준비는 물론이고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연구, 문화충격에 대한 사전적응훈련, 선교지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성훈련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항목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전문적인 선교훈련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훈련을 거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선교현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하게 마련이다.

### 교회의 준비

교회적인 차원에서 준비할 일도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 교회는 잠재된 많은 예비일꾼들을 보유하고 있다. 각 교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선교일꾼을 발굴하고 이들을 격려하며, 이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단기선교여행을 통해 젊은이들의 관심을 선교로 돌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일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된다.

또한 중국선교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선교훈련기관에 선교지망자에 대한 훈련을 위탁하는 일을 비롯해, 급변하는 선교지의 상황에 시기 적절히 대처하는 선교전략을 수립하는 교회는 전문선교기관과 협력할 것이 요구된다. 중국과 선교에 대해 연구하는 풍토가 마련되기 위해 교회는 좋은 연구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마음놓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 나그네로 와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들을 잘 대접하는 일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아서 장차 중국으로 하여금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발이 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상 방한 중국인을 위한 사역은 그동안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에 의해 진행되어 왔고 이미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것은 사역 그 자체로서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장차 있을 대추수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문화대혁명시기에 중국의 모든 종교와 미신들은 타파되어 그 힘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그동안 신봉해오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도 회의를 일으켜 중국은 그야말로 사상의 진공상태가 되어버렸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빈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는냐, 아니면 배금주의사상이나 그밖의 것들이 들어가는냐 하는 기로에 와 있다.

중국은 아직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은 상태이다. 선교의 자유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와 선교활동들이 홍수처럼 중국에 밀어닥칠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중국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난날의 연약함을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훈련과 준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보해주시는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중국 선교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맺는 말

중국의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하노라” (빌립보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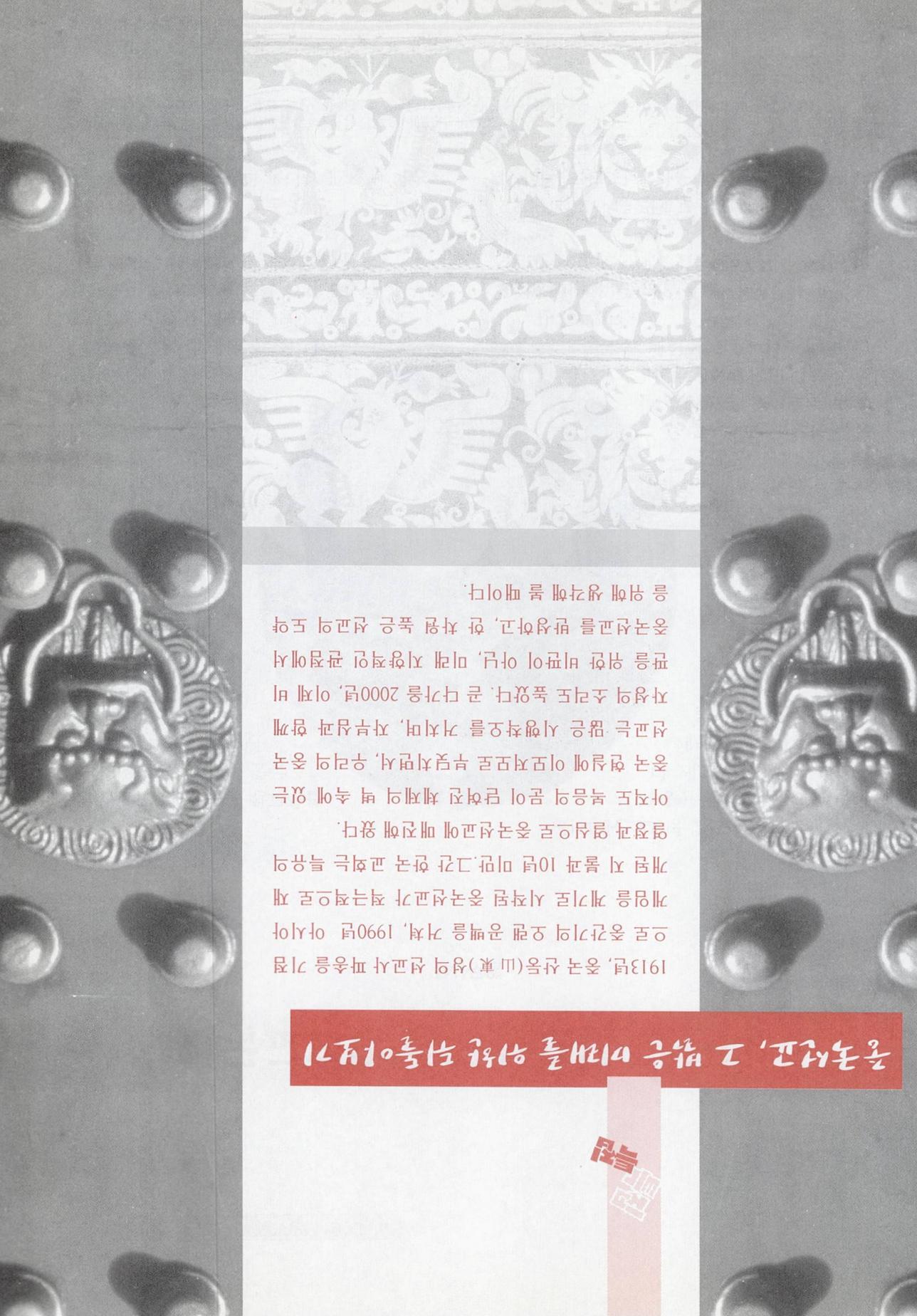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만간 중국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차근차근, 그리고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대대적인 추수사역이 필요한 그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기도한다.

# 중국선교, 그步履을 위하여 뒤돌아보기

1913년, 중국 산둥(山東)성의 선교사 파송을 기점으로 중간기의 오랜 운백을 거쳐, 1990년 아시아 개입을 계기로 시작된 중국선교가 적극적으로 재개된 지 불과 10년 미만. 그간 한국 교회는 특유의 열정과 열심으로 중국선교에 매진해 왔다.

아직도 복음의 꿈이 단혀진 체제의 벽 속에 있는 중국 헌법에 이모저모로 부딪치면서, 우리의 중국 선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부심과 함께 자성의 소리로 높았다. 큰 다리를 2000년, 이제 비평을 위한 비판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중국선교를 반성하고, 한 차원 높은 선교의 도약을 위하여 생각해 볼 때이다.



전남  
연구원

#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를 말한다

장사무엘

## 중국선교 역사

1913년 3명의 장로교 선교사를 산둥으로 파송한 것이 중국 선교의 시작이다. 1937년 파송되었던 방지일 목사가 1957년 마지막으로 귀국함으로써 제1기의 선교를 매듭지었다.

1957~1979년은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해외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기였다. 극동방송을 통한 방송선교만을 할 수 있었다.

1979년 중국이 개방되면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1989년까지 주로 조선족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80년대 말부터 한족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 1997년까지 선교사 파송 상황

지금까지 교단 선교부의 관리하에 정식 파송된



선교사는 220명 정도이며,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320여명이다. 개교회에서 파송되거나 개인적으로 나간 선교사는 대략 200~300명 정도 된다.

선교사의 분포 상황을 보면, 전체 중국 선교사 700~800여 명 중 400~500명 정도가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중심으로 지린(吉林)성에 있고, 150명 정도는 선양(沈陽)을 중심으로 랴오닝(遼寧)성에 있고, 150명 정도는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

일대에 있다.<sup>2)</sup>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나 상하이(上海)시와 같은 큰 도시에도 있는데 매우 적은 실정이다.

교단 선교사 중 장로교 선교사가 50%이상을 차지한다. 선교단체 가운데서는 CCC와 UBF에

1) 한윤숙, "한국에서의 중국선교", (중국복음선교회 세미나, 1995), pp3-4.

2) 김형철, "중국선교상황 고찰을 통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6), p94

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 두 단체에서 파송한 중국선교사는 전체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중국선교사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개교회에서 나간 선교사는 하나님의 성회와 장로교회에서 제일 많이 파송되었다.

### 주요 선교 활동과 선교 성과

국내 선교 활동으로는 중국선교 모임, 중국선교 사훈련학교, 문서선교, 방송선교, 중국 노동자 선교 등이 있다.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으로는 교회개척, 개인 전도, 제자훈련, 단기여행선교, 성경배달사역, 교육선교, 사회복지선교, 의료선교와 기타 전문 인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선교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건립한 교회는 500개 이상으로 추산되며, 가정성경학교나 가정성경학교는 40처소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도 열매는 5,000~6,000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숫자로 통계할 수 없는 선교 성과는 더 클지 모른다. 첫째, 전도의 열매와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 중 지식계층과 대학생들이 많다. 이들은 중국 교회의栋梁지재(棟梁之材; 원 뜻은 '한 집이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릴 만한 인재'로 큰 인물을 가리킴-편집자 주)가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교회에게 넓은 시야와 세계복음화의 대한 비전을 가져다주었다. 셋째, 중국의 엘리트들을 연음으로 중국의 문화복음화에 필요한 인재들을 예비하였다. 넷째, 중국 교회의 여러 사역을 활성화시켰다.

### 한국 선교사의 어려움과 고충들

첫째,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문제는 안전에 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철학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신론 신앙이다. 그들은 흔히 "신이 없다. 구세주는 본래 없다. 인간은 바로 천지의 주인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려고 하면 우

리 자신이 창조해 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모택동 사상은 바로 우리 중국 인민의 지침이요, 원칙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인민을 마취시키고, 사회주의의 의식형태(意識形態)를 와해시키는 자본주의 정신 아편으로 보아왔다. 특히 동부 유럽과 전 소련의 사회주의 제도의 붕괴 과정을 연구한 다음에, 그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기독교가 이미 공산주의 신앙에서 민심(民心)을 빼앗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그 때부터(91년 후)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해외 선교사에게 경계심을 가져왔다.

재중 외국 선교사가 일단 발각되면 더이상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과 사역을 숨기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교 단체에서 예배드릴 때나 기도모임을 가질 때, 단기 신학 코스를 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한다. 예배할 때 모든 문과 창을 다 닫은 후에도 스피어로 틈새를 막아 찬양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다.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없고, 기도할 때도 마음대로 부르짖으면 안 된다. 그렇게 조심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웃들은 찬양소리를 듣고 여기에 기독교 단체가 있다고 공안국에 고발하곤 했다. 공안이 돌아간 후 신속히 모든 기독교 서적, 자료와 시설들을 다른 집으로 옮겨야 했다. 또한 그 멤버 중에서 전도하다가 잡힐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속히 이사를 해야 한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훈련과 사역을 하는 것은 선교사와 멤버들을 지치게 만든다. 연말에 감은회(感恩會)를 할 때면 그동안 주님의 지켜 주심을 돌아보고 긴장을 풀면서 모두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곤 한다.

둘째, 소속 교단이나 교회의 선교지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sup>3)</sup> 이런 이해의 부족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많은 압력과 실망을 가져다 준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결실을 바라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조금씩 결과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선교사가 나간 후 2~3년 동안은 언어를 습득하는 기간이므로 그 시기는 눈에

3) 김다니엘, "한국 선교사들의 중국선교가 변하고 있다", (중국복음선교회 세미나, 1997).



보이는  
성과를 기  
대하기 어렵  
다. 언어를 습득한

후에도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비밀스럽게 해야 하고, 문화와 의식구조의 큰 장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역은 힘겨운 것  
이다. 그래서 너무 높은 지표를 주거나 숫자적으  
로만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힘들게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더 많은 스  
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숫자적 목적을 채우기 위  
해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

중국 정치와 경제적 실정을 잘 몰라서 선교사  
를 오해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어  
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삼자교회와 협력하면  
더 당당하게 빨리 전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서 선교사에게 삼자교회와의 협력을 강요한다.  
그러나 삼자교회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회  
이기에 삼자교회에서 사역하면 자기의 신분을  
중국 공안국에게 드러내 주는 것과 같다. 일단  
공안국이 선교사를 파악하게 되면 언제나 감시  
하고 도청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그의 사역을 중  
단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 경제  
적으로도 오해가 있다. 또한 중국 물가가 싸다

고 하는데 선교사가 왜 그렇게 많은 선교비를 요  
구하며 의심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근  
년 이래 중국 대도시의 물가는 급속히 올랐다.

베이징의 경우 외국인이 정부가 지정한 합법  
적 지역에 가서 거주하면 20평의 아파트  
월세가 150만 원 이상이다.

셋째, 영적 억압과 공격의 어려움  
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은 중국의 어두운 세력 때문이  
다. 천안문 광장 같은 지역에  
가면 기도를 제대로 못할 정도  
로 영적 눌림을 당한다. 선교  
사들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할 때, 출발할 때  
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한  
다. 어떤 선교사 가정은 잠시 타  
이완(臺灣)에 들렀다가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만에서부터 자녀  
들이 많이 아프게 되어 1년 지난 후에도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베이  
징에 있었던 어느 선교사의 사모는 대낮에도 집  
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귀신을 보았다고 한다. 귀  
신이 나타나 공격하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일하  
기가 힘든 것이다.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대개  
몇 년이 지나면 기도도 영력도 많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쇠퇴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지치  
게 된다.

넷째, 중국인의 민족성과 여러 성향 때문에 어  
려움을 당한다. 중국 사람은 옛날부터 훌륭한 문  
화를 가져 왔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역사와 문  
화에 대한 우월 의식과 자부심을 가져 왔다. 요  
즘 경제상의 뒤떨어짐을 자각하면서 자기의 가  
난한 모습을 많이 돌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  
히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다. 대국의식이 심  
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한국 선교사는 종종 이  
런 문화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리고 경제개혁과 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물질만  
능주의 사상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  
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부  
교회와 신자들도 배금주의(拜金主義) 사상에 오

염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선교사는 종종 중국인에게 이용과 사기를 당하곤 한다.

### 한국 교회 중국선교의 문제점

첫째, 사역지와 선교대상의 편중되어 있다.

한국 선교사의 선교역량이 조선족에게만 치우치는 경향이 심각한 정도이다. 재중 선교사 중 60% 이상이 조선족 사역을 하고 있으며, 거의 연변(延邊) 조선족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다. 정식 중국선교사가 약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500명 정도가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중심으로 지린성에 있고, 150명 정도는 선양시 중심으로 랴오닝성에 있다. 동북지역에 있는 이 650명 선교사 중 90% 이상이 조선족 사역을 한다. 나머지 약 150명의 선교사들이 주로 베이징, 톈진 일대 있는데 이들 중에도 조선족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적지 않다.

엔지(延吉)시의 신자 수는 만여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식으로 파송된 한국 선교사 500명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적으로 나간 선교사와 단기선교사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사역자가 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 곳에는 미국 국적의 한인 선교사와 타이완에서 온 선교사들도 있다.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을 모두 합하면 대략 이천 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일만 명 신자가 있는 하나의 보통 도시에 이천 명의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중국에는 27개의 성과 3개의 직할시가 있는데 한국선교사의 90% 이상이 두 개의 성과 한 개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교파주의와 교세확장의 선교<sup>4)</sup>이다.

중국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전통이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교파가 없고 교회의 일치를 가져 왔다. 대부분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된 교회 모습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전통간의 공통점을 서로 구하고 차이점을 일단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선교위

원회 또는 선교단체에서 중국 선교를 할 때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교파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우리 단체의 확장을 하는 것이다. 일부 선교사들은 자기 교단과 교단 신학의 우월성, 심지어 절대성을 주장하여 중국교회 사역자들 간에 긴장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중국의 어느 한 교회를 지원해 주면, 그 교회가 한국의 자기 교단 소속이라는 의식을 주입하거나 한국 교회의 지교회 혹은 어느 노회소속 개척교회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도 적지 않다. 그래서 타교단의 선교사나 다른 신앙전통을 지닌 중국 교회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도 한다.

셋째, 물질 공세<sup>5)</sup>와 건물 위주<sup>6)</sup>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물질 위주의 선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현지 교회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은 방법일 것이다. 연변 조선족 지역 같은 경우는 돈으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조선족 교회와 신자들이 변질된 모습이 나타난다. 유명한 목사가 오면 신자들이 기차역까지 나와서 목사를 서로 자기 집에 모시고 가려고 생탈전을 하는 모습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

건물 위주의 선교행위도 빠른 가시적 결과를 추구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건물과 같은 가시적 건설이 중국 정부당국의 눈에 띄어서 오히려 많은 감시와 간섭을 초래하고 있다. 물질과 건물위주의 선교보다는 말씀사역으로 지도자를 양육하고, 신자들을 교육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선교사의 자질 문제를 들 수 있다.

선교현장에 임하는 대부분 선교사들의 아래 몇 가지 점에서 볼 때 선교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먼저 언어실력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중국에 진출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몇 명 제외하고는 대개가 언어를 배우는 초기 견습 선교사의 단계라고 한다.<sup>7)</sup> 언어와 문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

4) 김형철, op. cit., p.95.

5) 김형철, op. cit., p.96.

6) 김다니엘, op. cit.

7) 김형철, op. cit., p.97.

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다. 한족 신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서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선교사는 매우 적다.

그리고 장기적인 교육계획과 가르침의 준비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제자훈련 코스를 훈련시키고 나면, 그 후에는 더 이상 지식층의 신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중국 지식인들의 깊은 영적 갈증과 신학적 탐구에 대해 선교사들의 실력이 빈약해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 지식층 위주로 모이고 있는 모임에서 지식인들은 영적 충족을 얻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 많은 멤버들이 이런 모임에 2-3년 참석하다가 자기의 영적 기갈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국은 중국 가정교회로 나간다.

또한 영력과 훈련이 부족하다. 많은 선교사들이 몇 년 사역한 후 벌써 영적으로 기진해 보인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과 말씀의 생활이 쇠퇴한다. 보안의 훈련이 부족하기에 쉽게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초래한다.

다섯째, 성숙치 못한 선교정신과 방법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중국 보다 부요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우월의식, 그리고 신학적 우월의식, 자기 교파에 대한 우월의식 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언행들을 쉽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족이 거주하는 곳이 한국에 속한다고 하는 것,<sup>8)</sup> 중국에서 교회를 설립할 때 그 건물에 “한국 ××교회 중국 ××지역 지회”란 명패를 다는 것, 강단에서 종교자유와 전도자유를 외치는 것 등이다.

또한 쉽게 나타내 보이려는 경향<sup>9)</sup>이 있다. 이는 특히 조선족 사역자와 정식 훈련을 안 받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이다. 게다가



선교사끼리 서로 경쟁하며 배척한다. 교단이 다른 선교사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교단에서 나간 선교사들 끼리도 경쟁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 현지 교회를 어렵히고 있다. 보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의 상세한 상황과 찍은 사진을 해외에서 발표하는 것과 여행단을 자주 중국 교회에 방문시키는 것, 중국 교회 계통 안에 마음대로 새 교회를 설립하고 안수를 해 줌으로 그 교계의 관리와 기존질서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 배우며 가르치며 계속 전진하자

총괄적으로 보면, 재중 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와 선교사 견습생들은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더 큰 사역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그들 중의 일부분뿐이지만 가치 있는 선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식층과

8) 김다니엘, op. cit.

9) 김형철, op. cit, p.95.

대학생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있고, 성경학교와 신학교육도 여러 모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성과는 계산할 수 있는 수량보다는 계산할 수 없는 잠재적 요소가 미래에 미칠 영향에 더 큰 성과일지도 모른다. 선교사들을 통해 믿게 된 중국 지식층과 대학생들은 앞으로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며, 이들은 또한 중국의 문화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비전을 주고 있고, 바른 방향을 지적해 주고 있으며, 중국 교회의 사역들을 여러 모양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선교 역량의 분포가 집중되거나 겹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상황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같은 동포로서의 민족감정이 있기 때문에 조선족에게 많이 나가는 현상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몇몇 선교사들은 지금 조선족 위주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래의 한족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은 언어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조선족 학생을 통해서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 현실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과 톈진의 경우에 150명의 선교사들이 있는 것은 이천만 인구에 비하면 지나친 것이 아니다. 선교사의 편중문제는 다만 조선족 지역에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면 될 것이다. 중국의 남, 서부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곳에 소수민족도 많이 있지만, 선교사가 중국 전역으로 흩어지는 선교과제는 하루 이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선교지 즉 서, 남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한국의 중국 선교의 장점은 행동적이며 실천에 빨리 옮기는 점이다. 필자는 한국 교회가 1913년에 벌써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워했다. 이는 태어난 지 20~30년에 불과한 교회가 7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에 대한 선교였다. 1980년대부터의 제4기 선교도 그렇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교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 나라의 선교

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는 한국선교사와 타이완선교사이다.

반면, 한국의 중국선교의 단점은 대부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간다는 점과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추구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의 깊은 영적 갈증과 사상적 탐구에 대해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종종 외적으로 보이는 결과에 치우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의 행동적인 민족정신과 일의 성취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찾아 볼 수 있다. 신속히 실천에 옮기고 결과를 빨리 추구하는 것이 깊이와 질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오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지나친 조심스러운 방법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오늘의 중국은 신앙적인 진공이 있으며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공허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교의 황금시기이다. 이런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경제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이후에도 오늘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인가가 의문이다. 일본과 타이완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행동정신과 진취적인 정신은 절대로 필요하다. 한국 선교사가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사역을 시작함으로 허물과 실수가 많다고 비난하는 것은,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시각에서 보지 못한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도 그의 중국 선교사역 초기에 실수가 많았고 성숙치 못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의 비결은 실수 때문에 낙심치 않고 실천하는 데서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중국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 준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중국선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러 문제점도 있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실천하는 가운데서 성숙치 못한 방법들을 버리고 현지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세워가며,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현 지 인 의 소 망

서 청



중국인들은 성경공부를 통해 '주의 말씀이 송이꽃 보다 더 달다'는 말을 경험했고, 삶이 변화되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함)

은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만큼 김대중대통령의 인격적 수양과 정치적 수완이 빛을 발한 외교무대였다.

그러나 또 다른 무대에서는 이와는 정 반대현상이 연출되었다. 그것은 곧 중한수교 6주년을 기념하는 양국의 문화예술인들의 축제의 무대에서였다. 이 공연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양국관중들이 좌석을 메웠고 출연진들도 모두 양국의 정상을 누비고 있는 가수들로 구성되어 관중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여 출연한 몇몇 가수들은 지탄받아 마땅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수교 6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협력을 경제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정치적인 협력과 안보, 문화 등 여러 면에서의 포괄적인 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그의 노력은 꺾 돋보였다. 특별히 베이징(北京)대학에서 진행된 그의 연설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민중의 지혜에 대한 찬사와 아울러 현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의 정책과 지도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존심 강한 중국사람들에게 좋

이 날 행사장을 찾아들어 관중석을 메운 관객들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개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베이징시민들이었고, 한국인들은 주중한국대사를 포함한 한국 교민들과 한국 유학생들이었다. 출연한 중국의 가수들은 한국 관중들을 의식해서인지 대개 우정의 노래거나 아니면 중국전통을 담은 대표적인 가요들을 택해 불렀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인기가수 쑤웨이(孫悅)가 한국의 인기곡인 '콩파리 사바라'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부른 것이었다. 이는 한국인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은 중국 관중들에게 별 감동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른 노래들은 한국 문화를 담은 대표적인 노래들도 아니었고, 중국인들이 도무지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그저 그런 노래들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관객들은 열광했을지 모르나 중국 관중들은 무표정하기만 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부 한국 가수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공연모습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 무대가 중한수교를 기념하는 문화예술교류의 무대인지 아니면 한국교민을 위로하기 위한 자축의 무대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중국어에 ‘反客爲主’(손님이 거꾸로 주인행세를 한다는 뜻)란 성구가 있다. 아마도 이 성구는 틀림없이 그러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장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란 사실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지 않고는 절대 존중받지 못한다. 중국인으로서 그러한 장면들을 지켜보는 나로서는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장면들이 나로 하여금 중국 전역의 선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 선교사역의 반추

80년대 말기부터 나는 한국에서 온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들 가운데서 나는 특별히 몇몇 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또 그분들에게 제자양육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젊은 나이에 주님을 영접하고 일찍부터 교회의 중책을 맡게 된 나에게 있어서 그분들은 믿음의 스승이자 동지들이었다. 나는 그분들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들에게는 풍부한 성경지식

과 뛰어난 사역경험이 있었다. 나는 그분들을 매우 존경하였고 또한 그들을 자신의 사역의 모델로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L 선교사와 K 선교사와는 깊은 형제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그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과 의미는 매우 컸다.

함께 동역하던 초기에 나와 L 선교사는 그야말로 형제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냈다. 그분은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중국 문화를 좋아했으며 중국의 전통의복을 입고 중국인처럼 살려고 무척 애썼다. 나는 그분의 그러한 모습들에서 더욱 감동을 받았다. 그분은 한국에서 수년간 목회를 하신 경험을 갖고 있었고 신학석사 학위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열정과 지혜도 있었다. 당시 대학생이었고 신학교에는 가보지도 못한 나로서는 그야말로 부러운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마침 그분도 저와 함께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하기 원했다. 이렇게 성경공부는 시작되었고, 성경공부를 통해 나는 시편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친구들을 성경공부에 끌어들이며 그룹을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성경공부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삶 속에서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과 깊은 형제애를 체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학 때에는 전도팀을 조직하여 시골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곤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 헌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헌신들로 인하여 드디어 베이징의 대학가에서 복음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교회로 물러들게 되었다. 그때 나는 제자양육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흥분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때



중국 교회가 아직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곧 훈련된 지도자와 전문화된 일꾼들의 양육이다.(사진은 내용과 무관 함)

님께서 원하시는 정도(正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분과의 더 오랜 사역을 통해서 나는 L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현지인들의 믿음과 사역의 성숙보다도 오히려 오랫동안 꿈꾸어온 그분의 비전과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치 장기관에서 ‘馬’ 이나 ‘砲’ 나 ‘卒’ 은 오로지 ‘帥’ 를 위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치였다. 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바로 잡아 보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다. 드디어 온 몸이 만신창이 된 나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룹을 떠나야만 했다. 그룹을 떠나면서 나는 L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

이른 찬 서리를 맞게 되었다. L 선교사의 사역에서 나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제자양육 성경공부가 이제 금방 복음을 영접한 대학생들에게 신앙의 무지를 벗어날 정도로 진행되면 더이상 심화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공부를 마친 제자들인 것처럼 사역에 내 물리웠다. 더욱 깊이 성경의 진리 속에 빠져들고 성숙한 믿음과 내면의 성장을 원하는 우리들의 선한 욕망은 목살되어 버리곤 했다. 그리고는 L 선교사가 지정해주는 끊임없는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했다. 심지어 대학까지 중퇴하고 사역에 충성하는 사례까지 발생되었다.

처음 나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다. 그리고 L 선교사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어찌면 예수

였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르친 중국학생들 가운데서 빌리 그래함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건은 나에게 적지 않은 아픔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본 제자양육의 단맛은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자신이 L 선교사님보다 더 뛰어난 제자양육의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대학생 양육에 많은 역점을 두고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의 미숙함과 부족함은 나에게 무력감을 더해 주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제자양육의 진수를 배우기 원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제자양육의 대가로 알려진 K 선교사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1년 반동안 제자양육 훈련을 받게 되었다.

K 선교사님의 훈련은 철저했다. 경건의 시간과 성경암송 그리고 기도와 질서 있는 생활습관의 훈련이 매우 좋았다. 그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그분은 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나의 교회사역에 대하여도 하나에서 열까지 속속들이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에게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관점 따위는 애당초 관심도 없었다. 나는 갈수록 그분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화란 오직 일방적인 지시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중국 문화의 특징과 중국 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중국의 복음화는 마치 그분들의 절대적인 지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언행들은 나의 반감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 이후에도 수십 명의 한국 선교사들을 만났다. 물론 일반적인 교제만으로 그쳤지만 그들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실적 위주의 사역과 그들간의 영문 모를 반목으로 인해 안타까워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필경 이런 것들로 인해 중국 현지인들이 웃고 울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깨달은 또 하나의 분명한 주제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과 사역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선교사들과의 참된 동역의 관계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 중국 교회의 현주소

홍콩의 선교단체들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크리스천 수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를 통털어 이미 8천만을 넘어 1억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조금은 과장된 숫자일지도 모르나, 중국 교회의 성장이 그만큼 폭발적인 것만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비록 중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낮은 편이지만 나라별로 따진다면 이미 앞줄에서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더이상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

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일지도 모른다. 복음전파의 몫은 수천 만의 중국 교회 신자들이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전역에는 지금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교회가 아직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곧 훈련된 지도자와 전문화된 일꾼들의 양육이다.

현재 중국에는 13개의 공식적인 신학교와 그 외 몇 개의 성경학교가 있을 뿐, 교회일꾼들을 양육하는 터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신학훈련을 받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학할 신학교가 없다. 몇 안 되는 신학교들도 교수진과 도서 및 기타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좋은 스승을 찾아도 만나기 어렵고, 좋은 신앙서적을 구해도 얻을 수 없으며, 좋은 배움터를 원해도 갈 길이 없는 것이 중국기독교청년들의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교회의 상황은 전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의 헌신과 사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경우도 역시 그러했다.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주님을 영접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설교자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했다. 물론 이것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어야 했는지 몰랐다. 토요일 저녁 한밤중에도 완성되지 못한 설교원고를 붙잡고 전전공공할 때, 때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었지만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저주하며 괴로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실제로 중국에서 때 이르게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된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중도에 변질되고 곁길을 걷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



선교사들 중 어떤 분은 중국 현지인들의 믿음과 사역의 성숙보다도 오히려 오랫동안 꿈꾸어 온 자신의 비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어느 삼자교회 예배 모습)

졌을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청년들을 바라보며 중국기독교청년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 훌륭한 실력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교수님들이 한국 교회에 운집해 있고, 수많은 신학교들의 대문이 활짝 열려있으며, 기독교서점에 들어서면 너무나 많은 신앙서적들이 오히려 무엇부터 읽어야 좋을지 모를 행복한 고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 아닌가!

**정확한 처방이 필요**

94년 한국의 모 교단에서 천안문광장의 집회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가까운 돈만 허비해

버린 사건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수 만명의 출석교인을 자랑하는 서울 K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시하여 100명이 넘는 기독교실업인들이 천안문광장 집회를 위하여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러나 중국현실에 대한 무지와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인해 천안문광장 집회는 결국 그들이 지불한 수백만 불의 돈과 함께 탁상공론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나는 현재 중국 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또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는 곧 효과적인 지도자 양육사역이라고 생각한다. 천안문광장의 집회는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없어도 중국 교회의 발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지도자의 양육은 중국 교회 발전의 승패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역이다. 물론

한국 교회도 이미 이러한 지도자양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교회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중국 교회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라고 생각된다. 지역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화와 외모까지 공통점이 많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뜨거운 열정이다. 때문에 나는 주께서 지금 중국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국 교회에 주셨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중국 선교사역을 위해서 나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시각차이의 교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중국선교가 더 이상 선교학에서 말하는 어떤 이론이나 또는 한국 교회의 수요나 반드시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지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중국 교회의 현실문제에 입각하여 협력과 섬김의 차원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선교사역에 우선되어야 할 대전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들은 얼마든지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다. 캠퍼스사역이나 신학교사역, 주일학교사역이나 또는 문서사역 등등 수많은 사역들이 훌륭한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사역이 앞서 말한 그러한 대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선교사나 한국 교회가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인들을 지도자로 세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한국 교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특별히 웅장함을 자랑하는 대형교회들과 교단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다. 한국 교회가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양보다 질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비전 있는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사역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 길이 중국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첩경일 것이다. 혹자는 초청양육사역이 실패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초청양육의 실패의 가능성은 언제나 파송된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의 실패의 가능성과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승패는 초청된 현지인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양육과 훈련에 달려있는 것이다. 비전 있는 현지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선진국들의 신앙과 신학과 사역의 모든 것들을 폭넓게 섭렵하고 익히게 하여, 중국으로 돌아가 자국

의 교회를 건설하고 필요한 일꾼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이야말로 중국교회가 하루빨리 선교사들의 사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날들이 속히 다가오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또한 그날의 여명이 밝아올 때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고마워하듯이 한국 교회의 희생적인 사역에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이다.

### 결언

어떤 의미에서 선교란 더이상 선교사역이 필요하지 않도록 그 민족, 그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교의 참된 열매, 최종의 열매는 아마도 현지인들의 믿음의 성숙과 사역의 성숙일 것이다. 선교지 교회들의 지도자의 성숙도는 선교사와 선교국의 선교사역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중국을 위해 10개의 대형 교회건물을 세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10권의 주옥같은 신앙서적을 보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10권의 신앙서적의 보급보다도 더욱 효과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10명의 훈련된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또한 한 영혼을 통해 중국의 13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랑과 인내의 선교 -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이땅에서 보여주신 선교의 참정신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이 무겁고도 중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해내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대한 사명 위에 우리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書淸/  
중국 현지인

## 경험을 통해서 본 중국선교 사역

유진광

1992년 중국과 정식 수교가 된 지 6년이 지나 이제 7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92년 이전에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거나, 비밀리에 입국하여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국교 수교 이후 비로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으로 중국에 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때부터 신분을 감춘 선교사들도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입국하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중국선교에 뜻을 두고 10년 이상 기도하며 준비한 일꾼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갓 무너진 동구권의 영향으로 공산권 선교에 관심을 갖다가 중국선교에 동참하게 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중국선교의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갖게 하셔서 중국을 품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이제 6살밖에 안 된 우리의 중국선교를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IMF 이후에는 우리의 선교를 평가해보려는 움직임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앞선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선교사의 중국 사역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견해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많은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많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중국선교의 단계를 살펴 보아야 한다.

그 첫 번째 형태로 우리의 중국선교는 먼저 '조

선족 선교' 라는 관문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조선족 모국 방문을 통해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길들이 있어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게다가 외국인이지만 현지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바로 사역을 시작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역자가 중국 선교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선족을 복음화한다면 그들은 중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므로 장차 중국 선교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 속에 많은 사역자들이 조선족이 주로 거주하는 동북지방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었고, 조선족 복음화가 곧 중국복음화란 큰 꿈도 갖게 되었다. 이 형태의 사역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선족 자체를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형태는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그 동안 현지에서 꾸준히 한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기 시작한 선교사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면서 생기게 되었다. 즉 한족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조선족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직접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피나는 배움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다양한 사역의 형태가 생겼으며 그것이 조금씩 정착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있다.

세 번째 형태로는 우리 나라에서 '미전도종족'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런 경향이 중국에 있는 많은 미전도종족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선교사들은 먼저 공용어인 한어를 배우기 위해 해안의 대도시에 거주하

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95년부터 외국인 내륙도시 체류가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내륙에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되었다. 이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는 있지만 중국 내의 소수민족 선교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힘입어 그동안 준비하며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많은 선교사들이 내륙 도시로 들어가서 정착하며 주위의 미전도종족 파악과 연구, 소수민족 언어 습득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세 가지 사역의 형태가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본격적인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선교는 다른 선교지와는 다른 특이한 몇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로는 대부분의 선교사가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입국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단점이란 현지의 상황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선배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지 상황이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채 여러 가지 일을 벌여놓고는 그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든지, 선교사들 사이에 사역이 중복되어 갈등을 겪게 된다든지, 서로 경쟁하면서 배타적이 되어 주위의 많은 사람(특히 현지인)이 상처를 입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람이 가는 여러 곳에서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고착되느냐 아니면 개선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최근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스스로 제기되,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서로 협력하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어떤 선교지에는 고참 선교사가 있고 서열이 정해져서 건설적인 조정조차



선교사는 완벽한 모습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하고 있다.  
(사진은 동북 삼성의 어느 처소교회)

도 할 수 없고, 짜여진 틀대로만 움직여야 하며, 기득권만을 주장하여 협력이나 개선과 같은 일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이런 협력의 시도는 중국 내의 한국인 선교사만이 갖는 특이한 점이며 한국 선교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 속에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그에 반해 우리 나라는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생활습관 가치관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교 직후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특히 문화혁명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하기란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공산국가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에 많은 긴장을 느끼게 한다. 조금만 실수하면 당장 공안이 와서 조사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각보다는 많은 자유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마음이 열려있고 심지어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까지 들으면 지금까지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게 느껴지면서 적극적으로 사역에 이르려고 하

면 하루아침에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늘 사역의 긴장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과 인내하며 은밀히 수고하는 것에는 우리 선교사들의 훈련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는 늘 오래기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중국사회에 살면서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주님은 선교사의 연약한 점을 가장 잘 아신다. 그러면서도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 그러나 먼저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바꾸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 많은 선교사가 중국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만만다'의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점점 선교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닌,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배우게 되고 고백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중국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익히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선교사는 완벽한 모습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듬어져 가는자인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인 선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보아야 한다.

한국 선교사는 대부분 군복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최근 역사를 통해서 군사문화를 겪어왔다. 중국은 공산국가이며 군사문화의 바탕에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경험은 중국 현



중국내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들은 주로 변방지역에 살고 있다.  
(사진은 마오족 사람들이 녹음 테이프를 제작하는 모습)

지를 이해하고 적응하기에는 매우 좋은 배경이 된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는 70년대부터 사회의 격변기를 겪어왔다. 이것은 이농현상과 무작정 상경하듯 도시로 몰리고 있는 중국의 사회, 경제분야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르는 흐름과 문제를 읽을 수 있다. 우리가 겪어 보았기에 그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우리 또한 현지의 열악한 환경을 잘 견딜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중국 선교를 위한 좋은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교회는 최근 들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에는 이에 따른 많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의 필요를 채워 주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중국은 너무나 넓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현지의 필요를 알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을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 첫째로는 늘어나는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며 한국 선교사 가운데에는 제자훈련과 지도자 사역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또한 이것은 현지의 필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특

히 가정교회 지도자 사역은 시간이 경과되면 졸업생들의 모임이 형성되고 그들을 돌봄이 필요하며, 이것은 결국 교단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사역 초기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신학교에 의해 여러 교단이 생기고 현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문서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교회의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된 요인 가운데는 제자훈련의 붐과 아울러 양질의 신앙서적과 성경공부 교재, 신학서적이 많이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데, 양적인 증가와 아울러 문서는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독교가 외국의 종교라는 이질감을 느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서 전달을 하는 단계, 현지의 필요에 따라 문서를 번역하고 보급하는 단계, 현지인의 삶과 공감을 느끼게 하는 문서를 만들고 보급하는 단계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는 것만큼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물론 이 사역에는 특별한 은사와 경험과 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일에 많은 관심과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어린이 사역이다. 중국 종교법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회 주일학교가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관계로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린이 복음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현지 교회가 가운데에는 이러한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 많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른이 되어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어릴 때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따라서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준비와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대학생 사역이다. 한국의 경우에서 대학생 사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 일을 많은 사역자들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와 같은 수준의 공식적

인 대량 운동의 형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개인 전도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양육되고 재생산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맞는 사역의 모델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소수민족 사역이다. 중국 내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미전도종족 개념으로 보면 3000여 개가 있다는 보고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변방지역이라서 중국 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접촉을 통한 전도를 통해 전파가 가능한 지역이다. 최근 몇몇 부족에서 이러한 시도가 생겼다는 소식은 접하였지만 각 지역의 환경과 민족 특성에 맞는 사역의 모델이 앞으로 더 나와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복지사역, 지역사회 개발, 의료사역, 전문인 사역 등 많은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가 현지에 고착되고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도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야겠다.

끝으로 중국 선교에 대한 제안이라면 우리의 중국 선교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교회와 선교의 오랜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교는 다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먼 미래를 보아야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듯이 중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선교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르침, 행동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군림할 수 없다. 우리가 더 많이 안다고 일방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세우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인내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교회에 대한 위치를 새롭게 해야 한다. 주님 앞에서 모든 열방이 나아와 찬양드릴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많이 성숙하고 진보하고

## 성장했음을 감사하자

-한중수교 이후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를 돌아보며-

### 유관지

필자는 본지를 통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역사 구분에 대해 두어 차례 언급한 일이 있는데 2000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1기는 1912년(또는 1913년)에서 1957년까지로 착수기라고 할 수 있다.장로교는 1912년에 총회를 조직하면서 중국선교를 결의한다. 이 결의에 의해 1913년부터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선교활동을 하다가 중국 내부의 혼란과 공산화로 선교활동이 중단되었다. 제1기의 끝을 1957년으로 잡은 것은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인 방지일(方之日) 목사가 1957년에 귀국했기 때문이다(감리교의 장죽섭(張竹燮) 목사가 1970년까지 베이징에 있었으나 이분의 선교활동 대상은 재중동포였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6·25 당시 거제도와 부산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 수용되어 있던 중공군 포로들을 상대로 한 전도활동이 있었다. 이 일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분은 “한국 반공포로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볼켈(Harold Voelkel 한국이름 玉鎬烈) 선교사였다.

제2기는 1956년에서 1978년까지이다.

이 때는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문화대혁명의 폭풍우가 중국 교회를 강타해서 중국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종의 휴지기(休止期)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때 한국교회는 중국선교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1956년에 극동방

송이, 1973년에는 아세아방송이 세워진 일이다.

1956년에 설립된 극동방송은 초기에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중국어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은 심야와 새벽에 두 차례 재방송이 되었다. 이 때 중국어방송을 담당했던 분은 버그스트롬(Thyra Bergstrom 한국이름 朴壽敦) 선교사였다. 현재 극동방송의 중국어 선교 프로그램은 대부분 홍콩(香港)과 타이완(臺灣)에서 제작되어 오는데, 이 때는 한국 땅(인천)에서 직접 제작되고 송출되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때가 더 발전했었는지도 모른다.

버그스트롬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외가 중국어에 능통해서 말하는 것만 듣고서는 이들이 미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극동방송의 러시아 방송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많은 반응이 있었으나, 중국어 방송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다. 1950년대 후반기 중국 내부의 형편이 교인들이 외부로 편지를 내보내기 어려웠기 때문인가, 아니면 반응을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아세아방송은 처음부터 중국선교 방송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아세아방송이 제주에 설립된 이유는 중국(특히 상하이(上海))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1974년부터 아세아방송에 근무했는데, 이 때는 중국을 비롯해서 공산권에 선교방송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79년부터 폭발적인 반

음을 접하고 '내가 참 놀라운 일을 하는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제3기는 1979년 중국의 개방 정책으로 중국 교회와 접촉이 가능해진 때부터 현재까지이다. 재개기(再開期)라고 할 수 있다.

제3기의 1단계는 1979년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이다. 이 때는 중국 선교가 일종의 지하 특수 선교의 양상을 보였고 아세아 방송이 주요 채널이었다. 그리고 북방(당시 용어는 공산권) 여러 나라 가운데서 중국선교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산권 선교는 곧 중국선교를 의미했다.

2단계는 1986년부터 1992년까지이다.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대규모의 중국선수단과 임원진, 보도진이 서울을 찾았고, 이어 88 올림픽이 열리고 한중수교가 이뤄졌다. 이 때부터 중국선교가 보편적인 일반 선교의 하나로써 성격을 바꿨고 선교의 채널이 다양해졌다. 이 무렵에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개방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중국에 몰두해 있던 북방선교 일꾼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러시아쪽으로 많이 유출되었다.

3단계는 1992년 한중수교로부터 지금까지이다. 이 때부터 중국 왕래가 가능해져서 비록 직접선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IMF 한파를 겪게 되었고 중국의 경제력이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하여 선교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제3기의 세 번째 단계를 되돌아보는 것은 중국선교가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해 발표되는 글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밖에서 중국선교계(界) 내부를 보면서 하는 말들도 칭찬보다는 꾸지람이 많다. "동지" 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들도 끝에 가서는 자성(自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결론을 대신한다. - 선교대상이 조선족으로 편중되어 있다, 선전에 치중한다, 선교대상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기본 항목인 언어구사능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선교를 받는 쪽보다 선교를 하는 쪽을 위한 선교이다, 물질중심의 선교(Money Mission)이다, 선교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창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해 양극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등등.



채찍은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채찍질이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학(自虐)이 되어서도 안된다.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재개될 무렵부터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필자의 입장에서 말하라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제3기의 20년, 짧은 기간에 장족의 진보를 이룩하고 있다. 이 말이 실감이 나도록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재개 무렵에 있었던 필자가 저지른 두 가지 에피소드 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979년 4월부터 재중동포 크리스천들의 편지가 아세아방송 앞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성경을 보내달라는 것과 이산가족들을 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 편지들을 소화하는 프로그램, 다시 말해 재중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생겼다. KBS 사회교육방송에서는 이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타이틀이 "북간도 동포에게" 였다(지금은 "보고싶은 얼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해 발표되는 글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채찍은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자학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진은 중국의 어느 한 인교회 예배 모습)



듣고 싶은 목소리”로 바뀌었다.

아세아방송은 1979년 가을에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만주 동포에게”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만주”라는 말을 아주 싫어한다. 만주국(滿洲國) 시절을 이야기할 때는 위만(僞滿) 시절이라고 한다. 그것도 모르고 프로그램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재중동포들이 편지를 통해, 또는 중국 여행자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불쾌감을 표시했으나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인텔리 재중동포의 “서울에 사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송하면서 ‘경성(京城)동포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항의를 받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즉시 “중국동포에게”로 바꿨다. 그 뒤로는 “저 북방 얼음산과” “나의 살던 고향은” “먼 땅 좋은 기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며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에 아세아방송 제주본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서 송출하면서 “여기는 제주도입니다”로 고정되었다. 이런 엄청난 과오 때문에 필자는 지금까지도 “만주”라는 말을 들으면 닭살이 돋는다.

또 하나는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1984년에 있었던 일이다. 홍콩의 중국교회연구센터(소장 조나단 차오 목사)가 펴낸 「중공의 기독교정책」을 역간하는데, 당시만 해도 이런 책을 온전하게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재학중인 화교 한 분을 비롯하여 크리스천 화교 신학생들 몇 분이 초역을 하고 필자가 원문과 대조해 가면서 교열을 했다. 원

문에 범제강(梵帝岡)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을 아는 분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원어 그대로 넣어 버렸다. 신의종(信義宗)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런 상태로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극동방송의 중국어방송 책임자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에게 물으니 하나는 바티칸이고 또 하나는 루터교란다. 인쇄기 스톱! 당시는 활판 인쇄라고 해서 납 활자를 가지고 조판을 해서 덜컥 덜컥 인쇄를 하던 때였다. 활자를 급히 바꿔 놓고 인쇄를 계속했다.

중국선교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극동방송에서 실무책임자에 의해 빚어진 이 촌극은 당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얼마나 영성하고 미숙한 것이었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얽힌 이야기 셋이 더 있다.

하나는 제목을 「중국의 기독교 정책」이라고 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중공의 기독교 정책」이라고 했다(원문도 「中共對 基督教的 政策」이기는 했다). 그 때는 “중국”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가 없었다. “중공”이라는 말은 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그 때만 하더라도 이런 책을 내도 무사한 것인지 자신이 없어서 꽤 유력하다고 알려진 교계인사 한 분의 이름을 빌어서 출간을 했다.

마지막 하나는 당시 한국 교회에는 중국선교 붐



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책이 매우 많이 팔릴 줄 알고 만 권을 인쇄했다. 그런데 팔린 것은 육백 권 남짓 되었다.

불과 십여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지금은 얼마나 성숙해지고 성장했는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선교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대상이 재중동포에서 중국과 중국인(漢族)들로 바뀌고 있다. 중국선교를 주제로 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들도 과거에는 재중동포 선교 문제를 많이 다뤘으나, 이제는 중국의 종교정책과 중국선교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필자는 시간이 허락되면 중국선교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의 경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산출해 보려고 한다.

둘째, 중국 내 소수민족 전도와 한 지역을 집중 조명하며 선교적인 분석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아직은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도 소수민족 선교에 착수하는 분들이나 특정지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수준 높은 책자와 정기 간행물들이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중국

을 주께로」이다. 타문화권 선교 전반을 다루는 선교잡지 몇이 나오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데 열악한 제작여건 속에서 중국이라는 한 나라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고 깔끔한 잡지를 정해진 때에 거르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현재 성령이 가장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는 분야가 바로 중국선교라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도 확인하곤 한다.

중국복음선교회에서 반년간(半年刊)으로 발행하고 있는 논문집「중국교회와 선교」도 수준 높은 글들로 중국선교가 나갈 길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넷째,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었다. 전에는 중국선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중국선교를 외치고 있다. 그 가운데는 표피적으로만 알고 값싼 흥분을 유도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중국선교의 진상을 알리는 차분한 강연을 한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을 생각하곤 한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선교를 되돌아 본다니,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신 차리자는 내용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성숙하고 진보하고 성장했음을 감사하자는 것이다. 진심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다시 말해 선정주의(煽情主義)가 깊이 있고 차분한 선교활동을 제압하는 현상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걷기 위해 애쓰며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선교이다. 중국선교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으며 한국 교회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유관지/목양감리교회 담임목사

# 국내에서의 중국선교는 어디까지 왔나?

석은혜

**한** 국 교회의 중국 선교는 1913년 장로교 총회에서 3인의 선교사를 중국 산둥(山東)성에 파송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45년 한국이 해방되면서 중국과 국교가 단절되었고 게다가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해외 선교사들을 추방하자 1957년 방지일 목사의 귀국과 함께 산둥성 선교는 막을 내렸다.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그 동안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에 전문인으로 들어가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2년 8월 24일, 드디어 역사적인 한·중수교가 이루어지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선교사들도 여러 가지 신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시작되었다.

한중수교가 이루어 진지 6년, 이것은 다시 말해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한 중국선교 역사가 6년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안에서 다시 이루어진 선교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중국 선교 역사는 더 오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극동방송국의 방송선교의 경우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 필자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선교 상황과 중국 선교를 위한 준비 역시 '선교'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방송을 통한 중국선교

극동방송은 1956년 인천에서, 아세아방송은 1973년 제주도에서 각각 개국되었고, 1979년 공동 운영을 시작, 지금까지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활발한 방송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방송의 전파를 송출해 왔다. 극동방송은 100KW의 송출력으로 4시간 30분 동안 중국어 방송을, 아세아방송은 민간방송으로서는 최대출력인 250KW로 5시간 15분의 중국어 방송을 송출

하고 있다.

특히 양 방송사는 가장 좋은 밤 시간을 이용하여 여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끝송이 보다 단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다. 동북지역은 물론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에까지 폭넓은 가칭 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복음방송은 성경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되고 있다. 일부 가정교회에서는 일반 중국인들도 쉽게 접촉 할 수 있도록 편성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내용이 너무 진보적이라는 평을 하고있기도 하다.

이 중국어 방송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에서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어 점점 중국어 방송이 어디에서 제작되는지에 대한 지역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 또 최근 들어 극동방송에서는 중국 지식층들을 위해 인터넷 선교를 시작하였다.

또한 1995년 9월부터 북방선교방송(Trans World Radio)이 한국에서 창립되어 중국의 조선족과 한족을 대상으로 방송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중국어 프로그램은 홍콩, 타이완,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제작되어 100KW의 송출력으로 광에서 송출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사무실은 싱가포르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라디오교회"라고 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라디오교회"란 성경 5권, 찬송가, 그리고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교재 6권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중국 내 필요한 곳에 보급하는 전략을 말한다. 중국어판은 지난 3년간 약 2만개가 보급되었다.

방송선교는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전파를 통해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 보급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적인 상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라디오를 통한 방송선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 북방선교방송 등에서 송출되고 있는 중국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극동방송(益友電台 第二台), 중파 1188 KHZ, 보

통어, 21:30~02:00

\* 아세아방송(益友電台 第一台), 중파 1566 KHZ, 보통어, 19:00~21:30, 22:45~01:30

\* 북방선교방송(環球廣播電台), (단파 11,995 KHZ, 11,670 KHZ, 9,540 KHZ, 9,555KHZ, 9,590 KHZ, 9,820 KHZ, 9,545 KHZ, 9,820 KHZ, 보통어, 06:00~07:15, 17:25~23:30).

(11,875 KHZ, 9,870 KHZ, 광동어, 06:00~07:00, 22:00~23:00).

(9,870 KHZ, 조주어, 21:30~22:00)

### 문서를 통한 중국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방법중의 하나가 문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문서선교로 그 효과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84년에 중국복음선교회가, 1989년에 중국어문선교회가 창립되었다. 이 두 단체는 중국에 관한 자료나 교회 소식 등을 번역하거나 중국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출판하여 한국 교회에 중국 선교를 알리는 문서선교를 하였다. 중국복음선교회에서는 격월간지 『중국과 교회』를 발간하다가, 최근 『중국과 복음』을 발간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에서 1990년부터 격월간으로 『중국을 주께로』를 발간 9년째( 98년 12월 현재 54호 출간) 출판해 오고 있다. 이 책은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중국에 관한 풍부한 각종 정보와 중국 교회 소식, 중국 선교에 관한 생생한 현장이야기들을 실어 출판하고 있다.

이 외에 각 기독교출판사를 통해 『중국선교핸드북』,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중국교회의 부활』, 『중공의 기독교 정책』,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등등 중국교회와 선교에 관련된 책들이 현재 60여 종 발행되어 나왔다. 1995년 당시만 해도 10여권에 불과했던 중국선교 관련도서가 6배로 늘어난 것이다.

중국어로 번역, 출판하여 중국인에게 전해지거나 중국인 제자훈련 교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매우 미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중국어로 번역, 출판된 책으로는 몇몇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집이나 간증집으로 현재 10권이 채 안 된다. 지금도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집과 간증집을 번역하고 있는 팀이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또한 중국인 제자훈련을 위한 훈련교재나 신앙서적을 동아시아선교회, 대학생선교회(CCC),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등의 선교단체에서 중국어로 번역 혹은 출판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이미 중국어 성경과 전도지, 성경강해집 등을 전문적으로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는 홍콩의 복음증주협회(CCL)와 1995년부터 협력하여 문서전달 사역을 하고 있다. 복음증주협회의 도서들을 한국에서 공급받아,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인편을 통해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중국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성경책 전달사역은 이 밖에도 모퉁이돌선교회와 오픈도어선교회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 중국선교 연구사역

중국선교에 앞서, 우리는 먼저 중국을 연구, 이해해야 한다. 『중국교회와 선교』(96년, 창간호)에서 한윤숙 간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주로 많이 연구된 중국선교 주제 및 분야는 다음과 같이 7개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신교의 중국선교 역사’, ‘중국 공산화 이후의 교회 상황’, ‘중국 공산당의 종교정책’, ‘개혁 개방과 중국선교’, ‘조선족 선교’, ‘한국의 중국선교’, ‘전문인 선교’ 등이다.

이런 연구가 있었기에 과거 서구 선교사들이 범한 시행 착오와 문제점,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현재 한국의 중국선교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을 가능케 했다. 뿐만 아니라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중국 교회의 실재를 구성하고

있는 삼자교회, 가정교회 상황과 공산당의 종교정책으로 인한 제한과 장애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 선교가 보다 효과적이고 중국의 필요에 부응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사역은 주로 극동방송, 중국복음선교회,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사, 그리고 신학교(선교학 교수 혹은 석박사 학위 논문)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인천 중국선교연구협회에서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의 산동선교 역사가 연구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동북삼성과 베이징(北京), 칭다오(靑島), 따론편(大連) 등에 있었던 조선인 교회들의 역사가 연구되고 있다.

또한 중국복음선교회는 격월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를 나누고 있으며, 1996년 부터 『중국교회와 선교』(半年刊)라는 전문 연구지를 통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중국을 주께로』를 통해 발표되었던 자료를 정리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사역은 한국 교회와 중국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증가시켰고,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한 변화하는 중국사회에 다양한 선교방법들을 제시했고, 중국선교를 반성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편중된 연구주제, 연구자료와 전문적인 연구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AAP 내에 ‘종족과 도시선교연구소’가 신설되었고, 한동대학교에서 인터넷에 ‘가상연구소’를 3월부터 개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CIAS.handong.edu). 이 두 기관의 연구 성과를 기대해 본다.

### 중국선교훈련원 사역

한국 선교사들이 훈련과 준비 없이 열정만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선교하다가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대부분 언어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족 대상의 선교가 이루어졌고, 프로젝트성 위주였다. 조선족 선교에서 한족선교로 전향할 필요성을 절감한 중국어문선교회는 1992년 9월, 중국선교훈련원을 시작하였다. 지난 6년 동안 90여 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제13기 훈련생 10여 명이 훈련받고 있다.

전체 훈련기간은 6개월이지만 강(強)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6개월 동안 3학기로 나누어, 선교중국어 학습을 집중으로 하는 국내에서의 15주간(1, 2학기) 훈련이 끝나면, 9주간의 현지적용 훈련(3학기)으로 들어간다. 현지의 대학과 연결하여 언어연수를 함과 동시에 중국의 문화, 생활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중국선교훈련원은 1년에 두 차례(1월과 6월) 훈련생을 모집하며, 매기마다 10여 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교회나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르받은 예비선교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995년에는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기관으로 중국선교사훈련원이 시작되었다.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간 신입생을 모집하며, 논술과 면접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중국선교에 소명이 확실하며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로서, 일반 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정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훈련원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 Mission Seminary)>이 인정하는 인준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현재 20여 명이 배출되었고, 15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사역 실습이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어서, 2년의 훈련기간 중 4회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또한 중국선교사훈련원에서는 졸업생들이 선교지를 선정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 선교훈련원으로 한국선교훈련원(GMTC),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 성광전문인선교훈련원, 총회세계선교회(GTS)훈련원, 연합선교사훈련원(MTI), 한부선선교훈련원(MTI), 예수전도단 예수제자훈련학교(DTS) 등이 있다.

좋은 교회, 선교단체가 훌륭한 선교정책을 갖고 사역을 하여도 궁극적인 선교의 성패 여부는 선교사의 자질에 달려 있다. 군사로 부름받은 헌신된 선교사 후보생들을 잘 선발하여 적합한 훈련을 받게 한 후 파송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방한중국인 선교사역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0년에 수많은 중국교포가 친척 방문차 한국에 들어왔고, 1994년도부터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입국하였다. 최근들어 한국 경제 위기로 중국 노동자들이 조금씩 귀국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6,7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에 남아있다.

방한 중국교포 사역은 처음 중국어문선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도에 중국 한약에 수은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 있다는 보사부 발표가 신문에 보도되자, 하루아침에 한약의 판로가 막혀 돌아갈 여비조차 없어 조선족들은 시청 앞에 모여 추위에 떨고 있었다.

매스컴을 통해 중국 교포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 교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 1990년 11월초 선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본격화하였다. 몇몇 교회와 협력하여 정동 CCC 회관에서 중국교포를 초대하고 식사대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발전되었다. 매년 150명-2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인원 3분의 1 가량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결심자들을 중심으로 신림동에 마련한 <사랑의 집>에서 일정기간 동안 합숙하며 훈련하는 제자양육 사역을 4년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

랑의 집)을 거처간 중국인은 150여 명이며,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 중 중국 교회 지도자가 된 자도 있다.

1994년부터는 중국교포들의 친척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노동자들이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중소기업에 취업 차 대거 입국하였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 “방한 중국인 초청잔치”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초청해 8차에 걸쳐 집회를 가졌다. 이 사역은 한국의 화교 목사님들과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추석에도 중국어문선교회, 동송교회, 재건교회가 연합하여 동송교회 본당에서 2일 간의 중국인 초청잔치를 했다. 중국 유학생, 노동자 220여 명이 참석하였고 이들을 다수가 예수들 영접하는 등 성황리에 잔치를 마쳤다. 현재 방한 중국인을 위해 주일집회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에만 10여 곳, 안산, 인천, 안양, 성남, 대전, 부산, 광주, 이리 등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천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중국배에 올라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승선사역이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와 외항선교회와의 협력으로 매주 2회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 교환 학생, 유학생, 교환교수 등 중국 지식인들이 1,000여 명에 이르거나 이들을 위한 선교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중국어로 능히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다. 방한 중국인 선교를 위해 중국어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훈련이 급선무이다.

### 성도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국내사역

흔히 중국선교라 하면 선교사가 직접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선교가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시각은 좀 더 전 방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도 복음전파가 자유롭지 못한 중국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국내에서의 중국선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역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선교, 문서선교, 연구사역, 훈련원사역, 방한중국인 선교사역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선교 행정사역, 중보기도 사역, 선교 동원사역 등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국 교회가 문서선교와 연구 사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문서사역자와 연구원을 양성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문서선교와 연구사역은 그 효과가 단 시일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선교훈련원을 개설하여 전문적으로 중국선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런 훈련에 지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아무런 준비 없이 열정만 가지고 무작정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가 많이 있다.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파송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권면해야 한다.

방한 중국인 사역은 그래도 사역의 효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역에 비해 지원과 후원이 잘되고 있는 편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 대학에 있는 교환교수나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중국 지식인 선교에 좀 더 주력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중국선교 사역은 계속 부흥,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역도 ‘중국선교’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내 사역과 국내 사역자에 대해서 성도들의 인식이 전환되어 국내 중국선교 사역과 국내 사역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는 더 힘차게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3)

# 삼자교회의 신학

주피득

‘중 국 삼자교회는 어떠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중국삼자교회 지도자들은 삼자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교회나 교단을 부르는 것보다 중국 교회 혹은 중국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삼자교회가 중국 내의 중국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삼자교회〉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 문제는 한편으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 단순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는 문제이다. 삼자교회의 신학사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전통사상과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과 삼자애국운동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본 뒤, 그 신학 자체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 I. 중국교회 신학형성의 배경

현대 중국의 삼자교회나 독립 가정교회가 중국 전통적 사상가들로부터 그 무엇을 직접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신학사상을 형성했다고 볼 필요는 없으나, 신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사고구조 자체는 수천 년 간 이어 온 그들의 전통사상과 문화적 배경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사회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삼자교회 신학의 경우 직접적인 사상의 배경이 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종교정책이다. 독립 가정교회의 신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강한 영향을 준 사상은 현대중국의 토착기독교회 지도자들의

사상임을 알지만, 옳든 옳지 않든 그 어느 쪽 교회의 사람들 모두 중국 전통사상과 그들의 민족성과 기질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어느 계통 사람들이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국의 정치환경에까지 사회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학 자체가 곧 성령 자체는 아니며, 신학 자체가 곧 우리들의 문화를 통해서 나온 사고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는 더욱 그렇다.

### A. 중국 전통사상

중국은 고산과 고원, 대 사막과 해양에 의해 폐쇄되고 고립된 지역과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한 대륙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자아 중심적인 세계관과 내부지향적인 철학사상이 형성되었으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 및 내세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더욱이, 거대한 농경사회하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포함한 자연의 이치 앞에서 조화와 순응의 이치를 터득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가운데서 중용(中庸)과 조화를 중시하는 사상이 중국 사상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춘추말기 시대인 기원전 6세기경 중국은 노예사회에서 봉건사회로 전이(轉移)과정에서 기존가치와 질서에 대한 일대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때 지역 봉건제후의 정치적 야심은 새로운 질서와 가치추구와 함께 다양한 사상의 출현을 낳았다. 중국 전통사



공자의 핵심사상은 仁(사랑)의 구현으로써 현세에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둔 '현실가치 중심적' 이고 '인간 중심적' 인 윤리문화 사상이었다.

상의 대부분은 주로 춘추전국시대에 출현한 것이다.

이 때 출현한 사상가들은 유가(儒家)를 비롯하여 도가(道家) 묵가(墨家) 법가(法家) 음양가(陰陽家) 명가(名家) 종횡가(縱橫家) 잡가(雜家) 농가(農家) 소설가(小說家) 병가(兵家)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후대에 까지 존속하면서 영향을 끼친 주요 사상으로는 유가(儒家) 도가(道家) 법가(法家) 묵가(墨家)의 네 가지 사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통사상 가운데 유가사상(儒家思想)과 노장사상(老莊思想) 또는 도가사상(道家思想)이라고 불리는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1. 유가사상(儒家思想)

유가사상(儒家思想)은 춘추시대의 노(魯)나라 사람으로서 시대의 혼탁함을 한탄하면서 도덕성의 회복을 설파했던 공자(孔子: BC 551-479)에 의해 시작되어 맹자(孟子)와 순자(荀子)에 의해 발전된 사상이다. 공자의 핵심사상은 仁(사랑)의 구현이었고, 실천방안

으로서는 '중용'의 사유방식을 제창했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철학적 사유의 기반은, 본체론적인 형이상학에 기초한 순수사변이나 이지론(理智論)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현세에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둔 '현실가치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윤리문화 사상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인문주의정신에 입각한 문화전통은 주(周)나라 초기에 유가사상(儒家思想)을 통해 형성되어 춘추말에서 전국 말까지의 제자백가의 백가쟁명을 거쳐 이론의 심화를 거친 후, 한(漢)나라 이후 중국 전통문화의 정통적 위치를 차지하고 청나라 말기까지 계승하여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문화는 회랍의 형이상학적 순수사변을 즐기는 전통과는 달리 경험적이고 현세적이며 공리적(公理的)인 윤리관을 사유의 기본특징으로 하는 인문주

의적 또는 인본주의적 윤리문화를 주축으로 발달해 왔다(조경현: 1997, P.21).

격변의 시기인 춘추말기 시대 周나라의 통치원리로서 공자는 周禮 즉, 주나라 당시 사회질서의 회복을 제기하였고, 그것을 강조하고 깨우치는 것을 天命으로 생각하였다. 주나라의 사회질서가 뿌리부터 서서히 해체되던 때에 공자는 이상적인 사회질서로서의 禮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토대로, 아직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습귀족인 군자와 사회적 변화를 통해 더욱 영향력을 획득한 지식층에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을 설파하고, 동시에 이미 해체 중에 있는 禮 즉, 사회질서를 회복 하는 데 이들이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조경현:1997, P.21).

유가를 대표로 하는 그들의 윤리사상과 통치원리는 그 나름대로의 현세 중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유가사상은 현실, 인생, 도덕, 지식,

교육 등을 중시하며, 만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등의 인간세상의 도덕적 규범을 담고 있으며 '효(孝)와 같이 가족간에 지켜야 할 덕목을 중시한다. 또한 사회정치와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결합시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통치원리도 제공하였다.

유가사상이 2천 년 간 중국사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상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사상이 '기존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수적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치자(治者)를 위한 통치이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 (강준영:1997, PP.38~39)이다.

그러나 유가(儒家)는 이와 같은 장점 이외에 인간 중심적 혹은 인본주의적 사고와 문화의 왜곡에서 오는 치명적 약점을 또한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은 평화롭고 문제가 없는 시대가 아닌, 난세나 혼란기에는 그 장점보다 약점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이러한 사상은 명분만 이용될 뿐 모든 정치와 현실을 권력가나 득세가의 야심을 합리화 또는 정당화시켜 주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유가의 이런 성격은 봉건주의적 군주나 사회의 각 지배계급 가운데서 더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조경현:1997, PP.21-22).

## 2. 도가사상(道家思想)

춘추시대 때 씨족공동체의 해체 및 신분질서의 동요 혹은 변화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동시대의 사람들인 공자와 노자는 각기 그 관점이 달랐다. 천하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선 같았으나, 공자는 사회혼란 혹은 변화를 주례(周禮)의 붕괴로 보았고, 노자는 그것을 인위(人爲)가 초래한 문명의 소산 즉 인위적인 문명의 소산으로 보았다. 또한 혈연적 도시국가에서 관료적 군주국가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부조리와 사회모순 및 현실비판을 장자(莊子)는 그의 저서「莊子」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도가사상 즉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노장사상은 위와 같은 유가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인간사회를 자연 그대로 혹은 본래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방법

으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道)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유가의 사상이 현실 긍정적인 사상이라면 노장사상은 문명 비판적 부정정신(不正精神)이다. 유가의 사상이 '자연의 인간화'를 추구했다. 도가는 '인간의 자연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인문정신에 입각한 가치추구를 지향해온 유가와 이에 대한 상호역할로서 인간을 자연으로 귀환시키고자 한 이러한 도가(道家)의 사유체계는 공자사상과 함께 중국문화의 양대 조류를 형성하였다. 유가사상이 체제유지와 통치를 위한 사상이라면, 도가는 반체제사상이며 탈지배사상이라고 본다.

'道'란 우주만물을 탄생시키는 근원적 우주의 본질로서 항구 불변하는 것이며, 그 작용(역할)은 無爲, 즉 인위적인 것이 없는 자연 그대로를 말한다. 바로 무엇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함에 있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 즉 무위자연의 사상이 그들 사상의 핵심이다. 이 사상은, 사람의 생사여부마저도 자연계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문제에 있어서도 자연과 동화해야 한다는 철저한 자연주의로 발전하였다(조경현:1997, PP.21~22).

도가사상(道家思想)은 한 때 유가(儒家)나 법가사상(法家思想)에 의해 배척 받았으나 그 후 장기적인 혼란이 있었던 위진남북조시대에 이르러 다시 성행하였다. 그 이유는 도가사상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곤란 중에 처한 사람들이 쉽게 의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도가사상은 다른 사상뿐 아니라 신비적인 요소들까지 가미하여 점차 미신적으로 종교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長生不老를 실현하기 위해 도를 닦는 것으로 변질되어, 더이상 학문적 발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체제에 혐오적인 지식인이나 안정을 추구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쉽게 받아들여 유지되어 온 중국인의 대표적인 사상이다(강준영: 1997, PP.40~41).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唐逸(중국을 주제로, 1993년 9,10월호 PP.36~39)은 '중국의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유가사상과 도가사상적 세계관 및 가치관은 대다수 중국인의 생활태도와 정신적 습관적 사고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말하기를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부름보다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며 정의되기 어려운 그 무엇이다.

유가(儒家)나 도가(道家)에서는 자연에 대한 원리들을 믿으며 그들의 자연관이 인간의 의식 체계를 이룬다고 믿는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인간의 의식 방향과 자기 방어들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개개의 사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속적 정신과 자주적 인간관과 자연관이 중국인의 가치형성의 근거가 되어왔다"고 한다.

게다가 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들의 이러한 사상은 어찌면 자유밍이나 왕웨관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인의 철학이 곧 '信이나 知보다도 行을 중시' 하는 일종의 '경험주의적 철학'(王維藩: 1992, P.82)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도가사상은 신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점차 미신적으로 변질되어 더이상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사진은 어느 도교사원의 道者).

### 3.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의 전통적 관념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 형성의 배경을 논할 때 또한 언급해야 할 내용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서구에서 이해하는 것과 같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중국인들은 국가의 종교지배권을 결코 의문시하지 않았다.

#### B. 중국의 현대사상

중국 삼자교회의 신학사상 형성의 배경이 되는 사상은 아래와 같이 4가지를 들 수 있다.

##### 1. 신문화운동과 반기독교운동 사상

1919~1923년에 일어났던 신문화운동의 산물로 나타난 반종교적 사고와 반기독교운동은 현 중국공산당 정권하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토착교회운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삼자교회도 중국교회 역사를 논할 때나 자기들의 현재 입장을 논증할 때나 과거 토착교회의 발흥과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논할 때 역사적 배경들을 자주 언급하였다.

##### 2.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종교관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역사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가 인류의 생산방식의 발전에 상응하여 생산의 연속 소멸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공산주의 이상사회가 실현되어 경제생활이 절대보장되고 착취투쟁이 없어지면 종교는 저절로 그 가치를 잃고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黃恩炬:1994, P12).

그들은 종교를 '인간의 주관적 의식이 황당하고 허망하여 왜곡된 모습으로 현실세계 속에 반영된

것'이며,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외부적인 그 어떤 힘에 대한 환상이 사람의 머리 속에 나타난 것' (마르크스엥겔스선집Ⅲ, 354)으로 그것은 일종의 '자이분리현상'으로 보았다. 또한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생활에 직면할 용기를 잃게 하여 일종의 거짓된 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사상'이며, '착취계급이 피착취계급을 잠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독'이며 '착취계급이 인민을 핍박하는 방법'이고, '인민의 아편'이라고 묘사한다(마르크스엥겔스선집Ⅱ, 2).

### 3. 모택동의 모순이론과 종교관

#### (1) 모순이론

모택동의 모순이론은 사회 내에 존재한다고 보는 '두 가지 모순'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 이념적, 적대적 모순인 1차적 모순과 인민들간의 종교적 차이와 같은 비적대적인 2차적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모택동의 모순 이론을 통일전선정책에 적용될 때, 공산당의 과제는 1차적인 모순들과 투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모순들과 연합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 2차적인 모순으로서의 종교가 공산주의와 연합하고 있을 동안 종교인들은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그들의 세계관과 '종교적 미신'을 포기하고 점차적으로 '객관적인'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도록 교육하여 결국은 공산당 편에 서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과정에서 당(黨)의 관대한 교화적 설득을 거부하고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위협의 보다 공격적인 방법으로 대처한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완강히 저항하는 자들을 결국 격리시켜 그들의 영향력이 감소되도록 한다는 것이다(趙天恩:1991, PP.74~75).

#### (2) 종교관

그의 종교관은 마르크스레닌의 종교관에서 나온 것으로 그 외에도 더욱 실효적인 측면에서 종교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켰다. 그는 말하기를 "종교는 국가사회에 공헌할 때는 존재 가치가 있지만 만일 국가를 침

해한다면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평등조약에 의해 중국에 침투한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도구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대항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가 거부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와 제국주의의 연계성에 있었다.

그는 통일전선 이론으로 기독교에 대항하였는데, 이 이론은 공산당은 더 강한 적에 대항하기 위해 일시 동안 다른 비공산세력과 연합전선을 펼쳐 공동의 행동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서로를 용인할 수 있다거나 서로를 향한 투쟁의 필요가 소멸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1차적인 적이 소멸된 후에는 곧바로 1차적인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黃恩炬:1994, PP.11~18).

### 4. 중국공산당 내의 종교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입장

종교정책에 관한 두 가지 흐름은 강경노선과 온건노선이다. 문화대혁명 직전부터 혁명이 끝나는 기간과 4인방의 집권기간인 약 1963~1976년 사이는 종교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였던 때이다. 등소평 집권 이후 강택민 시대에 해당하는 지금은 온건노선을 나타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趙天恩:1991, PP.73~76).

종교에 대한 강경파적인 입장은 종교를 철저히 말살시킬 것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던 문화혁명기의 공산당정부는 기존의 어용교회인 삼자교회마저도 완전히 문을 닫게 하였다. 그러나, 문화혁명이 끝난 후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온건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소평과 개혁개방파가 정권을 잡게 된 시대부터는 다시 '삼자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문이 새롭게 열렸다. 중국은 공인 삼자교회를 이러한 새로운 정치환경에 걸맞고 자신들의 통일전선정책에 부합되는 교회만으로 허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 가운데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 C.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의 흐름 및 특성

#### 1. 직접적 배경이 되는 5가지 사상과 공산당의 중국 진입사건

중국공산당 종교정책 형성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주요 요소로 5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1)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던 전통(위에서 언급), (2) 1919~1923년에 일어났던 신문화운동의 산물로 나타난 반종교적 사고와 반기독교운동, (3)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종교관, (4) 모택동의 모순이론과 통일전선정책, (5) 중국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다른 두 가지 입장인 강경노선과 온건노선중에서 공산당 정권을 잡은 자들이 둘 중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5가지 중 마지막 세 가지는 모두 공산당이 중국땅에 들어간 사실과 관련된 사상들이며 삼자교회 설립과 직접 관련된 사상이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서, 중국공산당과 그 종교정책은 자타가 공인하는 삼자교회 신학사상의 핵심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중국대륙에 공산당이 들어선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기독교선교사들이 중국에 입국하여 전한 복음과 신학사상, 토착교회 지도자들이 견지해 오던 사상이 중국 교회 전체의 신학사상 형성에 급격하고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준 사건이었다.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인 공산당과 정부는 기독교를 부르조아적 서구제국주의의 앞잡이 혹은 인민의 아편으로 묘사하여 정죄하였다. 1950년경부터 중국공산당은 공산당혁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기독교의 일부 급진적 인물들(자유주의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소위 기독교혁신운동을 일으켜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현실에 따라 전통적인 신앙과 기존 신학의 재사고를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며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학사상을 구축할 것을 추구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1954년 중국의 기독교와 제국주의

관계를 끊고 '중국의 교회를 중국사회주의의 현실에 맞게 개조시킨다'는 명목으로 당과 정부의 지도, 감독하에 정식으로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소위 '삼자교회')인 공산당의 어용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하여 그 조직 내에 중국의 모든 교회와 기관들, 지도자들로 하여금 귀속을 강요하고 본격적으로 중국교회를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 2. 중국공산당 종교정책의 흐름

문화혁명 이후의 삼자교회 신학사상의 정치적 배경과 관련된 종교정책의 흐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중공 11기 3중전회)의 결정을 들 수 있다. 동 회의 이래로 중국정부와 공산당은 개혁방향을 추구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와 같은 종교탄압은 지양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종교이론과 종교정책을 새로이 강구해야 하는 시대를 맞은 그들은 종교사상에 대하여 온건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1982년에 발표한 소위 중국 정부의《19호 문건》은「세계관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는 어떠한 유신론과도 대립이 된다. 그러나 정치행동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애국적 종교신도는 참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결성해야 한다...」라고(重要文獻選讀:1982, P.432) 언급하며「종교는 아편과 같이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성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종교의 경우는 애국하는 것이 필수이며 정부는 종교에 대하여 온건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熊述碧:1986, P.109)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른바 새로운 종교에 대한 온건한 입장의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공산당의 종교사업 평가기준을 과거의 '신도수 감축여부'에 맞추어오던 것을,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종교신도들을 연합하여 사회주의 4개 현대화 건설에 적극 투신케 하는 것으로 초점을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사진은 정책적인 종교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흥되고 있는 중국 교회의 모습.

삼아야 한다'는 중대한 인식변화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인과 그들의 역량, 그들 스스로 발표한 세계인구의 60%(樂峰:1985, P.102)인 40여억 명(吳少榮: 1989, P.17)의 세계 각종 종교인구와 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인구의 영향력을 무시하고서는, 현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중국의 절대 명제인 4개 현대화 계획의 실현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이러한 견해들이 나온 것이다.

### 3. 중국공산당 종교정책의 특성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은 중국의 헌법과 중공중앙의 19호 문건(1982), 6호 문건(1991)과 국무원령 144호와 145호(1994)에 잘 나타나 있다. 그 특성은 전제성, 제한성, 정치성,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주의 사상과 시대성, 인치성, 지역성의 7가지로 묘사 할 수 있으며(黃恩炬:1994, PP.12-14)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1) **전제성:** 모든 종교활동을 정부의 관할하에 둔다.
- (2) **제한성:** 중국공산당정부의 모든 법(예를 들면 헌법, 19호 문건, 6호 문건, 국무원령 144, 145호 등)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명시된 종교 관련 규정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마음속에 신앙의 자유를 갖는 것만 허용할 뿐 결코 실제적인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 (3) **정치성:** 19호 문건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에서 '反帝 愛國 愛教'의 구호를 외치며 신도들의 사상

을 개조하여 정부에 복종하여 공산당정권을 지지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4)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주의적 사상:** 이것은 19호 문건이나 6호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종교소멸론과 무신론, 유물변증법이론과 통일전선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5) **시대성:**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형태와 권력자의 변천에 따라 종교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각기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6) **인치성:** 법이 아무리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표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관리들이 종교에 대해 무질서한 반대와 탄압 제재 핍박을 하는 등 법 규정과는 무관하게 그들 마음대로 행해지고 있는데도 별 뚜렷한 법적인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단지 그들 나름대로 종교인을 다루고 있다.

(7) **지역성:** 개혁개방에 의한 무역 성장에 따라 중국의 연안지역은 비교적 느슨한 종교정책을 취하는 데 반해, 내륙 외진 곳의 종교정책은 상당히 긴축된 상황으로 신도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주피득/중국선교사

# 중국 토속 기독교의 초상 -저장(浙江)성 샤오산(蕭山)교회-

이엔 그로브스

저장성 항저우(杭州)시 외곽에 있는 샤오산 향의 교회는 중국 내에서 '양떼(Little Flock)' 혹은 '집회처'로 알려져 있는 주요 토착교파 중의 하나이다. 집회처는 1928년 니튀성(倪柝聲)에 의해 외부 선교 지원도 없이 중국에서 자생한 교회이다. 그는 '워치만 니(Watchman Nee)'라는 영문이름으로 더 유명한데, 그가 자란 성공회의 의식과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로 집회처를 성립하였다. 집회처 교회와 교리는 상하이(上海)의 비단상인에 의해 1932년 저장성 샤오산에 전해졌다.

당시 이 지역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중국내지선교회뿐 아니라 오순절, 성공회, 침례교와 안식일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외부 교파들을 외계인으로 인식했고, 따라서 자신들의 삶의 현실과는 관계가 적다고 보았다. 한편, 집회처의 메시지는 큰 호소력을 가졌다.

샤오산 기독교협회 조우자이칭 목사에 따르면, 현재 현 내에는 10만 명의 신도와 2백여 곳의 처소가 있으며, 처소의 95%가 집회처 소속이다. 조우목사는 4~5천 명의 새 신도들이 매년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

집회처 교회는 안수 받은 성직자가 없고, 여성과 남성이 떨어져 앉아 여성은 머리를 가린 채 스스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르려 한다. 이 교회들은 십자가도 그 어떤 형태



의 장식물도 없이 오직 성경구절만을 벽에 붙여놓았을 뿐이다.

집회처 예배는 어떤 한 개인이 '집례' 하지 않고 세례 받은 교인들이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예배중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교회는 장로를 임명하는데 이는 안수 받지 않은 이로 단순히 행정 사무를 돌보게 되며 기도와 합의를 통해서 선출된다. 누구든지 예배시간에 설교하고 싶으면 이를 미리 장로에게 알려주어 순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신도들은 자신들의 찬송가를 사용하는데 이는 해방되기 이전 쓰여진 것들로 애덕 인쇄소와 절강 기독교협회에서 인쇄한 것이다. 신도들은 찬송 안에 표현된 의미들을 초시간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처 교회는 어떤 형태의 정식 신학훈련도 받지 않는 대신 신앙의 이해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다는 것을 믿는다. 성경공부 모임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에 따라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으며 만일 논쟁이 일어나면 회중은 대개 경험이 풍부한 윗사람의 해석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외부인의 눈에는 이 교회가 교파로 보여질지라도 신도들은 자신들을 교파로 여기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신도들은 어떤 다른 집단과도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자신 개개인을 완전한 하나의 단위로 생각한다. 과거 교회들은 위치한 자리에 따라, 마을이나 고장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1994년 종교활동장소 등록법이 도입되자 교회들은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당국에 신원을 밝히기 위해 공통의 이름을 선택해야 했다. 그리하여 '집회처' 라는 이름이 선택되었고 이는 오직 하나님에게 응답하기 위해 각각의 교회가 개별적 장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신들의 독자적인 신도들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등록 문제는 대부분의 신도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하늘에 속하므로 땅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함에 따라, 집회처 신도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도들이 비록 하늘에 속할지라도 특정 국가의 시민이나 손님으로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 속한 나라에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해결되었다.

종교장소로 등록할 때 신도들은 이는 단지 장소 즉, 건물에 대한 등기일 뿐 신도들의 거룩한 몸으로서의 교회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조우 목사는 현재까지 200여 개가 넘는 처소중 173개가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알려주었다.

비슷하게, 이 땅의 손님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됨에 따라 신도들은 다양한 사회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고 가족계획 같은 국가정책도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신도들은 어느 것이 땅에 속하고 어느 것이 하늘에 속하는 지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을 "세상 것이 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일하게" 한다.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회처 신도들은 그들이 깊은 신앙과 영적 회개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만약 그들을 주 안의 형제 자매로 여긴다고 하였다. 집회처 신도들은 교회의 다른 전통에 따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도들은 다른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찬이 가진 강한 영적 생명력을 집례 하는 목사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온 목사가 집회처를 방문하여 설교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회가 그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교회 신도들을 만족시켜 목사의 신앙과 영성 생활이 충분히 강하다는 것이 판단될 때 만이다. 집회처 신도들은 천주교를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천주교 신자들을 같은 형제 신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중국교회〉 제16호.

이엔 그로브스/중국 교회사역자



# 산둥(山東)성의 해상 통로인 웨이하이(威海)시의 한국인

왕도생



## 역사와 지역 변천 과정

웨이하이 시는 춘추전국시대에는 제(齊)나라에 소속하였다. 서한시대(B.C 206~25년)에는 문등(文登), 영성(英成), 유산(乳山) 등 3개 현(縣)에 나뉘어져 있었다. 당나라(618~907) 때는 문등현에 소속된 이후 명나라때까지 지속되었다. 명나라(1368~1644) 때에 일본 해적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

여 1398년 웨이하이고(군사요충지)를 설립하였다. 청나라 때 1898년 영국이 식민지로 점령하였으며, 1911년 신해혁명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었다. 그 이후 1987년 9월 국가급 위생도시로 지정받았다.

## 웨이하이 시의 지리적 위치

인천을 마주 대하고 있는 산둥반도 동쪽해안에 위치한 웨이하이 시 지구는 산둥성의 해양, 해산물의 최대 어장이며 중국에서 가장 큰 양식장이 룡청(榮成)시에 있다.

동경 121°11'~122°42', 북위 36°41'~37°35' 사이에 위치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국 인천의 기후와 비슷하다. 북쪽으로는 요동반도(大連)와 베이징(北京), 텐진(天津)과 함께 중국 북부지역의 해상 통로이다. 해산물은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웨이하이 지구에서는 땅콩, 밀, 옥수수, 조, 고

웨이하이 시는 1990년 중국 최초로 한국과 직항 해운항로를 개통하였다.

인천 국제여객 부두를 출발하여 17시간 정도이면 중국 땅, 웨이하이에 도착한다. 보통 인천에서 오후 4시에 출국 수속을 시작하여 오후 6시 경에 출발하는데, 하룻밤 잠자고 일어나면 중국시각 아침 8시면 웨이하이 항구에 도착한다. 입국을 위한 검사와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부두 여객 대기실을 나오면 보통 오전 10시가 된다.

1998년 6월부터는 웨이하이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옌타이(煙臺)와 서울 간 아시아나 항공운행이 시작되었다.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1시간 20분 정도 옌타이 공항에 도착하며, 공항에서 웨이하이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타면 된다. 요금은 중국돈으로 50원이다. 칭다오(靑島) 비행장으로 도도착할 수 있으나, 칭다오에서 웨이하이까지는 5시간 정도 버스를 타야 한다.

구마, 감자 등 농업 생산물과 유실수가 많다. 개혁개방 정책 이후 농산물을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농무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 문둥시는 일찌기 공업이 발달하여 자동차 공장, 유유제품 가공공장, 기계설비 제조공장 등 중국 전역에서도 알아주는 생산성 높은 도시이다.

## 유적지

### 유공도(劉公島)

유공도는 웨이하이 시 제1의 관광명소로 웨이하이 만(灣)에 자리잡고 있는 섬으로 동서 4km, 남북 1.5km 전체 면적 3.15km<sup>2</sup>이다. 1894년 조선의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사파병을 요청하여 한반도 내륙에서는 일본군과 청나라의 육군의 싸움이 치열할 때 웨이하이 만(灣)에 있는 유공도(劉公島)에 북양(北洋)함대 사령부가 있었는데, 해상전쟁에서도 참패해서 정여창(丁汝昌) 제독은 1895년 2월 11일 밤, 사령부 건물에서 자결하였다. 지금은 보수공사를 하여 역사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위산각(威山角)

웨이하이 시 내에서 영성쪽으로 택시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오면 산둥 반도의 최동쪽에 성산각이 있다. 이 곳은 진시황이 해중용왕(海中龍王)을 만나기 위해 돌다리를 놓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그곳에서 잠자는 사람도 있다.

###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웨이하이 시 내에서 룡청으로 2시간 정도 가면 석도만(石島灣)의 적산(赤山)이라는 곳에 신라시대 장보고가 서기 820년에 건립했다는 법화원(法華院)이라는 절터가 있다.

이 절은 신라인들이 상륙하여 사용했다. 이 절은 당나라 무종(武宗)의 불교(佛敎) 탄압에 의해 파괴되었다.

## 웨이하이 시

개혁개방이후 눈에 띄는 기업에  
한글이 많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한국에서  
들어온 옷을 파는 가게도 매우 많다.  
중국 학교들의 활동도  
크게 눈에 띈다.

## 한국인 단체 현황

### 한국인 투자협의회

웨이하이 시 지구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모임으로서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중국 안에서 기업활동과 기업정보를 나누며 웨이하이 시 정부에 대한 건의와 친목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웨이하이 시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많다.

### 웨이하이 한국인 학교

1997년 9월부터 시작한 한국인 자녀를 위한 주말학교로서 한글 뿐만 아니라, 역사, 윤리, 도덕 등을 가르쳐 한국인의 긍지를 바르게 심어 주며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시 정부로부터 한국인학교 설립허가를 받아 한국인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친교장소가 되게 하려고 한다.

### 한국인 예배 모임

웨이하이 삼자교회 담임목사의 행정 지도 아래 한국인만을 위한 예배 모임이 있다. 이전에는 투자기업회사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천주교 건물이 비어 있어(웨이하이 시에는 공식적인 천주교 예배가 없음) 수리하여 사용하다가 천주교 제남교구의 신부의 반발로 삼자교회 담임목사 책임 아래 정기예배모임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국인(조선족 포함)은 한국인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중국에서 기업활동하는 사람의 통역이나 직원들이 한국인과 함께 따라올 때가 있으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사진은 웨이하이 시의 가장 큰 광장

조선족 예배때 가도록 권유하고 있다. 한국인만 모이는 예배에는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모이고 있다.

### 웨이하이 시 한국인의 생활형태

한국 인천과 직항로가 열리면서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이전에는 인천에서 요동반도의 따렌으로 배가 운항하지 않아 동북삼성으로 가져갈 많은 물건이 웨이하이시에 먼저 도착하여 상인들의 왕래가 많았으나, 1997년부터 인천에서 따렌으로 직접 운항함으로 인해 운송되는 물자도 적어졌고, 왕래하는 사람도 적어졌다. 따라서 유흥업소는 좀 한산해진 데다, 한국의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한국인들의 돈 씹씹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교만한 태도도 수그러들었다.

웨이하이 시 거리마다 눈에 띄는 간판에 한글이 많다. 또한 거리마다 한국에서 들여온 옷을 파는 가게도 매우 많다. 중국 화교들의 활동도 크게 눈에 띈다. 인천과 웨이하이 시를 일 주일

동안에 세 번 왕복 운항하는 위동페리에는 대부분 화교들이 장사하기 위해 운반하는 짐이 많다.

산둥성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상품이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항에서 선적이 되는데, 웨이하이 항에서는 위동항운이 독점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조선족들도 많다. 한국인 기업체에서 통역, 직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와 있는 조선족들도 많으며, 동북삼성의 경제활동이 좋지 않아서 웨이하이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도 많다.

웨이하이 시에 사는 한국인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다. 한국에서 기업운영이 어려워져 중국에 왔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중국도 경제구조 조정으로 실업자가 많아져서 외상값도 걸히지 않는다. 그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는 것도 힘겨워 하고 있다.

중국에 사는 한국인 가운데 가정의 화목이 깨어져서 자녀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매우 아프다. 외국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지만 민망한 일이 종종 눈에 띈다. 어떤 한국인 중에는 중국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불통, 환경부적응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했고, 또 어떤 한국인은 동업하던 조선족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기도 했다. 이 경우는 한국인에게도 책임이 많다. 대부분 여자 문제가 복잡했거나 성격이 성급하거나 교만함 등으로 사업경영상 큰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와서 사는 한국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느껴진다.

## 삼군합작 전략으로서의 방송선교의 역할

보아스

### 들어가는 말

"단 15분 안에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만나 복음을 전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TWR (Trans World Radio, 이하 TWR) 국제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Edmund Spieker 목사는 이 도전 앞에 헌신하여 지금까지 30년 이상 방송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Edmund 목사는 독일 태생으로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났다.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사하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라 12살에 목사로의 부름을 확신하고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는 거리에서건 차 안에서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였다. 그 날도 역시 역외에서 열심인 전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순간 절망감이 그를 엄습하였다. 매일 전하고 또 전해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부담이 그를 고민에 빠뜨렸다. Paul E. Freed (TWR장썰자)는 그에게 서두에 언급한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은 Edmund 목사의 마음에 충격이었다. 1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 중국! 모든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인 혹은 단체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전세계의 선교역사 가운데 방송선교의 역사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그 역할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중국선교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다.

### 본말

#### 방송선교의 시작과 역사 -TWR을 중심으로

195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Paul E. Freed 는 방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꿈을 가지고 모로코의 탄지아(TANGIER)에서 2,500 와트 송신기로부터 출발하였다. 모로코 정부는 1959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라디오 방송 시설을 국유화 한다는 법령을 세웠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1960년 TWR은 몬테 카르로 이사, 제2차 세계대전때 나찌가 세뇌 목적으로 세웠던 방송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송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

오늘날 TWR-몬테 카르로는 두 개의 200만 와트가 넘는 강력 송신기와 50만 와트 송신기 하나, 10만 와트의 송신기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방송국을 세웠던 독일 지도자들의 무덤이 방송국에서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 그들이 죽었다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등 10억 이상의 청취자들을 향해 30개의 언어로 매주 115시간 이상 방송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1977년 9월 4일에는 태평양 끝에 세워진 TWR 송신소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

시아를 향해 방송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4개의 강력한 10만 와트 단파 송신소에서 중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부, 러시아, 서부 아프리카를 향해 방송을 보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콤팩트에서 보내는 방송권 내에 살고 있는데, 지난 17년 동안 무려 128개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왔다. 거의 225시간의 프로그램이 매주 20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되고 있다. 1989년 초에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구 소련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목표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송출소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다. 1992년 8월 20일

TWR은 알바니아에 있는 Radio Tirana와 동유럽으로 AM방송을 시작하는 계약을 맺었다. 알바니아의 수도 이름을 따서 이름진 Radio Tirana는 40년 이상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선전 수단으로 방송을 했던 곳이다. 2개의 강력한 500KW AM 송출기를 가지고 동 유럽과 구 소련의 청중들에게 방송을 보냈다. 1992년 10월 1일 알바니아에서 4개의 언어로 복음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후 처음 몇 개월 동안 영국에서부터 온 편지가 300%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조사에 의하면 처음 6개월 동안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청중 숫자가 거의 60%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TWR은 전세계 요지에 13개의 송출소와 2개의 인공위성망을 통해 130개 이상의 언어로 전세계 인구의 80%에게 복음 방송을 전하고 있다.

### 방송선교의 장점과 유용성

처음으로 흑백TV가 등장했을 때 언론에서는 이제 TV로 인해 라디오 방송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잠시 이 예견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오히려 라디오 방송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애칭하고 사랑하는 매체로 남아 있다. 특히 우리의 선교 대상이 되는 지역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인기와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교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대량으로 보급되었다.

전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직도 개발 도상국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여전히 문맹률이 높다.

기독교 문서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어려우나, 기독교 방송은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았다. 비록 문맹이기는 하지만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디오는 그들이 돈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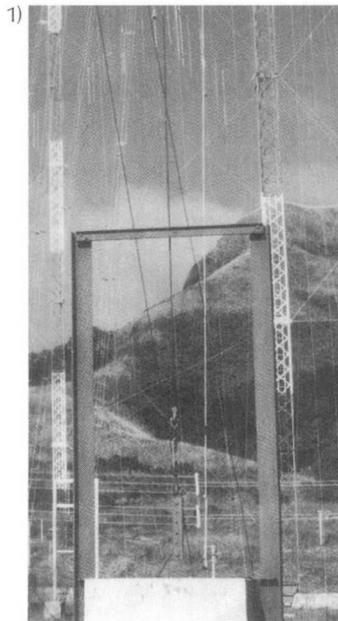
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물건 중의 하나이다.

####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

크고 강력한 출력의 방송국을 세우는 데는 많은 경비가 든다. 그러나 일단 최초의 경비 지출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복음방송이 찾아가는 사람의 숫자와, 선교사 한 명이 접촉하는 숫자를 비교해 볼 때 방송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도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억이 넘는 전세계 인구는 선교사들만에 의해 결코 완전히 전도될 수 없을 것이다.

#### 지역의 제한이 없다.

길이 닳여지지 않은 오지나 정처, 종교적인 문제로 선교사의 출입을 금하는 지역에 관계



1) 광의 송출 안테나  
2) 광 송출소  
3) 송출소 내부

없이 전파는 찾아간다.

**방송 프로그램은 낙인(烙印)을 찍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해서 기독교는 많은 나라에서 인기있다기보다는 특별한 낙인이 찍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까지도 지닌다. 태국에서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도가 되어야 한다. 인도에서는 충성된 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힌두교도가 되어야 한다. 모든 회교 국가에서는 회교도가 되어야만 한다. 다른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배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단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친구나 이웃이 즉각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복음에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압력이나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얼씬거리지도 않는다. 너무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라디오에서 기독교 프로그램을 듣는 것은 거리끼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의심받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은밀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기독교 방송을 극히 가치 있는 일로 만든다.

**개인적인 접촉이 가능하다.**

TV는 주로 거실에서 식구들과

같이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라디오는 여럿이 듣기보다는 책상이나 침실, 부엌 등에서 혼자 듣는 경향이 강하다. 차 안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혼자 듣는다. 특히 개인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 라디오는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라디오의 인기**

Pius Wakatana Independence에 기록된 다음의 글은 라디오의 인기를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다. '외떨어지고 정체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그들의 농작물을 맹수들로부터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높은 나무에 망대를 세우고 밤낮으로 누군가가 앉아서 그들의 작물을 지키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함께 아프리카로 간다면 우리는 아마 그런 감시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이나 징과 함께 우리는 또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그에게 내려오도록 부탁하면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평생에 단 하루도 학교에 가지 않았고, 인접지역 외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발에 신을 신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내려올 것이다. 그는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최근의 국제 뉴스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 미국의 한 트레일러 운전사가 밤 12시가 훨씬 넘은 시각에 자신의 차를 몰고 있었다. 그 날따라 유난히 졸음이 운전사를 못살게 굴었다. 잠시 쉬어가고 싶었으나 정한 시간에 목적지까지 가야 하기에 차를 세울 수 없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던 운전사는 라디오를 틀었다. 모든 방송국이 방송을 끝낸 뒤라 다이얼을 이리저리로 돌리다가 아직 방송 중인 한 방송을 찾았다. 듣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물려오는 졸음을 이겨보려고 크게 틀어놓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생애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다. 운전사는 관심이 없었기에 이내 라디오를 껐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졸음 때문에 다시 라디오를 켤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송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운전 중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듣고 마음에 밀게 되었다. 번쩍 졸음이 물려갔다. 운전사는 방송사에 편지를 보냈다. "나는 60이 넘는 트레일러 운전사입니다. 그날 밤 당신들이 신실하게 방송을 보내지 않았다면, 새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준 당신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중국선교에서의 방송선교의 역할과 비전 - '라디오 교회'

### 방송선교의 단점 협력이 필요한 이유 - '삼군합작전략'

#### 양육과 육성이 어렵다.

모든 기독교 방송국은 청취자들로부터 반응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 중에는 놀라운 결과가 있기도 하다. 날아오는 수천 통의 편지에 모두 응답하는 일은 많은 일손을 요구한다. '방송성경대학' 과정을 개설하는 방송국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 방송선교에는 커다란 믿음이 필요하다.

방송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이 사역하는 청취자들을 보지 못한다. 날이면 날마다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외지에서 들어주기를 소망한다. 편지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전체 청취자의 극소수 비율이며, 특히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도 감지하지 못한 채로, 더욱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가운데 매주 이런 종류의 일을 계속해 간다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단지 통계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일이다.

1) 19세기 초에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추수할 일꾼으로 들어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중국은 마르크스 무신론주의를 선포하였다. 1950년 초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이 때 많은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쫓겨났다. 사회적으로 서로 고소하고 비난하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다. 중국 복음의 문은 닫힌 듯이 보였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많은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고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라디오 복음방송을 사용하셨다. TWR을 비롯한 많은 복음방송이 중국을 향해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관계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 일을 계속하여 왔다. 80년대에 중국은 경제적인 문을 열기 시작했으나, 종교 정책은 시종 변함이 없다. 중국 내에서의 복음전파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나, 중국 교회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49년 70만이었던 중국의 성도 수는 1992년 600만까지 증가하였고 한다. 그러나,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화교 선교사들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약 7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

2) 중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

려움 중의 하나는 교회지도자(전도인)의 숫자가 성도의 증가 숫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의 부족으로 적당한 양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전도인들의 훈련이 결핍된 상태이다. 새 신자가 겨우 몇 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교회를 담임하는 사례도 있다.

3) '라디오 교회'란 라디오를 중심으로 5-6명이 함께 모여 방송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훈련받는 모임을 일컫는 말이다. 기존의 교회와 분리하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교회 이전의 교회로 성도가 성장하여 스스로 전도하고 지역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자라도록 돕는 역할이 '라디오 교회'의 목적이다. 1992년 시작된 이 사역은 2000년 까지 100만 개의 '라디오 교회' 건립을 목표로, 1997년에만 2만 개의 '라디오 교회'가 세워졌다. 1999년 북방선교방송은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500개 이상의 '라디오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약 3,000명이 방송을 통해 영적 지도자로 훈련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삼군합작전략

선교사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크게 전도사역, 교육사역, 의료사역, 신학교육사역, 방송사역, 성서사역, 문서사역, 지역

사회 개발사역 등으로 그 분야를 구분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법 외에 선교사의 활동 영역에 의해 육, 해, 공군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1) 육군 - 선교지 현장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개인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고 관계를 맺어 복음을 전한다. 계속해서 양질의 라디오를 보급하며, 편지로 양육되는 청취자를 방문하여 라디오와 편지로 부족한 부분을 양육한다. 중국 내 상황을 파악하여 청취자에게 알맞는 프로그램이 제작되도록 한다. 이들은 마치 육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해군 - 단기선교사로 방학을 이용한 선교여행, 또는 정기적으로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선교자원을 지원한다. 해

외 교회에서 기도와 재정으로 중국 선교를 후원한다. 이들은 마치 해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공군 - 전도자의 발걸음이 닿기 힘든 깊은 산골이나 농촌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 고정적인 지도자가 없는 중국 내 교회에 성경공부와 신학교육을 통해 신앙을 바로잡고 지도자를 육성한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지역을 막론하고 설새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이들은 마치 공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 국제적 복음 방송 기구들의 협력

The World By 2000 1985년 초 FEBC, FEBA, HCJB, ELWA,

TWR의 대표들은 '2000년까지 세계를 (THE WORLD BY 2000)'의 표어를 내걸고, 모든 족속이 이해할 수 있는 각 족속의 언어로 라디오를 통해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협력 계획에 합의했다. 그들은 2000년까지 이 일을 완성할 계획을 수립했다. '2000년까지 세계를' 프로젝트의 시작 이후로, 이들 복음 기구는 WB2000 언어로 상정된 334개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WB 2000의 언어로 선정된 언어는 인구 백만 이상의 언어그룹을 가졌으나 현지언어로 복음 라디오 방송이 되지 않은 언어 그룹이나, 그들의 언어로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매일 30분 미만의 방송을 하는 곳이다.

## 나오는말

지금까지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방송선교의 특징과 장점을 언급하였다. 마치 방송선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방송선교의 한계 또한 인정한다.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육, 해, 공군의 삼군합작전략이 필요하다. 복음방송은 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방송을 듣고 거듭난 새 신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민감하게 채워주지 못한다. 여기에 육군과 같은 현지 선교사는 아주 적절하게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현지 선교사에 의해 거듭난 새 신자 역시 선교사가 늘 가까이에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에게 라디오를 선물하고 방송 청취를 권하게 될 때 새 신자는 라디오를 통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선교사가 담당할 수 없는 지역은 그리 넓지 못하다. 현지 사정에 어두운 단기 사역자들이 현지 선교사와 협력하여 기독교 문서를 라디오를 보급하는 일에 협력한다면 더없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는 최우선이다. 이 모든 역할들은 거대한 나라, 중국 선교에 있어서 각 지역 영역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속한 북방선교방송과 중국어문선교회, 중국복음선교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간담회를 가졌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뜻이 모아졌다. 많은 한국 내의 선교단체와 선교사 그리고 중국선교에 자신의 삶을 드린 선교 헌신자들이 이런 전략자원에서 더 긴밀한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북방선교방송은 1992년 9월 시작된 TWR의 한국어 방송을 주관하는 복음방송단체이다. 현재 강서구 등촌동에 사무실과 녹음실을 두고 6명의 간사가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 오전 5시(중국시간)부터 1시간 동안 14개의 프로그램으로 중국 동북의 조선족과 북한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 북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 따렌(大連)

따렌은 북방의 홍콩, 황해의 명주라고 불리운다.

신석기 이후로 6000년의 역사를 지닌 따렌, 지금의 도시골격은 1898년 러시아의 조차때 프랑스 파리를 모방해 지어진 것이다.

일제시기에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발달하였으며, 1945년 당시 따렌의 면적은 45km<sup>2</sup>에 70만 명의 인구를 가졌었다.

허다한 작은 만(灣)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만을 이루었다는 뜻에서 따렌완(大連灣)이라 불리게 되었다.

발해만 끝에 위치한 동북 3성(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은 최대의 해상 관문이며, 중국 내 모든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또 '북방의 홍콩'이라는 슬로건 아래 북방 최대의 무역항으로, 일본, 한국 등의 물류가 이곳을 기점으로 하며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운송되는 육로 수송의 출발지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해안 도시이다.

### 행정구역

6개 시구(市區): 중산(中山)구, 시강(西崗)구, 사허(沙河)구, 간징즈(甘井子)구, 뤼쑤(旅順)구, 진저우(金州)구

4개의 현 및 현급 시: 와팡띠엔(瓦房店市)시, 좡허(裝河縣)현, 신진(新金縣)현, 창하이(長海縣)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 위치

북위 38도 43분 - 40도 10분, 동경 120도 58분-123도 31분 동남으로는 황해, 북서로는 발해만과 이어져 있어 <발해황해경제권>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총면적 12,574km<sup>2</sup>,市區면적은 2,412km<sup>2</sup>이고, 농경면적은 516.3만 무(약 3,407.6만m<sup>2</sup>)이다.

### 인구

90년 말 통계로 517.8만 명인데, 도시집중화 현상이 심하다.

### 기후

온대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이分明하다. 연평균 온도는 8~10℃이며 "더운 여름이 없고, 추운 겨울이 없다(夏無高暑, 冬無嚴寒)." 라는 한 마디로 표현한다.

8월이 가장 더운데 평균 온도는 20℃이며 최고 온도는 34.4℃ 정도이다. 가장 춥다는 1월의 평균 온도는 영하 5.3℃, 최저 온도는 영하 21.1℃에 이르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다. 연평균 강수량은 600~1000mm 정도이다.

### 역사

신석기시대부터 농경이 발달하였는데, 주나라 이후엔 염전이 개발되면서 현대엔 염전을 관리하는 관리가 파견될 정도로 발달하였다.

당대(唐代)초에 '삼산포(三山浦)'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중국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당대 중기엔 '청니포(靑泥浦)'로 불려졌다. 명청 이후엔 주요 무역지로서 번성하였고, 청나라 광제(靑光緒) 5년(1879)부터 따렌만이라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따렌만은 140여 년의 중국 근대사에서 허다한 중요 역사 사건들이 있기 전에는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19세기 1,2차 아편전쟁을 통하여 서양제국이 대륙을 침략하는 전초기지로 이용되어 중요 군사 도시가 되었으며, 러시아의 조계로 있을 당시 큰 항만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했고, 러일 전쟁 후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의 최초, 최대의 군사 주둔지가 되었다. 일제 침략하에서 교육을 받았던 한국인들에게는 뤼순과 따렌의 앞 글자를 합한 명칭인 '뤼따'로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사의 이품 속에서 따렌은 해상 수송을 위한 동북 삼성의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뤼순에는 안중근 의사가 수감, 사형이 집행되었던 감옥소가 당시 모습 그대로 역사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다.

## 사회 및 경제

따렌은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를 조금 벗어난 지역까지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통수단이 발달된 곳이다.

랴오닝성의 수도 선양(沈陽)에 이어 두 번째 큰 도시로서 집중적인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하고 있어 따렌은 그야말로 전 중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행을 창조해 내는 따렌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며,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매년 가을이면 '국제복장제(國際服裝制)'가 열려 중국의 큰 행사의 하나로서 진행되며 복장의 도시, 소비의 도시, 녹색의 도시, 해안의 도시로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따렌이 '북방의 홍콩'이라는 슬로건을 뛰어넘어 21세기를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따렌의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면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단없는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끝없이 직업을 찾아 밀려든 사람들로 인해 도시와 해변의 길이 마치 외국에 이민이라도 오는 듯 외지의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 따렌은 중국 사회에 개방의 초석이 될 것이며, 중국 경제의 기둥이 될 것이며, 개방정책과 함께 중국 정부가 추천하는 모범된 도시가 될 것이다.

## 종교 및 기독교 현황

따렌은 지금 종교마찰이나 종교의 대립상태와 같은 내용들은 볼 수가 없다. 지금 눈에 띄는 종교로는 기독교, 천주교 외에 약간의 회교와 불교가 병존하고 있지만 길거리에 회교 모장이나 승복을 입고 거리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조선족을 제외한 소수민족은 드물다. 따렌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한족 중국인이다.

따렌은 현재 3개의 삼자교회(한족교회 2곳, 조선족교회 1곳)와 1곳의 천주교 삼자교회가 있으며 기독교는 삼자교회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가정교회가 있다. 한족교회는 1부와 2부의 예배 모두 교회 앞마당까지 채우고 있으며, 조선족교회도 2부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따렌에 나와 있는 많은 한국인 사업가들과 유학생들을 위하여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활발하게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따렌은 선양과는 4시간 30분 거리에 있는데, 선양의 동북한족신학교와 서탑교회의 조선족 신학교가 있어 신학교 및 신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렌은 동북삼성의 관문으로서 또한 북한과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서 엔벤(延邊) 조선족자치주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복음의 통로이기도 하다. 앞으로 중국의 복음화는 따렌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북삼성과 북한, 러시아, 중국 전지역이 하루속히 복음화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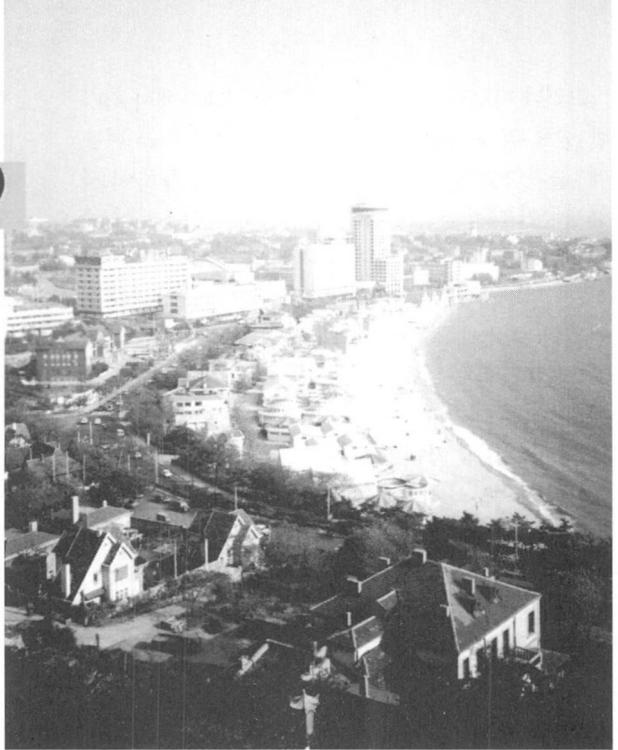
## 기도제목

1. 따렌에 나와있는 주재원과 기업인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사명을 갖고, 따렌의 복음화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2. 한인회와 한글학교, 한인교회를 통하여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중국과 아름다운 협력관계를 이루도록.
3. 최근 따렌 외국어대학 내에 한국 문화관이 개관되었는데, 이 문화관을 통하여 중국과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아는데 큰 힘이 되도록.
4. 동북삼성의 관문도시로서 북한과 러시아의 인접지역인 따렌이 엔벤(延邊) 조선족자치주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중국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 칭다오(靑島)

칭다오는 1897년 독일의 조차지가 된 이후 근대화된 도시로 빠르게 탈바꿈을 했다. 독일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지금도 거리의 곳곳은 유럽풍의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



푸른 섬이란 뜻인 칭다오는 산둥(山東)성 남단에 위치한 산둥성 제2의 도시이자 중국의 5대 항구 중 하나로 6개의 해수욕장을 가진 이상적인 피서지이다.

한국과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물이 맑아 전국에서 유명한 광천수가 있는 라오산(嶗山) 과거 진시황이 행차했던 명승지가 있어 6~8월엔 많은 중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던 칭다오는 1897년 독일의 조차지가 된 이후 근대화된 도시로 빠르게 탈바꿈을 했다. 독일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지금도 거리의 곳곳은 유럽풍의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맥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매년 7월 중순에는 “세계 맥주 페스티벌”이 열려 세계의 각종 맥주를 진열해놓고 여러 가지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중국의 술 문화나 놀이 문화를 볼 수도 있다.

### 행정구역

7개 지구-스난(市南), 스페이(市北), 쓰팡(四方), 리창(李滄), 라오산(嶗山), 청양(城陽), 황다오(黃島)  
6개시-자오주(膠州), 지모(即墨), 라이시(萊西), 핑두(平度), 자오난(膠南), 칭다오(靑島)

### 인구

684만 명

### 기후

최고기온: 8월 평균 25℃

최저기온: 1월 1.3℃

연 평균기온: 12.2℃

연 평균 강수량: 775.6mm

칭다오는 사계절의 기온차가 그리 심하지 않으며, 해양도시로서 강수량도 일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위도상 인천과 충남 서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온도가 한국과 흡사하여 칭다오에 비가 오면 한국에도 비가 온다. 강수량(연600-900mm)은 한국보다 30%정도 적고, 겨울에 눈이 오는 날도 적어 함박눈이 오면 시민들은 기뻐하며 길을 걷곤 한다.

칭다오를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여름이다. 칭다오의 바닷물은 여름에도 해안을 따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영향으로 차가운 편이다. 6월부터 9월까지의 수영을 즐기기에 좋아 이 시기엔 청도의 시내와 해변이 피서객으로 많이 붐빈다. 또 이 시기엔 바다 안개가 끼기도 한다.

### 역사

칭다오는 1897년 독일에 점령당한 역사가 있다. 당시 독일은 자국의 선교사 두 명이 중국인들에게 살해당한 것을 빌미로 청도를 점령했다. 칭다오를 점령한 독일의 속셈은 극동지역에 독일해군의 전진기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97년에 진주한 독일군은 99년 광산채굴권과 철도 부설권을 따내고, 청도를 석탄 공급기지로, 또 바다와 근접한 조건을 이용해서 해군기

지로 개발해 갔다.

독일군이 칭다오에 진주하면서 그전까지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던 이곳에 현대식 도시가 세워졌다. 항구시설이 갖추어지고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자연히 상업지구가 형성됐다. 독일군 주둔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칭다오와 칭난을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되었다.

1903년에는 라오산의 광천수를 보고 맥주공장을 건설했는데, 세계 최고인 독일의 맥주 제조 기술과 칭다오의 맑은 물이 결합해 중국 제일인 칭다오 맥주가 탄생한 것이다.

독일은 또 선교센터와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독일은 1914년 제1차 대전이 발발,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칭다오를 침공할 때까지 이곳에 주둔했다. 1922년 일단 중국 측에 반환됐지만, 중일전쟁 기간인 1938년 다시 일본의 수중에 넘어갔다. 그 후 국민당 정권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잠시 주인노릇을 했지만, 1945년에 공산당에 전권을 넘겨줌으로 비로소 중국인들의 손에 완전히 되돌아왔다. 근대 40년 동안 무려 5번이나 정권이 바뀌었던 것이다.

## 산업

칭다오는 베이징(北京)이나 상하이(上海)와 같은 대형도시는 아니지만, 단일시로서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도시이다. 상하이나 베이징에 종합상사와 같은 지사 형식이 많다면, 칭다오는 공장형태의 중소기업들이 약 천여 개 분포되어 있다.

이 기업들은 주로 섬유업, 가죽제품 계통이 많고, 식품 중에서도 장(醬)과 완구, 장신구 등을 취급한다. 이들은 초기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임가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컨테이너, 철강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것은 칭다오가 항만이 발달되어 있어 해상운송이 원활하고, 대형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가 있으며, 육상로도 발달되어 있어, 기업을 유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 사회 및 경제

칭다오는 천혜의 수질조건과 독일로부터 전수받은

양조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도 가장 큰 음료 및 주류생산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칭다오에서는 91년부터 '칭다오 국제 맥주축제'가 열려 98년 올해로 7회째에 이르고 있다. 세계인을 상대로 관광, 오락, 무역 등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730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기후도 온화해 90년도부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현재 이 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700여 개에 이르고, 교민 수는 8천을 헤아린다. 칭다오의 공업단지인 노산구 경제개발구역의 외국투자업체 중 한국업체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 종교 및 기독교 현황

1. 삼자애국운동 위원회에 등록된 종교사원

- (1) 불 교: 湛山寺 1개소, 市南區 소재.
- (2) 이슬람: 市南區 창주로 1개소
- (3) 천주교: 市南區 덕현로 1개소
- (4) 기독교: 6개 시구 8개소
- (5) 도 교: 山區 1개소

1954년 기독교 협회 조직

1980년 삼자애국운동 위원회 관리

2. 가정교회(비삼자 소속)

교회와 교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가정교회 사역자들의 말에 의하면 매 년마다 7~8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고 전한다.

산둥 각 지역으로 전도와 제자훈련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지도자의 수준이 질적으로 부족하고 자로도 부족하다. 이곳은 지도자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일부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어 활발히 진행되는 곳도 있다.

## 기도제목

- 1. 칭다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많은 일을 충성되어 감당하도록.
- 2. 칭다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IMF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중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 3. 칭다오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도시의 주민들이 예수를 잘 영접 할 수 있도록.

# 중국 가정교회 말씀사역의 「삼대 관문」

- 「기본 관문」, 「순정 관문」, 「공급 관문」

왕쓰웨

## 불투명하게 된 지도자 훈련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령세례란 무엇이며, 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L지역 중부지방 가정교회 최고지도자 두 명과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교회근황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정(鄭) 형제라는 분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다. 옆에 있는 S선교사가 아무 말이 없자 나는 그들이 모르거나 단순한 의견교환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 온 우리의 신앙과 신학적 견해 및 입장을 시험하려는 것임을 감지하여, 천천히 하나씩 성경의 말씀을 짚어가면서 대답해 주었다. 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했고, 정 형제는 여러번 내 답변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과 기타 부수적인 것을



질문했다. 그의 표정에서 나의 대답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정 형제는 갑자기 한국의 조용기 목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의 성령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냐는 매우

뜻밖의 질문을 해왔다. 내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않자 S선교사가 대뜸 대답하였다.

S선교사로 말한다면, 한국인 선교사로서 중국어에 능통하며, 중국의 한 모퉁이에서 수년 동안 조용히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삼자교회 내 복음적이고 신실한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사역과 물질후원이다. 사실 이번 L지역 중부지방에서 개최하려는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사역은 S선교사의 안내를 받아 함께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L지역 중부지방에 도착하고 나서야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사역은 S선교사와 연결된 L지역 삼자교회 사역자 쉬(徐) 자매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여 계획된 것이다. 내가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아는 S선교사는 쉬 자매의

주선으로 L지역 남부 지방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그의 사촌오빠를 비롯한 몇몇 사람과 중부지방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지도자 훈련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약속된 훈련시간에 사촌오빠인 우(吳) 형제 일행이 도착하지 않았고, 또 정 형제 측에서



부흥하고 있는 광저우시의 한 가정교회 모습  
(사진은 내용과 무관 함)

는 이번 훈련에 관한 일을 쉬 자매와 잘 협의하지 못해 지도자 훈련이 갑자기 불투명해졌다. 정 형제 측인 중부지방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남부지방의 우 형제와 먼저 만나 협의 후 자기 지역에서 지도자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 형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생인 우리들은 예정대로 도착한 반면 우 형제의 도착이 늦어지고 게다가 연락도 되지 않자 그들은 당황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먼저 도착한 선생을 만나보고 그들 지역에서의 지도자 훈련 개최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우리가 도착한 날 밤 늦게 우리를 찾아온 것이었다.

#### 시험대 위에 오른 선생님들

정 형제와 함께 온 다른 두 명의 형제는 L지역 중부지방 가정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남부지방의 우형제와

는 우호적인 동역관계를 갖고 있어 상호 신뢰의 폭이 두터웠다. 이에 반해 정작 같은 중부 지역의 삼자교회 교역자들과는 불신과 갈등의 관계라서 비록 쉬 자매가 우 형제의 사촌 동생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사역을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정 형제 측은 우 형제로부터 이번엔 선생으로 올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배경설명도 듣지 못한 터라 쉬 자매가 데리고 온 S선교사와 나에 대해서도 무작정 믿고 신뢰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사실 가정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되는 것은 상호 신뢰관계의 형성인데, 이번 사역은 그런 바탕 없이 진행된 상태였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바로 사역하는 데 있어 주최자들 사이의 사전 협의 부족과 배경설명 결여, 그리고 소개인인 삼자교회 쉬 자매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선생을 직접 만나 신앙과 신학적 입장을 점검한 후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들이 판단할 때 기본신앙이 서로 같을 경우 그다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신학문제이다. 정 형제의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구원관과 성령관이었다. 그들은 선생들이 다른 구원관과 성령관을 그들 사역자나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생들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양과 사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 형제가 조용기 목사에게 질문한 것은 의외였다.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낯선 자들이나 배경을 잘 모르는 선생의 신앙과 신학을 알기 위해 던지는 질문 가운데 조용기 목사에게 대한 항목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것은 필시 S선교사와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 둘 가운데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 형제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다. 말투와 역량 때문인지, 아니면 직감인지, 아니면 S선교사의 출신을 알고 있는 쉬 자매가 귀뜸해

주었는지 모르겠다. 정 형제는 한국 사역자라면 조용기 목사에게 대해 잘 알 것이며,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신학관에 대한 견해를 통해 상대방의 신앙과 신학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한 것이 분명하다. 중국 교회의 신도나 지도자들은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조용기 목사에게 대해서도 중국어로 번역된 그의 서적을 통해 알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이적인 성장에 대해 탄복하면서도 조용기 목사의 성령관과 성령 은사관, 축복 신학(중국 기독교인들은 조용기 목사의 신학사상 가운데 「축복신학」을 성공신학(成功神學)으로 명명하여 이해하고 있다.)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나는 한국적 배경과 출신이 아닌 입장에서 필요하면 대답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정 형제가 질문해 올 때 머뭇거렸던 것이다. 그러나 S선교사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가 조용기 목사와 그의 신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한국 출신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적어도 한국에 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말했다. 이런 상황을 직감한 나는 옆자리에 있는 S선교사에게 눈치를 주었으나, 설명에 너무 열중하여 그는 내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가정교회 지도자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데다 처음으로 사역접촉을 하는 S선교사에게는 그날 첫 만남의 대화가 상견례와 우호교류, 격의없는 대화와 의견교환 정도로만 생각하였지 우리를 시험하는 면접시험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사실 내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의 원칙은 상당한 사역관계와 인간관계가 있기 전에는 한국에서 왔거나 한국 화교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혹시 출신과 고향을 물어 올 경우에는 반드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외에는 산둥(山東)이라고만 밝힌다. 그래도 계속 질문할 경우에는 산둥방언을 말하면 대부분 더이상 의심치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한국적 배경과 출신을 밝히지 않는 것은 현지 가정교회나 사역자들이 내가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동역의 부담감과 거북스러움, 그리고 혹시 있을 심리적 과잉기대감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첫 만남의 대화는 9시 조금 넘어 시작하여 12시가 다 되어 끝났다. 먼저 인사를 나누고 나서 정 형제가 L지역과 그 지역의 교회 근황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관과 성령세례, 성령충만 문

제를 질문했고, 그리고 나서 조용기 목사에게 대한 견해를 물어왔다. 그 후 정 형제는 삼자교회 사역자인 쉬 자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자교회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특히 최근 그 지역 삼자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자리다툼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또 종교사무국과 공안국 사람들이 가정교회의 집회와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 후 계속 여러 질문을 우리에게 해왔는데, 기독교인이 피라미드형 다단계 경영과 판매직업(중국어로 전소(傳銷)라고 한다.)을 갖는 문제를 비롯하여 신유와 축귀, 전임 사역과 텐트메이커 사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국내 가정교회와의 사역관계와 화중(華中) 교회지도자인 다이(戴) 형제와 인간관계 및 동역관계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기 전 나는 정 형제에게 마무리 기도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마무리 기도할 것을 권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서로 겸양(謙讓)하였고 결국 S선교사의 의견에 따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정 형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나는 신앙고백적 기도와 마음의 기도 및 축복의 기도를 하였고, 정 형제도 감사와 축복의 기도, 그리고 우리와 동역

을 원하는 기원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친 후 정 형제는 이번 지도자 훈련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집을 나섰다. S선교사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매우 당황해 했고, 중간 연락책임을 맡은 삼자교회 쉬 자매도 아무말 없이 시무룩했다. 겉으로는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끝난 것이다. 나도 내심 금급했으나 그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것은 가정교회 사역 관례상 결례에 해당되기에 묻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7시가 넘어 정 형제 측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삼자교회 쉬 자매가 통화를 했는데 일단 이틀정도 안 배하며, 이후의 상황은 쉬 자매의 사촌오빠인 우 형제가 도착한 후 이야기하지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안전 문제상 삼자교회 쉬 자매가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선생을 가정교회 측 사람에게 인계하는 식으로 접촉을 끝내지는 것이였다. 또 S선교사는 언어 구사와 역양 등의 이유로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모시기 힘들고 나만 오기를 원했다. 이런 가정교회 측의 결정에 대해 쉬 자매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그 자신도 가정교회에 깊



말씀 배우기에 갈급해 하는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

이 간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문제는 이번 사역에 나를 인도한 S선교사였다.

우리가 아침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나가니, 집 앞 골목어귀에는 어제 정 형제와 동행한 또 한 사람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쑤(蘇) 형제가 웃으면서 나를 반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S선생도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나, 쑤 형제는 그의 언어문제와 출신문제를 내세워 힘들다고 했다. 이들은 S선교사가 중국 내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혹시 모임이 발각돼 S선교사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정 형제의 가정교회는 더 큰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모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였다. 나는 S선교사에게 “이번 사역을 S선교사께서 안내해 주셨는데 가정교회 측에서 나만 초청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따르기보다 S선교사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하였다. S선교사는 쑤 형제에게 약간의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들의 태도가 너무 확고해 결국 나에게 “왕선생님, 가서서 사역을 해주시지요”라고 말하고는 쉬 자매와 길 한편에서 서서 우리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매우 난감했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쑤 형제를 따라 택시를 타고 갔다, 시외버스로 환승하여 1시간 후 어느 탄광촌에 가서, 또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걷고 난 후 사역지인 어느 가정에 도착하였다. 참 힘든 여정이였다. 이동하는 동안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고 쑤 형제의 지시에만 순종하였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S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번 일정도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멘’

### 탄광촌 내 산골 독에서의 지도자 훈련

지도자 훈련 장소는 탄광촌 내의 어느 신도의 가정이었다. 그 집은 단칸방으로 집안 한쪽 벽면에 조그만 나무문이 있는데, 바로 그 안에 두 평 정도의

굴이 있었다. 바로 그 굴이 훈련장소였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교회론」을 강의했다. 1시간 휴식 후 다시 오후 6시 반까지 강의를 했다. 강의를 마치자 쑤 형제가 옆집으로 안내하더니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것 같고 선생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결례를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S선생님을 모시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나는 별 말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라고 만하였다.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저녁 강의를 했다. 나는 성령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다. 저녁때는 오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였으며,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나에게 대한 경계심과 평가태도가 사라지고 은혜를 받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날 오후에 참석한 6명은 그 지역 가정교회의 지도자급 인물이며, 내 강의를 평가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강의를 듣고 난 후 괜찮다는 평가를 내렸기에 저녁때 중간 지도자급 8명을 불러 훈련에 동참시킨 것이다. 결국 총 14명이 참석했다. 강

의는 11시 반에 끝났지만 기도까지 마치고 나니 12시가 넘어버렸다. 나는 어느 형제의 안내로 숙소인 옆집으로 갔다. 자리에 막 누우려고 하는데 쑤 형제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혹시 토요일까지 머물러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나는 “제 생각으론 내일 쉬 자매에게 연락을 해서 그의 사촌 오빠가 언제 도착할 지를 확인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다.

나무 침대에 누우면서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곳 가정교회의 모든 관문을 통과했음을 느꼈다. 이 관문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역자의 기본적인 신앙과 신학을 살피는 「기본(基本) 관문」,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이 성서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올바른지(純正)를 살피는 「순정(純正) 관문」, 그리고 전하는 말씀이 은혜스럽고 듣는 이의 삶과 사역에 도움이 되는, 즉 공급함이 있는 말씀인지를 살피는 「공급(供給) 관문」이다. 가정교회에서 말씀사역을 할 때 「기본 관문」, 「순정 관문」, 「공급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가정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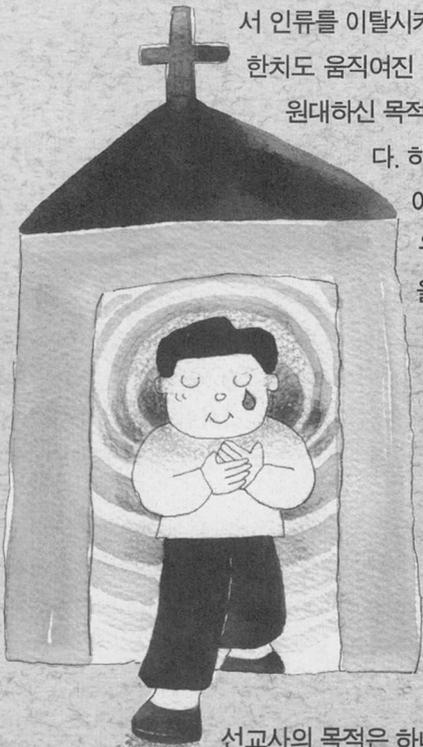
회에서 말씀사역을 할 수 있고, 장기적인 사역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가정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불문율(不文律)’이다. L지역 가정교회의 정 형제와 쑤 형제는 나에게 대해 낮설었고 믿음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기에, 당연히 「삼대 관문」으로 나를 시험해보아야 했을 것이다. 쑤 형제가 이곳에 나를 데리고 온 것은 「기본 관문」이 통과되었음을 의미한 것이며, 오후와 저녁 강의를 통해 「순정 관문」, 「공급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기에 그 증거로 쑤 형제가 토요일까지 강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그곳으로 떠나기 전까지 매번 식사 때마다 차려진 음식을 보더라도 내가 세 가지 관문을 통과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오후, 쑤 형제는 쉬 자매와 통화를 했는데, 쉬 자매의 사촌오빠가 사정상 그곳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의 L지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일정은 결국 쑤 형제의 안내로 토요일 저녁 11시까지 지도자훈련이 진행되었다. 매일 10시간 내지 11시간의 강의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으로 기쁘게 감당하였으며, 주일 아침 8시 반에 그들의 정감어린 환송을 받으면서 하산(下山)하였다.

# 선교사의 예정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사 49: 5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처음 일어나는 일은 편견, 지방색, 민족주의 등이 파괴되고 하나님 자신의 목적에 맞는 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죄가 이 원래의 목적에



서 인류를 이탈시켜 다른 방향으로 옮겨 놓았지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한치도 움직여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체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적 목적에 의존하는 일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선 우리에게 일편단심을 넣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요한 복음 3장 16절에 응축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나의 계획이나 의도에 영혼이 혼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상하게 되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분쇄하실 것이다.

선교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부합되도록 창조되었음을 알면 예수님이 어찌서 그토록 냉엄하리만큼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하게 된다. 주님은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본성을 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 글은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판한 오스월드 챔버스 저, 「주님은 나의 최고봉」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김재호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마 10:22-23)

##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난해 〇〇시 공안국에 끌려가던 운명의 그 날, 나와 중국인 형제 S는 C자매의 도움으로, 그녀가 안내하는 차량으로 쉽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잠시 후, 약속대로 후리후리한 키에 미남형인 S씨가 ‘빵(성경과 기독교서적)’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고 12개의 트렁크와 키를 건네 받았다. 그리고 몇몇 그들의 동업자들과 함께 약 40킬로쯤 되는 무거운 가방을 하나씩 운반하는데,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는 듯한 불길한 예감 속에서 우리 일행은 자신이 인수받은 12개의 물건들을 다 챙기지 못한 채 털털거리는 낡은 차에 빵을 싣고서 어둑속을 질주하여 목적지로 향했다. 도착지와 멀지 않은 곳까지 왔을 때, 길가운데 8~9명의 경찰들이 마치 정확한 정보에 의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길래도 했다는 듯이 차를 세우고 순서에 따라서 짐과 신분증을 조사했다. 두 명의 경찰이 나의 양쪽 팔을 감아 잡았고 다른 한 명이 나의 등을 밀어서 좌차에 태운 후 〇〇파출소로 연행했다. 그들은 나를 커다란 방에 연금하고 5~6명이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심문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성난 파도와 같이 난폭하게 굴기 시작했다. 마치 상대를 향해 본색을 드러낸 성난 사자와 같은 위압과 호령으로 나에게 겁을 주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독사의 눈과 같이 번득거렸고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서너 명이 나를 세웠다 앉혔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마치 낯 나간 멧돼지처럼 시키는 대로 그들의 심문을 받았다.

“거처가 어디인가?”

“신분이 무엇인가?”

“목적지가 어디인가?”

“물건을 누가 주었는가?”

“너는 선교사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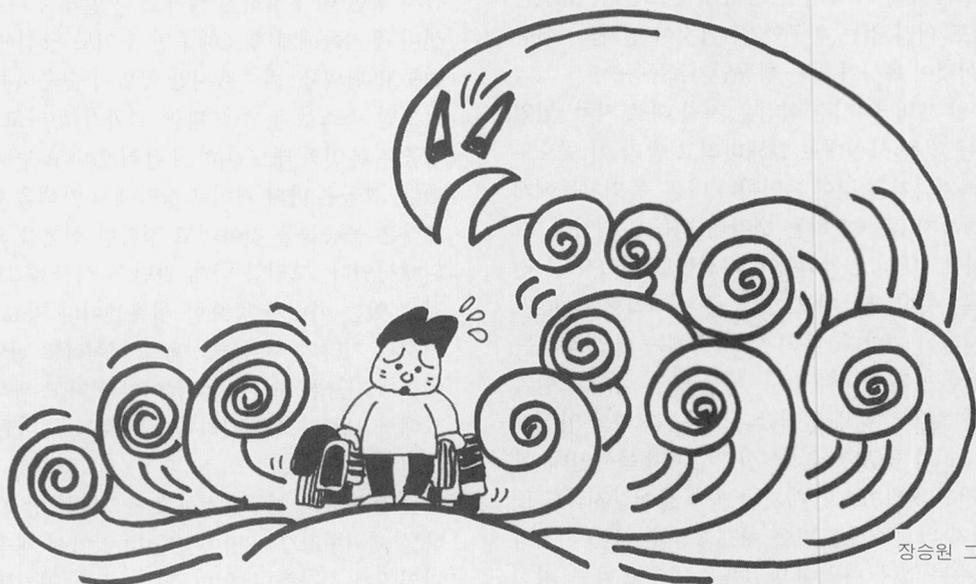
나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타내시려는 섭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못 견디겠다는 듯이 다시 겁을 주기 시작했다.

“네가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 혼 좀 나 봐야겠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 봐야 입맛이 나겠지?”

이 때 한 친구가 수갑을 가져다가 만지작거리면서 마치 금방 수갑을 채울 것처럼 심리적인 협박을 하기도 했다. 얼마 후, 한 사람이 다시 회유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친구 생각보다 미련한 친구군. 몇 마디 대답만 잘하면 보내 줄텐데. 그걸 모르고 고생을 자처하는군. 당신은 외국인이니 신상만 파악한 후에 곧 풀어 주겠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들 가운데 주임인듯 점잖게 권면했다. 그는 성경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는 나에게 로마서 13장 1~2절을 읽어 주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나에게 스스로 성경에 위배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마땅히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종교학 박사 학위를 가진 종교담당 공안원이었다. 이렇게



장승원 그림

해서 하루 밤을 꼬박 세웠다.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둘째 날 나는 00시 공안 분국으로 넘겨졌는데, 아침 8시가 좀 넘어 조선족 형사 2명과 기타 6~7명이 나를 가운데 세우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질문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위증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양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목사가 아닌가?”

“그렇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자신이 목사요, 선교 사임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이 때 키가 작고 야무지게 생긴 조선족 경찰이 내게 되물었다.

“네가 무슨 목사냐? 거짓말이나 하는 것이 목사냐? 왜 솔직하게 주소와 신분 그리고 목적지를 밝히지 못하는가?” 나는 당시 모른다고 대답했다.

“몰라?” 그는 찢기 서린 눈을 번득이며 고향을 치다가 나의 뺨을 내리쳤다. 이때 문득 골고다 언덕의 주님이 이상 중 떠올랐다. 나는 공안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환

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은 나의 양어깨를 잡고 한 친구는 앞에서 멱살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이봐 여기가 어디 예배당인 줄 아는가? 네가 아직도 편해서 그래. 고생을 좀 해야 순순히 불지” 그들은 나를 일으켜 세운 후 코를 벽에 대고 바짝 다가서게 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이 때 나는 또다시 손에 못박히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회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다시 호령하면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 이 순간 예수는 너를 도울 수 없다. 오직 우리만이 너를 도울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하라.” 이렇게 시작된 심문은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계속 교대로 심문을 했다. 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다시 나의 양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외국인이니 별일이 아니다. 그러나 너의 중국인 친구는 너를 도왔다는 것 때문에 너보다 몇 배나 심한 고생을 하고 있다. 너는 왜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왜 친구가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가? 당신은 그렇게도 의리 없는 친구인가? 이것이 신자의 행동인가? 이것이 목사가 하는 행동인가? 등등...

다음날 새벽 3~4시경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버리고 빨리 이 곳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본인이나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맴돌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2명의 공안원들이 자신들도 더이상 못 견디겠다는 듯이 책상에 앉아서 즐기 시작했다. 10분, 20분 시간이 지났다. 나의 머리 속에는 빨리 튀라는 생각이 번개 같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죽이고 살금 살금 문 쪽으로 향해 걸어가다. 이 순간 나의 양심에서 한 소리가 들렸다. 너는 선교사이며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다 잡혔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몇몇해야지 비겁하게 도망을 쳐? 그렇다. 나는 비겁자가 될 수는 없다.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고 나는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 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도망을 치셨을까? 바울이라면 슬며시 출항을 치셨을까?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좀더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다.

**“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정상적인 사람이다.”**

아침이 되자 다른 교대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관할 지역의 공안국에서 왔다고 소개했고, 몇몇은 00시경 공안국에서 왔다면 신분을 내밀었다. 그들은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문했다. 이들은 어제 저녁 심문했던 경찰들 보다 더 노련하고 세련된 어조로 심문을 시작했다. 한 사람은 비디오를 찍고 다른 6~7명은 번갈아 가면서 인적 상황을 묻기 시작했다.

“국적은? 언제 입국했는가? 성명은?”

“모른다.”

“이름을 몰라? 그렇다면 비정상인데?”

“그렇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다만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정상적인 사람이다.”

“생년월일은?”

“모른다.”

“목적은?”

“전도다.” 그들은 나의 거처와 이름, 신분 등을 밝히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 만일 당신이 우리들에게 협조해주면 우리도 당신에게 협조해주고 편의를 봐주겠지만 끝까지 순순히 대답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된다고, 처벌의 경중은 본인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누누히 강조했다. 그들은 나의 거처를 장악해서 가택을 수색하고 또다른 물증들을 찾아내고 정확한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의 판단은 시간을 끄는 만큼 집에 있는 아내가 중요한 서류들이나 자료, 그리고 성경과 기타의 서적들을 옮길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모른다고 일관하다가 때로는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중국 특유의 어두컴컴하고 조그마한 방 한 가운데 나를 세워두고 7~8명이 빙 둘러 앉아서 계속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하니, 얼마 후 온 방은 연기로 가득해졌고, 나는 담배 연기에 곧 질식될 것만 같은 상황에서 콜록이면서 심문을 받았다. 그들은 나에게 물건을 건네 준 밀수의 주범인 미국인 친구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 또 다시 회유하기를, 당신은 죄가 없다. 물건을 건네준 사람이 주범이고 당신은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니 그 사람의 신원을 밝혀주면 곧 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친구를 팔 수는 없었다. 나는 시종일관 모른다, 그저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이 때 조선족 경찰 한 명이 나를 동정하는 어조로 경고하기를 우리 인민 경찰은 인권이 없으니 협조하시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2~3시간이 흘렀다. 별다른 효과가 없자 작은 다른 조선족 형사가 얼굴이 마치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벌떡 일어나더니 고향을 치면서 욕을 퍼부었다.

“이 새끼, 아주 저질어구만. 야, 네가 무슨 목사야? 거짓말 마라.”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냐, 중국 조선족이지. 맛 좀 봐야겠어? 너, 똑바로 말해.” 그의 목에 핏줄이 젖가락 만하게 불쑥 솟아 오르더니 책상 위의 잡지를 둘둘 말아들고 바짝 다가섰다.

“빨리 말해.” 그러더니 그는 들고 있던 잡지로 나의 얼굴과 머리통을 사정없이 후려 갈았다. 나의 눈에서

몇 차례의 번갯불이 튀었다.

‘그래, 때려라, 이것이 인민경찰이나?’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땅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도무지 어떻게 유창하게 기도하겠다는 의식조차 없었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저 ‘주님! 주님! 주님!’ 계속해서 주님만 불렀다.

그들은 또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봐 협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나?”

**병신이 되든지 폐인으로 살든지...**

한편 함께 공안국에 연행됐던 중국인 1형제는 첫째 날의 잠을 안 재우는 심문은 무사히 보냈지만, 둘째 날로 계속되는 심문은 견디기가 어려웠다. 둘째 날 시공안국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그에게 아침을 주지 않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6~7명이 빙둘러 서서 구두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고 경찰봉으로 때리고 뺨을 치고 얼 마동안 인정사정 없는 구타를 당했다. 그는 반죽음이 되었고 마침내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저버리고 입을 연다는 것이 마치 주님을 팔고,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견뎠다. 그들은 다시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죽어서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병신이 되든지 골병이 들어 나가면 너는 평생을 폐인으로 살게 된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썼다. 경찰봉에 전기를 켜고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마침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후로 그의 건강이 어떤지 나는 정확한 근황을 알 길이 없다.)

얼마 후 깨어나 그는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입을 열고 말았다.

“한국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

“그의 직업은?”

“○○○”

“가족은?”

“○○○” 등등 모든 사실을 다 알아내고 말았다.



장승원그림

한편 빵을 받아 돌아오겠다고 남편이 새벽이 되어 도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사건을 예감하였다. 아내는 날이 밝자 중국인 자매와 함께 집에 있던 여권과 중요한 서류 및 기타의 자료들을 여기 저기 분산해서 맡기고, 또다시 성경 창고에 있는 수많은 책들과 자료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몇 사람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다. N선생님은 위험을 예감하면서도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그와 아내는 급하게 집을 나섰다. 그런데 남아 있던 주소록과 약간의 서류들을 맡기기 위해 사람을 찾으라고 1-2시간이 흘렀다. 장소에 도착했을 때 N선생의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영감이 떠올랐다. 그래서 풀 속에 몸을 숨기고 10살짜리 동민이를 보내서 집을 둘러보고 나오게 했다. 집 앞의 작은 골목에는 다섯 대의 경찰차가 꼭 차 있었고 대문 안에는 20여 명의 경찰들이 주위를 이 잡듯 살살이 뒤지고 있었다. 동민이가 번개같이 돌아와서 숨가쁘게 소식을 알리고 있을 때 몇 명의 경찰들이 그쪽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짹짹 동민의 입을 틀어막고 풀밭에 엎드렸다. 이 때 그들을 발견한 사람이 그쪽으로 걸어와 그를 붙잡고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그의 핸드폰을 압수한 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다시 보내주었다. 이때 N선생과 아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만일 한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곳에 도착했다면 그들마저도 체포되고 일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급히 그곳을 빠져 나왔다.

###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첫째 날 잠을 자지 못했고 둘째 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물 한방울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심문을 받았다. 오후 2~3시경 한 명의 조선족 경찰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왔다. 그러더니 내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다.

“○○○” 내 이름을 불렀다. “부인은 ○○○, 자녀들은 ○○○ 맞지요?”

나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과 고독이 나를 뒤흔들어 놓았다. 마치 작은 조각배가 소용돌이를 따라 급류에서 급방 뒤집힐 듯한 위기감

과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고 망연자실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감이 나를 끝없이 짓눌렀다.

잠시 후 그들은 나를 지프차에 태웠고, 10여 명의 경찰이 나를 집으로 연행해 갔다. 그러더니 가족의 여권을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방안에 들어섰다. 아내와 아이들을 보니 외락 눈물이 쏟아졌다. 아내와 세별, 동민 네 식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영영 울기 시작했다. 마치 수십 년만에 만난 이산 가족들이 목놓아 울 듯, 우리는 하염없는 눈물을 이국 땅의 선교지 베이징(北京)에서 흘려야만 했다. 그것도 저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는 공안원들 앞에서 눈물짓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가련한 패자의 모습이었다.

이 때 아내는 모든 것을 다 감추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아내는 저들 중의 두 사람이 조선족 형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이 공부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는 눈물의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가족은 기도인지 통곡인지 모르는 절규의 기도를 얼마동안 드렸다. 우리는 이 곳 이국땅에서 처음으로 철저한 회개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은 문 밖에서 나오라고 소리쳤다. 뭐 하는 거냐고 계속 불렀다. 결국 아내는 남의 집에 맡겨 두었던 것을 찾기 위해 문을 나섰다. 경찰이 아내를 따라 나섰고, 그때부터 그녀의 뒤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검은 세력들이 줄을 지었다. 결국 가족들의 여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들은 집안에 있는 일부의 신앙서적들을 챙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확인한 후에 문제가 없는 물건들은 돌려줄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 모든 자료들은 나를 한 달 20여 일 동안 조사하는 자료가 되었으며 영영 돌려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 사랑하는 동료 송 선교사를 보내며

송 선교사!

민족의 명절 추석의 기쁨 가운데 들려온 송 선교사 자네의 소천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소!

송 선교사! 그대는 죽어서도 중국선교의 초석이 되기 위해 중국이 바라다 보이는 인천 앞바다에 당신의 유골을 뿌려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갔지만, 그 유언을 들은 우리는 오직 선교적 대사명만을 향한 당신의 헌신과 순종의 삶에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구려!

5년 전 대륙의 선교적 비전을 품에 안고 함께 훈련원에서 선교사로서 훈련받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그 때, 우리는 함께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릎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송 선교사!

당신은 우리와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의 불모지인 중국대륙을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영하 25℃의 매섭고도 혹독한 추위와 공장매연으로 흰 눈조차 까맣게 변해버리는 중국의 공업도시 00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바쳐 애쓰던 당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인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그대가 남겨놓은 사역의 흔적들이 지금도 중국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송 선교사 당신이 중병으로 중국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많은 기도와 눈물로 하나 님의 뜻을 물었지요.

한국에 돌아와 가나안 농군학교의 생활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보면서 다시금 중국 선교의 새로운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만 이렇게 우리 곁을 먼저 떠나다니 가슴이 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많고 저 넓은 중국대륙엔 추수할 일군이 필요한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먼저 데려가셨나이까? 그리고 남겨진 사모님과 지은이, 인준, 이 어린 두 남매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송 선교사! 당신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과 교회와 동료 선교들의 찢어지고 미어지는 이 가슴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송 선교사를 부르신 깊고도 오묘한 그분의 뜻을 믿기에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송 선교사!

이제 당신은 우리 곁을 먼저 떠났지만 당신의 승리로 운 사역의 발자취는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누었던 그 꿈, 중국대륙의 복음화를 위하여 남아있는 우리들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며 기도할 것입니다.

송 선교사!

이제 평안히 주님 품에 안식하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송 선교사님은 93년 11월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선교사로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 파송되어 캠퍼스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였으나, 95년 초에 만성간염으로 인한 간경화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 잠시 기력을 되찾은 후, 95년과 96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하셨다. 하지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외향선교에의 여수지부에서 중국인 전도사역을 하셨다. 그러다 결국 98년 추석 다음 날, 그 오랜 간경화로 인해 '전주 예수병원'에서 소천하셨다.



1998. 10. 8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가

장승원 그림

# 이방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저우위차이 (周玉才)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4절)

## 나에겐

### 낮선 예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시절까지 온통 사회주의 사상과 유물론 사상으로 세뇌당해 왔었기 때문에 만물은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루쉰(魯迅)은 나의 숭배자였으며, 영웅들은 나의 우상이었다. 기독교와 예수는 비록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해 본 적은 있지만, 나에게 모두 낯선 이름이었다.

그런데 1995년 어느 날, 어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계속해서 누나, 여동생, 형수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생각이나 언어, 생활습관 등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나는 그들이 신에 미쳐서 이상하게 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조금씩 변화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나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나는 떨시하듯이 "그것은 단지 정신적인 의존일 뿐이에요. 나는 결코 당



장승원 그림

신들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1996년, 나는 한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동의하지 않으셨으므로, 나는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25%라는 사실을 들어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결국은 허락을 얻어내었다. 그러나 허락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이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나는 그때에 《창세기》를 다 읽게 되었으며, 뽕뽕 얼었던 내 마음은 비로소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

했다. 나는 그 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출국하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내 계획대로 한국에 오게 해주셨다.

##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주신 사랑

축복의 땅, 한국은 마치 하늘에서 만든 화원과도 같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러나 세상의 악 또한 이 고층 건물과 화려한 네온사인 가운데 가득차 있었으며, 그

사이에 밤하늘의 별과 같이 사방에 흩어져 반짝이며 우뚝 솟은 십자가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국의 구석구석까지 편만하게 퍼져 있었으며, 이 축복의 땅에 찾아온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졌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호와 이레' 셧다. 그는 넓은 한국 땅에 나를 위해 한 명의 주의 종을 준비하셔서 이 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를 변화시키셨다. 나는 우연히 김 전도사님(여전도사님이신데, 나는 그분을 영적인 어머니로 생각한다)을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도움으로 인해 나의 길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기묘했다. 우리들은 서로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전해준 복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믿을 수 있었다. 함께 교회에 온 80여 명의 중국 형제 중에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전도사님이 세상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의 사랑은 허기진 사람이 꿀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여,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게 하였다.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곳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삶을 맛볼 수 있었다. 비록 설교말씀이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예배가 끝나도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고 매일 주일이 기다려졌다.

어느 날, 김 전도사님은 나에게 "중국에는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우스운 말이었다.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된단 말인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된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셨으며, 나로 좁은 길을 걷게 하셨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97년 8월, 내가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일이 끝난 후 너무 피곤하여 작업복도 벗지 않은 채 갑판 위에 누웠다. 평상시 나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선실로 내려갔었기 때문에 일어나 기도하고 싶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괜찮아, 그냥 자'라는 또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냥 자버렸다.

다음날, 일하려고 일어났을 때에 어지럽고 온 몸이 힘이 하나도 없었으며, 머리가 특히 더 아팠다. 일할 힘은 없었지만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중국인에게 "너는 먼저 가서 일해, 나는 주님께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비롯하며 "너 미쳤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 "있어." 나는 확신있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곧 안정되었고,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나로 땀을 흘리게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셔서 힘이 생기게 하소서."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고 5~6분 후에 바로 땀이 나게 하셨으며 한 시간 후에는 완전히 낫게 하셨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며 아름다운 전설도 아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당신은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나보다 나를 더 잘아시는 주님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였다. 크리스천인 사장에게 많은 돈을 사기당했다. 나는 매우 실망했으며 맥이 빠졌다. 크리스천은 모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하나님은 나를 농촌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 집은 주님께 축복받은 집이었으며, 그들에게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농촌에서 매일 드렸던 새벽예배와 저녁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믿음도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썼으며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에서 하는 중국어 복음 방송도 들었다. 농촌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크게 변화시킨 한 사건이 있었다. 98년 3월 27일, 나는 변소를 푸고 있었다.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나 같으면 이런 일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보기만 해도 멀리 피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의 주님, 당신은 정말로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런 일은 내가 이전에 싫어했던 일인 것을 아시고,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이 지금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의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셔도 저는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6월 15일, 김 전도사님은 전화하셔서 중국인 제자 양육을 하는 “사랑의 집”에 와서 공부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다. 당시 나는 고민했다. 공부해야 하나, 아니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 또한 돈을 벌러오는 다른 중국인들처럼 많은 돈을 이미 썼기 때문이다. 지금도 은행에서 대출한 2만 원(한화 약 300만원) 정도의 돈이 있다. 게다가 요즘은 직장 잡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때 성경말씀이 생각났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후부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지시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는 성경말씀이 내 마음 속에 떠올랐다. 나의 마음은 곧 밝아졌고, 마음을 비울 수 있었으며 나를 부인할 수도 있었다. 나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로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인해 어제까지의 고민과 갈등은 그날 밤에 다 사라져 버렸고, 새벽이 되어서는 아름다운 꿈을 선물로 받게 되었

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새로운 길을 떠났다.

“사랑의 집”은 우리들에게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하늘에서 오는 사랑을 얻게 하셨다. 어느 날 중국인인 이 전도사님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나에게도 신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게 하였다.

“사랑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많은 천국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사랑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황 목사님, 장 목사님에게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있었다.

### 사역자로의 부르심

그러나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가졌던 저녁집회 때, 한성교회의 여자전도사님이 울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중국 선교에 일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국의 그 복된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듣자, 내 마음은 바늘로 찌르는 듯했으며, 내 눈앞에 한 폭의 그림이 나타났다. 몇 십명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이었다. 우리 집은 가정교회 집회처인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할 목자가 없었다. 단지 성경을 읽을 줄 아는 한 사람이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그들은 집중해서 그것을 듣는다. 그러다가 외지에서 전도자가 올 때면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온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불쌍한 수만 명의 영혼이 있는 지역에 한 명의 전도자도 없으며, 수백 명의 신도가 있는 지역에 교회 하나도 없다.

나의 어머니는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급류와 같이 격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녀의 성격은 겸손하게 변했으며, 글자를 읽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만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전통 찬송가로 찬양하

고 전도인과 교회를 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어머니 외에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간절히 복음을 사모하고 목회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환상을 보자,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전도사님께서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전도자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기도하라고 했다. 이때 나는 어떤 힘에 밀려 앞으로 나갔다.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를 베드로와 같이 불러주셨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이 나를 필요로 하고, 중국은 더욱더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셨으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나에게 주신 큰 사명을 받겠습니다.”

## 전도의 첫 열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배를 얻었으니, 반드시 이 보배를 나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할 것이며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중국에 있는 이모에게 전도하기로 했다. 이모는 불교를 믿고 있었으며 매우 완고하였다. 만원짜리 전화카드가 이모에게 전화 두 번 하면 바다가 났다. 이모와의 통화내용의 절반 이상이 이모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이모를 위해 기도했다. 할렐루야! 이모는 나의 첫 열매가 되었다. 어느 날 전화통화 중에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교회예배에 참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모의 구원은 나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었다.

##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집에서 같이 교육받던 학우 중에 은강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그 형제가 막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는 성경을 알기 위해 매주일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군산 중화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간

절히 주님을 찾았었다. 그런데 사랑의 집에서 함께 훈련받던 어느 날, 내가 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그는 도리어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들은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그가 너무나 불쌍했다. 나는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설득하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집안으로 들어가 친구들을 모았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진화론의 부당함을 증명했다. 다윈이 진화론을 다 쓴 후에, 어떤 사람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창세기》에서 그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다윈은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노후에는 《참회록》을 썼다는 말을 해주었다. 이런 저런 사랑이 담긴 충고로 그는 결국 그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킬 수 있었으며, 우리들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진리를 알려셔서 그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다음날,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으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날 이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다. 할렐루야!

## 어디로 가야하나?

이제 3개월 과정의 제자훈련이 끝났다. 그러나 나는 망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나는 내가 직접 나서서 교회를 찾다니며 나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이미 버렸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개척해 주실 것이며,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돕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周玉才/중국인 제자학교 졸업생  
번역/곽 속·본지편집자

# 시님땅에 전해진 복음

이삼열

## 동방박사는 시님인이다.

BC 1800여 년 경,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주(周)왕조는 춘추전국(春秋戰國)의 혼란기에 진시황에게 점령되고, BC 2세기 초에 로마보다 거대한 한(漢)나라가 등장하게 된다.

한나라 야사(野史)에 효명황제(AD 1-6) 제위 당시, 유명한 천문학자 유향(劉攽)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것이 있다. 그 책에서 말하길 유향이 어느 날, 천문을 관찰하다가 다른 별들보다 특별히 큰 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2명의 제자를 동반하고 별을 따라 1년을 여행하여 새로 탄생한 어린 왕을 배알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시기와 일치하고 있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향과 그 두 제자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 변경지역 출입국 관리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마태는 유향과 두 명의 제자들을 직접 면접했거나, 동료들에게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만이 자랑스럽게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예수님께 드러졌던 세가지 보물은 당시 중동지방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건으로, 바로 중국의 특산품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이 동방박사가 유향과 제자들이라는 학설을 뒷받침 해준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님땅을 특별히 섭리하고 계셨으므로 성육신이라는 대사건을 시님땅에 계시해 주셨던 것이다.

## 시님땅에서의 기독교 역사

### 시님땅에서의 경교(景敎)

이사야는 주전 7세기 경에 시님땅을 예언하였고, 그로부터 7세기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시님땅에서 계시해 주셨다. 또한 그로부터 7세기 후인 635년, 당(唐)나라 때에 네스토리우스와 기독교 선교사 아라본(Alopenzz)이 21명의 선교사를 인솔하고 장안(長安)시 서교(西敎)에 도착하여 중국선교의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당 나라는 당시 문호를 널리 개방하고 모든 종교를 환영하였으므로 경교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당시 황제인 당 태종(太宗)은 의전재상(儀典宰相)인 방현령(房玄齡)을 서교(西敎)까지 보내어 이 선교단을 환영하였으며, 그는 선교단이 장안에서 우거하면서 경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태종을 이어 왕위에 오른 고종(高宗)은 아라본에게 진국대법주

## 시님땅은 중국인가?

### 성경상의 시님땅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돌우리니 흑자는 원방에서, 흑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흑자는 시님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사야 49: 11-13).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 멀리 남방과 북방과 서방과 시님땅을 바라보며 이사야 49장 10-13 절을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기록한 시님땅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까? 칼빈은 그의 성서주석에서 시님땅을 ‘CHINA’로 주석하였고, 대한 예수교장로회 표준주석에서도 시님땅을 중국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중국 성서 또한 시님땅을 ‘진(秦)’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 이사야가 말하는 시님땅은 중국이라고 보기도 한다.

(鎮國大法主)라는 관직을 부여하고 10개의 도(道)와 358개의 주(州)에 경교 사원을 건립하도록 명령하였다. 각 황실은 경교를 애호하였으며 대종(代宗) 때에 와서는 매년 성탄절에 향과 음식을 하사하고 축하를 하기도했다. 이렇듯 경교는 당 왕조가 285간 계속되는 250년이란 긴 세월동안 황실의 극진한 보호를 받으면서 부흥하였다.

그러나 무종(武宗)에 이르러서는 경교 탄압 조서를 내리면서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다. 845년 무종은 경교 신도를 한 명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탄압하였다.

이렇게 탄압당한 경교 신도들은 중심부에서 변경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이동하였으며, 송(宋)대에 잠시동안의 잠적기를 지나 원(元)대에 다시 흥기하게 되었다. 원 왕조 때에는 대부분의 황실 귀족들이 경교를 신봉하였으니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한 셈이다.

원 왕조 수립 16년(1240년)에 경교 신자인 정부의 고관 안마길사(安馬吉思)가 단양관(丹陽館)의 남방에 경교사인 대광명사(大光明寺)를 건축하였다. 이 때에는 경교를 야리가온으로 개칭되어 불리웠다. 그러나 경교는 원 왕실의 몰락과 함께 몰락하고 말았다.

## 시님땅에서의 천주교

천주교 예수회 선교사인 존 코르비노(John Corvino) 신부는 1289년 로마 교황 니콜라스 4세의 파

송을 받아 인도를 경유하여 4년 만인, 1293년에 중국 연징(燕京)에 도착했다. 그는 원(元) 세조(世祖)의 허락을 받고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여 몇 년도 안 되어 6천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그는 황실의 윤택을 받아 연징 시내 두 곳에 교회를 건축하였으며, 연징에서 왕교부 추장 좌치왕의 청을 받고 30년이나 걸려 신약과 시편을 지방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150명의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신학교의 모태를 이루기도 하였다. 원나라는 주원장(朱元璋)에 의해 무너졌다.

원나라 때부터 길을 연 서양 천주교는 명(明)대에 이르러는 여러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많은 시도와 변화를 시도했었다. 그 중 우리가 잘 아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신부는 광둥에서 20년 간을 체류하면서 많은 중국 서적들을 연구하였으며 서양의 선진 지식들을 중국에 전해주기도 하였다. 그들에 의하여 1605년까지 베이징(北京) 내에만 천주교 신자가 2백 명이 넘었다고 한다. 서구 각 선교회에서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

명 제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질서가 혼란해지자 사회에는 하극상과 권모술수, 그리고 중상모략



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질서정연한 천주교가 그대로 존속할 수 없었다. '남경 교난'으로 불리우는 천주교 박해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고 체포당했으며 출국을 당해야 했다.

1644년 10월에 세조(世祖)는 베이징(北京)을 수도로 정하고 대청제국(大清帝國)을 선포하고 베이징 내에 거주하는 한족과 외국인은 3일 내에 나갈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베이징이 아닌 중국 다른 지역에서 천주교는 여전히 존속했을 뿐 아니라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상과 공자에게 제사드리는 것이 우상숭배인가 아닌가를 두고 선교사들 간에 논란이 일어나 그 논란은 교황과 중국 정부에게까지 확장되었으며 마침내는 '예의지쟁(禮儀之爭)'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 명의 교황들이 청 왕조에게 수모를 당하고, 끝내 교황 측이 완전히 쓴 잔을 마시는 참패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선교사들은 완전 추방되었으며 선교 사업은 전면 중지되었다.

## 베이징 한국 유학생 44% 줄었다.

작년 6,046명서 현재 3,374명으  
로

한국의 IMF 경제 한파로 베이징(北京)의 한국 유학생 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재북경 한국 유학생 연합회(회장 권지화)가 최근 조사한 금년 9월 1일 현재의 베이징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전체 한국 유학생 수는 3,374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의 6,046명과 지난 5월 현재의 4,590명에 비해 각각 44.2%와 26.5%씩 대폭 감소한 것이다. 한국 유학생이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주로 어학 연수생들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베이징 한국 유학생 분포

대학명	유학생수
북경대학	468
칭화대학	120
인민대학	178
대외경제무역대학	110
북경중의약대학	350
북경외국어대학	80
북경어언문화대학	920
수도사범대학	93
수도사대외국어학원	40
침구골상학원	80
중앙민족대학	66
북경정법대학	40
중앙미술학원	42
북경연합대학	70
북경제2외국어학원	80
항공항천대학	85
북경이공대학	75
북경사범대학	110
사회과학원	55
기타 학원	150

-한국유학생연합회 조사-  
(베이징저널 제 72호)

### 시닝땅에서의 기독교(新敎) 활동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닝땅에 기독교가 아편전쟁의 뒤를 따라서 170개의 교단을 이끌고 대거 진입하였다. 서양 기독교는 자기 교단 확장을 위하여 연간 6500명의 지식이 풍부하고 유능한 선교사를 투입하고 막강한 선교비를 투자하였다.

아편전쟁이 발발한 지 12년 후, 그리고 '베이징조약'이 체결되기 6년 전인 1854년, 네비우스(Nevius)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하였다. 이 때는 중국 선교가 제한을 많이 받는 시기였다. 어려운 중에서 30년의 선교 경험을 가진 네비우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 신학을 상해에서 발표하였다. 그것은 바로 자양(自養), 자전(自傳), 자치(自治)라는 중국 교회를 토착화시키기 위한 원칙이었다.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에 의하여 앞을 다투어 들어와 자기들의 교단을 확장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선교방법을 사용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만약 기독교가 중국인들에게 맞게 토착화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중국인들에게 영원히 외국 종교로 남게 되며, 기독교를 아편과 같은 것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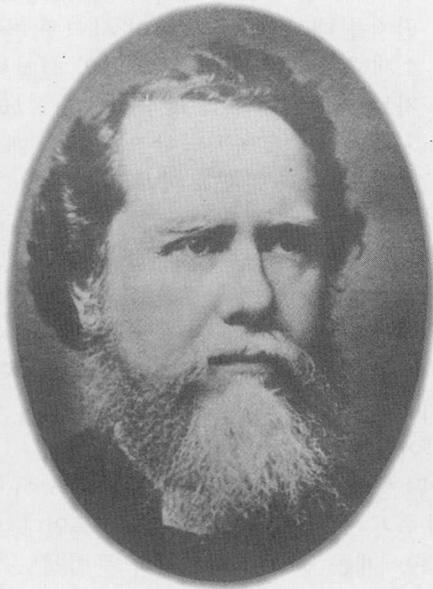
어쨌든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병을 치료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억울한 일 당한 자를 도와주고 어린이들을 길러주는 등등의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식민주의의 대포와 함께 중국 땅에 들어왔음으로 중국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선교사들을 아편상인들과 함께 양귀신이라 별명을 부치고, 본토인이 신자가 되어 세례를 받으면 국민배신자, 배은망덕한 자요, 불효막심한 자라고 지탄하였다. 그리하여 양주 교난 사건, 천진 교난 사건, 의화단 사건들이 계속하여 기독교를 반대하여 일어났으며, 중화민국 당시 선교사가 세운 학교와 교육병원의 운영권을 각 교단 선교회로부터 박탈하였다.

마침내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이 창설되면서 모든 선교회와 선교사는 시닝땅으로부터 전면 철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1979년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일꾼들이 계속 중국을 향하여 재도전하고 있으니 그 오랜 숙원이 머지않아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이삼열/중국 선교사

# 중국 복음화의 문을 연

## 허드슨 테일러



이제 수백만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똑같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헌신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중국을 주시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라는 큰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때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 아버지의 기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거든 그를 하나님을 위하여 중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소서”라는 제임스 테일러의 헌신된 기도의 열매로,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 반즐리에서 제임스 테일러와 아메리아 테일러 사이에서 1남 2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허드슨은 약국을 경영하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거나 배우기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년시절, 소년시절의 학습과 경험은 허드슨이 의료선교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처음 기도 내용과 같이, 아버지 제임스는 중국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중국 선교사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자주 중국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며 선교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허드슨은 15세가 되었을 때, 반즐리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의심 많고 물질 중심적인 세계에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 허드슨은 은행 동료들

### 중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

허드슨 테일러(J. Hudson Taylor)만큼 중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전통을 깨뜨리고 과감히 중국 복장을 입었으며, 교파를 뛰어넘어 팀을 이루어 사역하기도 하였다. 그가 당시 중국인들과 같이 기꺼이 낮아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목표를 위해 자기 방식을 버리고 다른 동역자들과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이 언제나 복음을 들고 새로운 미개척지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동기는 무모한 모험심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성취욕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으나 그것은 쉽지 않았으며, 도리어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 강한 내적 혼란을 겪었다. 그는 동료들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수적으로 교육받은 감리교 집안의 아이에게는 전혀 생소한 것들이었다. 그는 이제 기도도 그만두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했으며, 매사를 의심 많은 그의 동료들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허드슨은 눈병으로 인해 겨우 9개월 만에 은행 일을 그만 두어야만 했다. 이제 주변 세상에 대해서는 좀더 눈을 떴으나 자신이 믿던 바에 대해서는 확신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는 다시 아버지의 가게로 돌아와 일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의 침울함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가 수심에 잠기는 것을 보면 화를 내곤 하였지만, 어머니는 그를 깊이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연을 캐묻는 대신 은유함으로 허드슨을 대하였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 거듭남과 헌신

허드슨이 17세가 되었을 때, 오후의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그는 복음 소책자 한 권을 들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뒷마당의 낮은 창고로 가서 읽기 시작했다. 허드슨은 그 책자의 내용을 보며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 그분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허드슨은 반즐리의 그 창고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허드슨은 회심을 한 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간구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지 깨달았다. “나는 내가 전능자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 언약을 철 회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음성이 내게 ‘너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시간 이후로 내가 중국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가 중국 복음화의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이후로, 허드슨은 중국선교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대해 알기 시작했고, 그들은 허드슨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허드슨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비전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역사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다.

허드슨은 우선 창간호부터 계속 구독해 오던 〈중국협회〉의 총무 조지 피어스(George Pearse)에게 편지를 내서 〈중국협회〉의 사역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회보와 가입 신청서 그밖의 자료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반즐리 조합교회의 목사님이 인쇄업자 메드허스트가 쓴 『중국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책을 빌리기로 했다. 그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선교사들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 주실 것임을 믿었다. 즉,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확신이 그 당시에 적합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한편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중국어 공부에 아주 무서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었다. 당시 허드슨에게는 중국어 사전이나 문법책도 없었으며 단지 중국의 표준어인 만다린어로 된 누가 복음서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어 공부는 어느 선배 선교사의 말을 빌리면, “강철 같은 몸, 놋쇠 같은 혀, 참나무 같은 이마, 용수철 같은 손, 독수리 같은 눈, 사도들의 마음, 천사 같은 기억력 그리고 브두셀라 같은 수(壽)를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허드슨은 아침 5시에 일어나 공부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주 충실하며 적극적인 행동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다.

1851년, 〈중국회〉에서 발간하는 『글리너』지는 남자들이 중국으로 나갈 것을 호소했고, 특히 의학 지식이 있는 전도자들을 찾았다. 허드슨은 아버지의 약국에서 5년 동안 일한 덕분에 약조제에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립도 해야했고 의학 공부의 필요성도 느껴 의사 조수

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1851년 3월 21일부터 허드슨은 헐(Hull)에서 로버트 하디(Robert Hardy)의사 밑에서 조수일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기 위한 능력과 기회를 하나씩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고 허드슨은 그것에 순종했다.

그는 '위대한 모험의 준비 작업'을 위해 두 가지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당시의 중국은 자유스럽지 못한 나라였으므로 고생스러운 생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적은 비용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또한 그곳에서 허드슨은 언제 어디서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습득해 나갔다. 그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열병으로 죽은 한 남자의 해부 작업을 하다가 전날 밤 바늘에 손가락을 찔린 상처로 인해 악성 열병에 전염되었을 때에도 그는 주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 30여 분도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그의 의지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그에게 "자넨 이제 죽은 목숨이야.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해."라고 했지만, 허드슨은 "하지만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겐 중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어선 안됩니다. 그렇지만 열병이 맞다면 가서 주님을 만나 뵈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말이다.

### 중국에 내딛은 첫 발

허드슨이 21세 때, 드디어 중국 선교회의 대표로 중국으로 출항하여, 상하이(上海)에 도착했다. 당시는 태평천국의 난(1850-1864)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고 추위와 궁핍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런 중에도 중국 도착 2년 내에 열 번 이상 전도여행을 했고,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들 어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돌아오곤 했다.

허드슨은 다른 외국 선교사들과는 달리 중국 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중국 옷을

입었고 변발을 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유익이 있었다. 테일러를 지원하던 런던선교회가 선교사 봉급을 위해 빚을 지게 되자 사임을 하고 철저히 자신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의뢰하였다.

###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니이까?"

1855년 6월, 저장성(浙江省) Ningbo(寧波)에서 선교사 및 상인 공동체의 의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사로 일하면서 전도사역을 했다. 어느 날, 파커 의사의 조수로 있는 피터라고 불리는 젊은 중국인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의 일이다. 허드슨은 그 날 배부할 전도지와 책자들을 준비하느라 선실 안에 들어가 있었다. 피터는 하릴없이 배 주위를 왔다갔다 하다가 그만 배를 헛딘어 운하 속으로 머리가 곤두박질해 빠져버렸다. 물 밑은 낮았으나 깊은 진창에 처박혔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었다. 허드슨은 재빨리 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으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 주변에 있는 고깃배를 불렀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빠져어요."

"지금은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고기 잡느라고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고길랑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분 고기판 돈을 내가 다 책임지고 줄테니 빨리 오세요." 허드슨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돈은 얼마나 줄건데요?" 허드슨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과 한참을 협상을 한 후, 그들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터는 이미 죽어 있었다. 허드슨은 마음이 괴로웠다. 어쩌면 저 중국인들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나몰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냉혹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 허드슨은 깊은 절망감과 낭패감을 느꼈으며 중국선교를 포기하고 싶기까지 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내버려둔 채 가인처럼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말한다면 저 무심한 중국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며,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욱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858년 1월 20일, 허드슨은 Ningbo에서 미혼으

로 언니와 함께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마리 아라는 예쁜 아가씨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1859년 9월에 파커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물려 받아 병원일을 하였고 아편 중독자 사역도 하였다. 허드슨은 아편 중독자들에게 의학적인 처방보다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것이 아편 중독자 치유에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날 허드슨이 노천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다. 허드슨이 설교를 마치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영국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백 년 쯤 되었을 겁니다.” 당황한 허드슨은 두리뭉실하게 대답했다. “예?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에게 와서 전한다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20년도 넘게 진리를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죽었는데... 당신들은 왜 좀더 일찍 오지 않았나요?”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다.

1860년 여름, 허드슨과 마리아는 허드슨의 건강 약화로 중국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중단되었던 의학공부를 마쳤으며, 닝보어로 된 찬송가와 신약전서를 발간하였다. 그 외에도 여기저기에 중국에 관련된 글들을 썼다.

### ‘중국내륙선교회’ 창설



장승원 그림

허드슨은 벽에 커다란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수시로 그것을 쳐다보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수역의 사람들을 생각하곤 했다. “오늘 하루도 33,000명의 중국인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죽어갈 것이다.”

1864년 말부터 허드슨은 돌아갈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아직 복음이 이르지 못한 열한 개의 성(省)에 복음을 갖고 들어가려면 최소한 24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는 훈련된 24명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허드슨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초교파 중국 선교단체인 ‘중국내륙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를 창설하였다. CIM은 일체의 모금 운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정책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1866년 5월, 허드슨의 기도 응답으로 허드슨 부부와 사방 각처에서 온 최초의 중국 내륙 선교

사 29명이 중국행 배에 올랐다. 교단 파송 선교사밖에 없던 시절, 테일러의 '믿음선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모하게 보이는 것이었으나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실제 가운데 보여 주었다.

한편 CIM소속의 선교사들은 허드슨과 같이 모두 변발과 중국 복장을 입도록 하였다. 중국 복장 착용에 대한 허드슨 자신의 생각은 중국 문화에 대한 그의 깊은 존중과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그의 예리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아주 앞지르는 것이었으며, 현지 다른 선교사들과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허드슨은 딸 그레이스와 5살의 사무엘,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노엘,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리아를 중국 땅에 맡겼다.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지만 때마다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CIM사역은 잘 되어가고 있었다. CIM선교사들은 내륙 깊숙히 들어가 미개척지 성에 들어가 새 일터로 삼아 복음을 전했으며, 허드슨은 그들의 필요를 돕고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1871년 11월 허드슨은 제니 폴딩이라는 아가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 제니와의 결혼은 그동안 마리아로 인해 낙심해 있던 허드슨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사역에도 활기를 주었다. 한편 1876년에, CIM은 역사상 또 하나의 도전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내년 안으로 최소한 100명의 새 선교사"를 위한 기도였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허드슨은 확신 속에 그 일을 진행시켜나갔으며 CIM 식구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드디어 1877년 11월이 되어서는 2명의 협동 사역자가 포함된 102명의 전임 사역자가 중국으로 보내졌다.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하신 것이다.

중국과 영국을 오가며 바쁘게 32년을 CIM사역을 하는 동안, CIM은 이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허드슨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중국 선교에 헌신하게 하였다. 허드슨이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학생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중국 선교사

로 자신을 헌신하고 나섰으며, 헌금도 계속 쉬지 않고 들어왔다. CIM을 통해서 2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허드슨은 1888년 신년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사람에게 헌금을 호소하지 않을수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받는 모든 헌금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신령한 역사하심이 담겨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사역을 남다르게 축복스럽게 해주는 요소이며, 또 우리로 남다르게 계속하여 그분만을 의뢰하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행복한 자리를 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그의 고백들은 그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간 사람"

1800년 후반기에 전쟁이 빈번한 시기에도 중국 선교는 계속 진척이 되어갔다. 그래서 1895년에는 CIM의 총 멤버는 621명이 되었고 모두 122개의 주요 기지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90곳은 복음이 한번도 닿지 않았던 내륙 깊숙한 곳의 성(省)들이었다.

노년에 들어서도 허드슨은 계속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에나 몸이 늙었을 때에나 허드슨은 오직 일관된 한 가지 목표, 즉 중국 선교만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자기가 약할수록 주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았다.

1905년, 800여 명의 선교사들을 거느린 선교회의 총재 테일러는 마지막으로 중국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에서 그의 73세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그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간 사람."

#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 갈라서는 천만 쌍의 부부들

지슈오밍(紀碩鳴)



중국이 대외개발을 실시하면서 전통적 가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 12년 동안 천만 쌍의 가정이 파괴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혼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혼풍조를 막아보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만든 사람 중 여성이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남성이 80% 이상되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성추문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는 클린턴은 미국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대배심원단 앞에서 자백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미국 유선 방송 네트워크(cable news network)가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사람 중 70%가 클린턴이 비록 혼외정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진실을 밝히기만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법적으로도 문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지도자들의 혼외 성관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관용적인 태도는 중국대륙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서양 너머에 있는 중국 학술계와 법조계에서도 이 혼외 정사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근 북경에서는 이 혼외 성관계를 막음으로 이혼풍조를 막아보고자 법률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임시로 "혼인 가정법"으로 명명된 법률 초안에서는 쌍방 부부간에 "서로에게 충절을 다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해놓고 혼외 성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과오를 범한 한쪽이 이혼시에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의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동시에 부부가 3년간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의 하나로 보고 있다.

## 2분당 한 쌍이 이혼

개혁개방과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최근 20년 간 중국의 가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중국인들의 결혼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이혼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경의 국무원 민정부 발표에 따르면 96년 중국에서는 113만 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 이혼율이 1천명당 1.85명으로 2분 9초에 한쌍꼴로 이혼한 셈이 된다. 북경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60~70년대에는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식사하셨습니다가?” 인사를 했는데 80~90년대에는 만나면 “헤어지셨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 불과 85~90년의 5년 사이에 중국의 이혼자 수는 951만 여쌍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려할 만한 일은 이혼자체가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혼사유에 있다. 80년대 중국의 이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3자의 개입으로 가정이 파괴된 사례가 전체 이혼 사유중 네 번째를 차지, 전체 이혼 총수의 10%를 차지한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증가 일로에 있으며 혼외정사로 유발된 이혼은 80년대 초 이혼자 수의 14%를 차지하던 것이 80년대 말에는 40%로 급증했다. 혼외 성관계로 인해 매년 수십만의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다. 강서성 고등법원 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가장 주요한 이혼 사유는 개인 욕망추구와 혼외정사로 인한 가정 파괴라고 한다. 북경의 하급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97년 각 법원에서 심의처리했던 각종 민사소송중에서 이혼관련소송이 1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이더엔취(海澱區) 법원에서는 작년에 심의한 이혼소송이 전체 민사소송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혼외정사, 제3자 개입으로 부부 관계에 금이 간 경우가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 최신 유행이 되고있는 혼외정사

혼외정사나 외도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들끓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증가해가고 있다. 혼외정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가정이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고있지 못한 실정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외정사에 말려들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위로는 중공 중앙 정치국원인 천시통(陳希同)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권세와 재물 다음에는 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밥그릇 안의 것을 먹으며 술안 것도 탐낸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떤이는 심지어 “애인 하나 두는 사람은 인물, 애인 하나도 없는 사람은 폐물, 애인을 여럿 두는 사람은 동물”이라는 인생철학도 만들어 내고 있다.

근래들어 중국대륙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자 경제 여건도 개선되고 부유층도 증가하자 “따뜻하고 배부르면 욕정이 생긴다”라는 말을 연상하게 한다. 어떤이는 현재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승진, 돈벌이, 마누라가 죽는것”에 두고 있다. 중공 중앙의 당기풍 쇄신사무실, 민정부, 감찰부 내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대도시 처장급이상 관리들 중 청년간부들의 이혼률이 다른 계층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베이징(北京)은 32%, 상하이(上海)는 34%, 광저우(廣州)시는 32.5%로 이혼 수치는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한다. 이 통계자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외정사로 인해 이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빈번한 사고장, 오락장 출입을 통해 새로운 연인을 찾고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이다. 베이징에 있는 한 나이트 클럽에서 한 간부는 술을 마신 후 한 아가씨를 껴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가씨 손을 잡으면 내 마음이 떨리지, 애인 손을 잡으면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 오르지만, 마누라 손을 잡으면 왼손이 오른손 잡는 것처럼 아무 느낌도 없어”

결혼한 중년 관리와 막 열애 중이던 수치(蘇琦)는 본래 꾸이저우(貴州)성 산골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자기고향으로 직장을 발령받았다. 그러나 멋진 외부세계를 맛본 그녀는 한평생을 외진 산골짜기에서 보내기 싫어 광저우에 있는 한 대학원에 진학 하였으며, 그곳을 졸업한 후에는 선전(深圳)의 어느 큰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자, 이제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2년 전 한 연회석상에서 중국 처녀들의 이상형인, 대학을 졸업하고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흰철한 키의 북쪽 남자를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으로 부모의 강요로 고향마을 여성과 감정도 없는 결혼을 했으며, 이들 부부는 학력차이로 인해 대화의 공감대를 느끼지도 못하고 한 울타리 밑에서 사랑없이 10년간 생활하고 있는 것이 쭈치로 하여금 이 남자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 제3자냐, 늦은 사랑이냐?

쭈치는 자신의 출현을 구세주의 출현처럼 여기는 그와 날이 갈수록 정이 깊어져 마침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쭈치는 이 문제에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전처와 이혼하려고 하지만 부인이 죽어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사랑의 세계에 늦게 참여한 사람이에요. 제겐 사랑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쭈치는 자신이 제3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자라는 말 속에는 깎아내리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요. 저는 늦게 도착한 사람입니다. 늦게 온 사람 중 앞자리에 앉는 사

람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회의 변화와 인구 유동의 가속화는 혼외정사와 이혼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유동인구가 증가하자 노동자 취업률, 지식청년들의 도시진입, 외국 비즈니스맨의 진출 열, 출국 열기 등이 일어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이들 모두 이혼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광저우에서 발행하는 《남방주말(南方週末)》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광저우의 컴퓨터회사에서 일하는 리(李)는 자신이 광저우에서 5년간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와 아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허무하고 또 돌봐줄 사람도 없어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여자 동료와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결국 혼외정사까지 가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방송진행 담당자가 그가 만일 이후 두 여인 중 어떤 여인을 택하겠냐고 물으니 그는 주저없이 자기 아내를 선택하겠다고 대답했다. 진행자가 그 여자동료가 알게 되면 마음이 상하지 않겠느냐고 하니 뜻밖에도 그 여자친구가 옆에 있다가 전화에 대고 자기는 남자친구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행자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 남자친구를 사랑하기에 애정관계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 짧은 혼외관계가 부른 비극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는 저하늘 끝까지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단지 자기도 한 번 멋진 연애를 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들의 연애기간은 매우 짧다. 상하이(上海)에 사는 양위샤는 그녀의 유부남 애인과의 순간의 혼외관계를 가진 후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자신의 불분명한 신분 때문에 독심을 품고 남자의 아내와 딸에게 유산을 뿌려 아내를 중화상을 입고 양위샤 자신은 고의상해죄로 형장

의 이슬로 사라졌다.

광저우 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로 인한 가정폭력이 광저우시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광저우법원과 여성 연합회가 연합하여 '가정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처음 15일 동안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6명의 여성들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 동안, 광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은 고의적인 살인과 상해 사건 195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41건이 불법 성관계로 인한 것으로 2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다수의 혼외정사는 시작부터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 혼외정사 문제의 도전을 맞이해 난징(南京)에서는 수십명의 기혼여성들이 제3자 문제를 응징할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사회에 호소했다.

1996년 12월 70여 명의 인민 대표자들이 모두 현행 혼인법 개정을 촉구했다. 새 혼인법 초안을 기초한 사람 중의 한사람인 중국政法大学(政法大學) 교수 우창전(巫昌禎)은 아주주간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혼인법 개정안이 나온지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민정부에 위탁 초안을 만드는 데는 런민따쉐(人民大學), 베이징따쉐(北京大學)등 6명의 법률전문가들이 법률기초안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1년여 시간동안 수차례의 수정작업을 벌인 결과 현재 초고가 민정부로 넘겨졌고 마지막으로 인민대표자대회 법률 공작 위원회에서 원고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 법률초안이 대중매체에 소개되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률초안은 현행 중국 혼인법과 18년 사법 역사의 완결편이라고 평하면서 중국현실에 맞는 혼인가정법전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떤 사회학자는 이 평가를 수긍하지 않으면서 "이 개정법은 혼인관계 이외에도 자유로이 연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의미가 있으며 혼인이념의 후퇴"라고 말했다.우창전은 "수정된 혼인법은 법치개념 수립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혼인법을 정비한 것으로 친척관계, 혼인무효, 재산, 가족계획 방면에 공백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을 보충했다. 그러나 이혼법에 있어 사회적인 이견이 큼니다. "우창전은 이혼제도는 혼인제도에 있어 중요한 일부으로 연애, 혼인관계에 있어 자유분방을 초래하여 혼인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와 매년 상승하는 이혼율,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등 현행 중국의 혼인법에서 규정한 이혼법에 중대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이혼사유를 결정할 때 "부부 감정이 이미 깨어졌다."는 표현을 "혼인관계가 확실히 깨어졌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사례들을 예로 제시했다. 두번째는 부부간에 서로 충절의 의무를 다했는가를 확인하고 만일 이혼이 한쪽의 부정행위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면 잘못을 범한 한쪽에서는 마땅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세번째로 이혼 후 자녀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이다. 우창전 씨는 "법률에서는 서로



충절을 지킨다는 것을 부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외정사는 불법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일처제에서 나온 것으로 이혼을 억제하려는 목적은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도 현재 중국의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된다고 말하면서 "이익을 침해당하는 한 쪽은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곧 제정될 새 혼인법에 이혼 관련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이혼율을 낮추려는 시도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에 있는 사회과학원 사회학 연구소 부 연구원인 쉬안치 씨는 아주주간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혼에 제한을 가하지는 제안의 취지는 먼저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사회안정을 저해함으로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를 법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해 자유로운 이혼을 막자는 발상은 현대문명과 세계조류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매년 중국에서는 이혼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중국의 이혼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쉬안치 씨는 자유로운 이혼은 자유로운 혼인의 전제 조건으로 불가피한 보장조치라고 말한다. 이혼이 허용되는 유일한 기준은 부부간의 감정에 금이 간 것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안치씨는 현재 과실을 범한 쪽이 이혼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이혼판결이 난다고 하면서 이 반년이란 시간은 본인에게 이미 충분한 징벌이며 만일 그래도 끝까지 배우자와 화해하지 못하겠다면 계속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별거 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켜 천 일 동안 부부가 싸우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사자나 자녀 모두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라는 것이다. 쉬안치 씨는 만일 배우자가 끝까지 고집스레 다른

사람과 살고자 한다면 이혼 소송시에 상대방에게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혼인법 토론에 참여한 정파쉐위엔(政法學院)의 장시엔위(張賢鈺)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혼인관계에 있어 새로운 문제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현행 혼인법의 수정보완이 시급합니다. 90년대 이후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혼인법에 커다란 수정을 해오면서 혼인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간 경우를 이혼 허용의 사유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혼사유 조항에서 '감정에 금이 간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결혼관계가 분명히 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혼인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에서는 여지껏 법이 제정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례가 없었다고 말한다. 혼인법 논쟁은 실제적으로 중국 개혁의 가속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 발전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가 탐색해 보는 과정이며 또 3억이 넘는 가정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중국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가 혼인 논쟁을 보도하는 글이다. 혼인문제를 연구하는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여성이므로 혼인 가정법 초안 기초작업자 역시 여성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을 최종적으로 남성이 80%를 차지하는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의 토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법안 초안자와 입법 의결자 간의 입장이 일치할 지는 미지수이다.

출처: 亞洲週刊 35期 開放潮沖散千萬對鴛鴦

지슈오밍(紀頌鳴)/중국인  
번역 · 손바울 / 중국어문선교회 간사



# 중국의 몸부림

## 민주화를 향한

손바울

98년 10월 5일은 중국의 정치 민주화의 일보를 내디딘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 날 중국 정부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 국제 인권규약의 일부인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서명했다. 이 규약에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고문금지 및 자결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명 B규약이라고도 부른다. 친화순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중국정부를 대표해 이 규약에 서명하면서 "중국은 국내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 대사는 중국정부가 지난해 서명했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규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정부의 이러한 서명과 노력은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중국의 확고한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이 두 개의 국제조약은 76년에 조약을 제정해 현재 한국을 비롯한 140개 회원국이 이 규약을 비준한 바 있는데, 중국 내에서 이 조약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의 지도력과 체제의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이 조약의 비준이 쉽게 통과될 것 같지 않지만, 이를 근거로 그동안 지하에서 활동하던 민주화 세력들이 지면 위로 올라오고 뒤따라 지도부의 정치개혁도 수반될 수 있으므로 중국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중국 최초의 민주당 창당 설립

중국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의 당 창당 이념에 따라 어떠한 야당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당내에 민주파 인사라는 야당 인사들을 심어놓고 외형적인 야당의 모습을 갖추어 놓고

는 있지만 이것은 정식 야당이라기보다는 대외 선전용으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정당 설립 신청이 번번히 기각됐던 "중국 민주당"이 지난 11월 6일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전격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정부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동안 "야당 설립 절대불가"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 정보센터"에 의하면 대표적인 쉬원리(徐文立)를 비롯한 가오홍밍(高洪明), 차젠궈(查建國), 장후이(張暉), 류스준(劉世尊) 등 북경 내 반체제 인사들이 6일 북경 시내에서 극비리에 비밀회동을 갖고 중국민주당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회는 결정 직후 공고문을 통해 "21세기 초에 제1차 중국민주당 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중국정부가 최근 서명한 인권규약은 국민에게 정당을 조직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 내 법률에도 국민의 창당권을 금지한 규정이 없다"며 창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국적인 창당 분위기와 민주인사들 창당 움직임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창당 위원회가 결성된 지역으로는 저장(浙江), 산둥(山東), 후베이(湖北),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이다. 왕요우차이(王有才), 장징성(張京生)등이 주요 인물이며, 올 여름 왕요우차이를 중심으로 결성된 중국민주당은 중국의 7개 성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이는 중국 정계를 강타한 빅뉴스였다. 왜냐하면 1949년 중공정권이 성립된 이래 합법적인 수단을 써 여러 성(省)의 인사들이 연대해 발기모임을 갖고 설립한 중공 최초의 야당이기 때문이다.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왕요우차



이는 올해 32살로 저장성 항저우파쎈(杭州大學)와 베이징파쎈(北京大學)에서 수학한 엘리트 출신으로 항저우(杭州)에 있는 동방통신공사(東方通信公社)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는 89년 북경당국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은 21명의 민주화학생운동 지도자 중 서열 15위를 차지하는 핵심인물로 올 6월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발맞춰 저장성 민정청(民政廳)에 “중국민주당”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8월 7일 현지 공안당국으로부터 국가전복기도죄라는 명목으로 체포돼 구금된 적이 있다. 현재 그는 자택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 또 홍콩의 중국인권 민주운동 정보센터의 소식에 따르면 11월 11일에는 중국민주당 후난(湖南) 창당위원회가 결성을 선포하고 결성 당일 날 후난성(湖南省) 민정청에 등록신청서를 보냈다고 한다. 후난 민주당 창당위원회는 현재 수감 중에 있는 반체제 인사 장징성(張京生)을 명예위원으로 추대했는데, 그는 79년 후난성 “공화보” 편집 주필을 지내다가 4년형을 언도받고 89년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이때 13년 형을 언도받고 현재 후난성 제1감옥에 수감 중이다. 이 밖에 국외에서 중국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중국 인권 운동가로는 웨이징성(魏京生)이 있다. 중국 민주화운동의 기수인 웨이는 과거 18년 간 국가모반죄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의료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고문과 협박으로 몸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관한 저술을 남기며 열악한 중국의 인권 상황을 서방에 알렸다. 그는 유럽 순회방문을 통해 중국정부의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서구나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 건너 불 구경할 것이 아니라 무역제재 조치를 취해서라도 강경한 입장으로 중국의 인권개선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시비자로 뉴욕에 거주하던 웨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해 얼마전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가결했다. 웨이징성 외에도 천안문 민주운동의 주모자로 구금생활을 하다 미국 대학에서 유학생 생활을 시작한 왕단(王丹) 등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론과 행동을 갖춘 민주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 또다른 민주세력

왕요우차이나 웨이장성, 왕단과 같이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전면적 반대입장은 아니지만 제도권 안에서 온건한 민주화 바람을 불어넣는 무리들이 있다. 바로 66년 이후 10년 간 중국 대륙에 광란의 “인간개조” 작업에 참여한 문화대혁명 홍위병 세대들이다. 문화대혁명(문명개조운동) 당시 어린 10대 청소년들이었던 이들은 모택동이 주도한 홍위병에 가담해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의 네 가지 구시대적 유산 청산을 이유로 백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문화재 등 수만 채의 건물, 가옥들을 파괴한 무법분자였으며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기성세대로 성장한 이들은 과거 정치적 권력 다툼에 휘말려 이성없이 행한 자신들의 만행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중국의 매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의 활약은 정치권에서 두드러진다. 국무원 재정부 부부장인 러우지웨이 씨는 현재 나이 48세로 중고교 시절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에 참가, 사회공공의 참상을 목도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중국의 세금제도에 관한 최고전문가로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주도한 세금제도, 유가증권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개혁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다. 그는 개혁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과 개방으로 국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따라서 당의 정책을 경제적



실효성으로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언제든지 당에 반기를 들 것입니다” 이들 문화대혁명 세대들과 민주세대들 간에는 서로 간에 아무 정치적 연대감이나 이념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는 않지만, 고여 썩어 들어가고 있는 현 중국 지도부에 개혁의 바람을 불어 넣는 개혁 촉구자의 역할을 감당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손발이 맞지 않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금까지 정식으로 북경의 민정부나 현지당국에 창당준비위원회 설립 신청이 제출된 곳은 7개 성에 이른다. 이 중에서 9월 16일 이후 18명이 야당설립 신청을 이유로 당국에 체포되거나 구금당했다. 그러나 산둥성과 후베이성의 재야인사들이 처음 창당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당국에서는 창당신청을 즉각 기각시키지 않았다. 일단 접수, 받아들인 것이다. 처음 이 소식이 대만과 홍콩언론에 소개되자 각 언론매체들은 “중국 정부의 해금조치”, “중국 정부 야당설립 허용”, “중국 정치개혁의 돌풍”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야당설립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북경정부가 뉴욕에서 국제인권규약에 서명하자 일부 성 민주인사들은 규약에 규정된 대로 야당 신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 때 일부 지방 민정부 관계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 당황한 가운데 딱부러진 입장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며칠이 지나 중앙정부에서 정식으로 강경입장을 내보이자 지방정부도 지시대로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 49년 이후 중국에서는 수많은 지하당이 세워졌고 활동했지만, 결국은 모두 반혁명 집단이라는 죄목으로 주동자는 구속되고 조직은 와해되고 말았다. 일례로 95년 북경 베이징 어언학원(言語學院) 교사로 있었던 후스건(胡石根)은 중국민주당을 세우려다 20년 옥살이를 했다. 과거 중국정부는 민주인사들에 대해 대규모 색출, 체포, 처형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공갈협박, 회유, 위협 등은 밀한 조치로 방법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커

다란 변화는 아닐지라도 중국정부가 국제인권 조약에 가입한 것은 국제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어 취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민주당 창당으로 중앙정부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이 조약이 체결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위법규이자 세부규약인 의정서에 서명해야 하고, 이 의정서에 서명한 상태에서 그 나라 국민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침해 당사자나 주변인물들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즉각 투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투서를 받은 국제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국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해당국가는 6개월 이내에 처리 후 답변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들은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인권옹호 움직임과 국제 조류의 추세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 결론

올해는 반봉건체제에 반대하는 무술변법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때 작지만 민주화의 물결, 인권옹호의 움직임이 중국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쪽은 제도권에 반대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제도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화를 향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쉽게 타협하거나 물러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밀고 밀리는 줄다리기를 통해 중국의 민주화의 아침은 서서히 밝아 올 것이다.

\* 참고자료: 亞洲週刊 98년 10월호, 중앙일보 98년 10월 16일자, dsd today news world 11월 13일자

# 로마의 법이나 주님의 법이나?

석은혜

중국에 '입국문속(入國問俗)'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먼저 그곳의 풍습을 물어보라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베이징(北京)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중국인의 풍습(?)을 따르면서 몇 가지 느꼈던 갈등을 나누고자 한다. 이것은 나만의 갈등이 아니었고, 현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느꼈던 갈등이며, 또 앞으로 중국에 들어가 살 크리스천들이 느껴야 할 갈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에 정착할 때 한 사역자의 도움으로 중국 민간인들이 세놓은 집을 얻었다. 사실 이것은 중국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의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의 집 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로도 부득이한 일하기에 양심의 거리낌없이 그렇게 살았었다.

## 어디에서 환전을 해야 하나?

베이징에 살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나를 갈등케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 중 하나는 환전하는 일이었다. 정식으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면 당시 미화 100불당 인민폐 810위안(元) 정도를 받을 수 있으나 어언문화대학(語言文化大學) 옆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암달러상들에게 환전을 하면 830위안에서 840위안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곳에서 환전을 했다. 비싼 값으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은행에 가기 위해 시내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달러상이 전혀 암달러상 같지가 않았다. 그들은 가게 앞에 버젓하게 한국어로 '환전합니다' 라고 써서 붙여놓고 달러 장사를 하고 있었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었다. 특별하게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환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떤 한 사역자는 그것이 중국의 사회악을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환전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며 굳이 택시를 타고 시내 은행까지 가서 환전을 하곤 했다. 다른 한 사역자도 '우리가 이 땅에 빛을 전하러 왔는데 불법을 좇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사역자들만이라도 은행에서 환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또 다른 사역자에게 의사를 묻자 그는 다른 입장을 표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사느냐는 투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역자는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보내온 미화(US \$)를 찾을 때 처음부터 인민폐로 바꾸어 찾았다. 그럴 때는 직접 달러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환전할 때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로 약간의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편리함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이 암달러상을 이용해 환전을 했다.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이 암달러상에서 환전을 하고 있을 것이다.

## 병원에서 치료도 관시(關係)로?

내가 평소 하는 일이 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늘 어깨가 결리고 통증이 있었다. 이왕 한방이 발달하고 물가가 싼 중국에 온 김에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중의로 유명한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가면

일단 접수를 해야 하는데, 당시 접수비만 인민폐 50원(한화 7,500원)이었다.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은 더 비싸졌다고 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접수비가 중국인에 비해 4.5배나 더 비쌌다. 의사가 맥을 짚고 약을 처방하거나 침을 맞으면 다시 50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한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이 방법을 사용했다. 비록 일 주일에 두 번 맞는 침이라고는 하나 왕복 택시비(일반 버스를 사용할 경우 2번을 바꿔 타야 하고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았다)에다가 치료비까지 합하면 한국에서 보다 더 비싼 셈이다.

내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한국 분이 그 병원에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면서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 의사를 소개받은 후부터는 접수비를 내지 않고 직접 의사에게 찾아가서 침을 맞았다. 이렇게 하자 침 맞는 값 50원만 의사에게 주면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병원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관시(關係)'에 의해 이루어진 혜택(?)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나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 침을 맞는 순서도 기다리는 순번과는 상관없이 '관시'만 있으면 먼저 맞을 수 있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설 때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갈등을 겪어야 했다. 공식적인 병원 규정을 따르자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비싼 값을 내야하고, 남들처럼 '관시'를 이용해 병원 규정을 어기면서 싼값으로 치료를 받으니 마음이 개운치 않고...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몇 번 가다가 의사에게 인사조차도 못한 채 병원 발길을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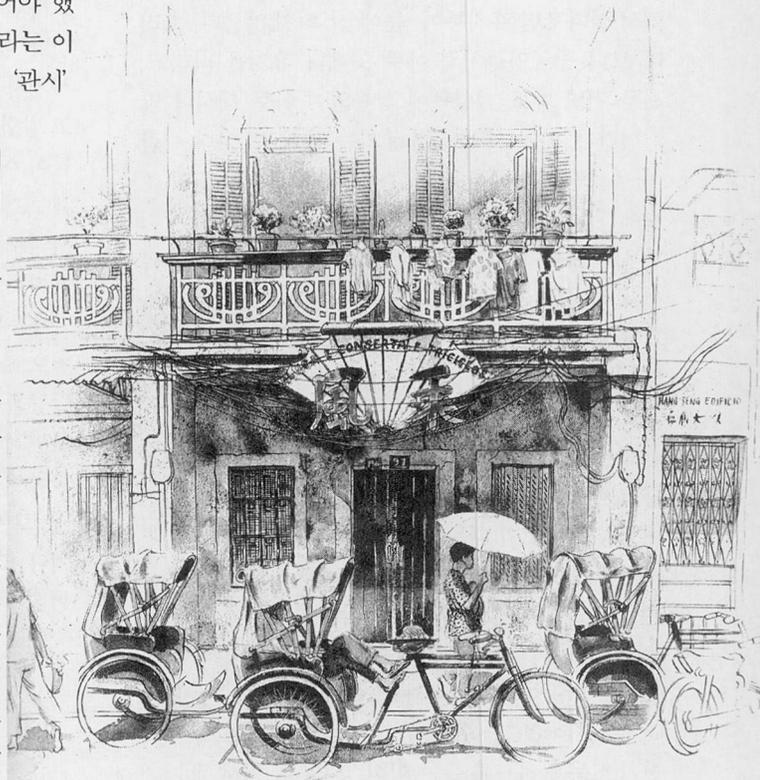
이 때 이 병원을 통해 중국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이 물질문명속에서도 철저히 사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들어온 치료비를 의사 혼자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평등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처음에 이런 사실을 모른 나는 그 의사에게만 치료비를 주어야 하는 줄 알고 의사가 자리에 없을 때는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자신에게 돈을 주고 가도 된다고 말해 의아해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해서 들어온 돈은 모았다가 나중에 서로 평등하게 분배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들

은 600~700위안(한화 10만원 가량) 정도의 월급을 받지만 이런 '회색수입'이 있기에 살아 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선 이런 종류의 불법이 근절되기가 어려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당신 신분은 무엇인가?

또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신분에 관한 문제다. '선교사'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런 저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 게다가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라며 자녀들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친다. 한 사역자는 자녀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뭘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어느 날 그 선교사의 자녀가 "아빠는 집에서 매일 뭐해?"라며 물어 보더라나.

어떤 한 서양 선교사는 "당신은 선교사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 한 것이 괴로워서 자진해서 철수했다고 한다. 한국인의 문화와 사고방식으로는 그 서양선교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자신의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중국에서 장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신분상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



게 속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대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없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중국 기차표 값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값이 달랐다. 그래서 여행길에 정당하게 비싼 외국인 표를 살 것인지, 아니면 싼 내국인 표를 살 것인지가 우리의 고민이었다. 그런데 1994년부터 기차표 값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해지면서 우리는 이 고민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문제는 암표였다. 중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 대부분 암표를 사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많이 시정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암표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구에서 표를 사서 어딘가를 가려고 한다면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에 이 암표를 구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

그리고 공중 도둑을 잘 지키지 않는 일이다. 중국에서 살다보면 휴지통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처럼 아무 곳이나 휴지를 버리고, 길을 건널 때도 건널목에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막 건너간다. 차가 사람을 피해 가는 사회, 법 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에서 우리도 중국인처럼 공중도덕 준수에 무디어져 간다. 우스운 이야기로 중국의 이러한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던 한 사역자가 한국에 와서도 건널목을 무시하고 아무 데서나 길을 건너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고 나서야 '아 지금 여기가 한국이었지' 라고 깨닫고는 사정사정해서 겨우 벌금을 면했다고 한다.

또 중국에서는 자전거를 자주 잃어버린다.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나서, 경제적인 이유와 또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고 자전거를 구하게 된다. 그런데 중고 자전거라는 것이 사실은 농촌에서 올라온 중국인들이 비교적 새 자전거를 훔쳐다가 다시 파는 것이다. 이 때 이 자전거를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갈등이다. 이런 자전거를 사지 않으면 새 자전거를 사야하고, 이런 자전거를 사 주면 그들이 자전거 도둑을 하도록 돕는 일이 된다. 나 역시 새 자전

거를 잃어버린 후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런 종류의 중고 자전거를 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명승고적을 여행할 때 외국인의 입장료는 내국인 입장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이다. 어떤 곳은 심지어 내국인 표에 비해 10배~20배가 비싸다.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 갈등을 느끼게 한다.

###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언젠가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살면서 위에 언급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식조사를 했었다. 그 결과 거의 85%가 중국 문화에 적응,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어떤 때는 난처한 경우가 있다.

어떤 사역자는 조선족 가정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발각되어 공안국에 끌려갔다. 그는 한사코 자신은 선교사가 아니라 장사하러 온 사람인데 우연히 기회가 되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것이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해 풀려났다고 간증했다.

이 간증에 대한 반응도 구구하다. 어떤 사역자는 선교하면서 부득이 하게 해야 하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역자는 '하얀 거짓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필자 역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지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튼 베이징에 사는 동안 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들이 있었다. 어떤 것은 중국 사회가 변화되기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를 위해 하루아침에 변화될 것 같지는 않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로마의 법이 주님의 법과 대치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고 나갈 신발이 없다?



방안 가득 널려 있는 신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설마 맨발로 신발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라는 것은 아니겠지?”라며  
 짜증을 내고 있는 여인. 물질로 만족을 얻으려고 물질만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중  
 국,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 1998년 중국의 10대 뉴스

## 1. 제9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조직 개편과 경제개혁 구체화

중국의 제9기 전인대 1차 회의가 3월 5일 개막, 2주간에 걸쳐 지도부 인사개편, 관료조직 개혁안 마련 등 주요 안건 처리를 마무리 하고 20일 폐막되었다. 중국의 국가 주석 및 중앙군사위 주석에 장쩌민(江澤民) 현 주석이 유임되고, 국가 부주석에 후진타오(胡錦濤) 정치국 상무위원을 새로 선출, 국무원 총리로 주룽지(朱鎔基) 부총리가 임명되고, 리펑(李鵬) 총리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주룽지 총리는 기존 국무원 내 40개 부서를 29개 부서로 축소하는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 내용을 발표했다. 전인대 회의가 금번에 특히 주목된 것은, 21세기 중국을 이끌어 갈 최고지도부를 정점으로 젊고 유능한 각 분야의 책임자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평가된다.

## 2. 중국 군(軍) 개혁 착수

중국은 지난해 9월 개최된 공산당 제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인민해방군 병력 50만 명의 감군에 착수했고, 군대의 효율성과 현대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7대 군구와 총 참모부, 총 정치부, 총 후군부 등 3총부로 이뤄져 있는 인민해방군의 기존 지휘편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미국식 군대편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현재의 대군구제를 개선, 육해공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규모 군 개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 3. 대홍수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발생

지난 6월 중순 이후로 중국 서남부, 중부 지역을 휩쓴 대규모 홍수로 국가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1천 7백억 위안(미화 2백 1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으며 2억 8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 홍수에 따른 사망자는 3천 4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40년 이래 최악의 홍수사태를 빚었던 양쯔강(陽子江)의 범람을 막기 위해 관리와 군민, 민간인 등 4백만 명을 동원해 제방쌓기 작업을 실시하고 홍수방지 시설을 점검하였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홍수까지 겹침으로써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치 8%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되었다.

## 4. 주택 사유화 정책 공개

중국 정부는 6월 17일 도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시장지향적 주택공급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이 개혁정책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오랜 관행이었던 공무원과 국유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주택배정 시스템이 폐지되고 신규주택 물량은 원칙적으로 임대나 판매편식으로 국민에게 배분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제도 아래서 장기간 실시해 온 주택 무상분배제도(福利分房)를 7월 1일을 기해 폐지하고 대신 주택 수당을 화폐로 지급하는 '주택분배 화폐화 제도'를 실시하였다.

## 5. 빌 클린턴 美대통령 중국 방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1989년 천안문사건 이래의 미·중 양국 간의 포괄적 협력의 시대를 열기로



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와 논의 내용은 중국 지도자들과 한반도 문제, 인도-파키스탄 핵무기 개발 경쟁 등 지역안보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 6. 중국회귀 1년 맞는 홍콩경제 회성

중국에 주권이 회귀된 지 1년을 맞는 홍콩의 경제가 실업률이 15년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더욱 암울한 상황에 빠졌다. 금년 1/4분기 중 국내총생산(GDP) 하락폭은 지난해 4/4분기의 플러스 2.7% 성장에서 대폭 후퇴한 지난 10년 사이 최악의 수준이다. 또한 실업은 지난 15년 사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들어 관광부문 매출도 20%이상 위축되었다.

#### 7. 선교활동 제한하는 종교법 제정

중국은 지방행정조직 차원의 종교조례를 발표, '종교사무조례'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부 인정 외의 외국인의 선교활동을 제한, 전면 금지했다. 특기할 것은 올해 실시된 광저우(廣州)시와 지린(吉林)성 사무조례에는 조례를 위반하고 종교활동을 진행했을 경우, 인민폐로 최저 500위안(한화 8만 5천원)에서 최고 5만 위안(한화 850만원)까지의 벌금을 내는 등 정부의 제지, 추방, 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게 되었다.

#### 8. 인터넷 시장 폭발적 증가

중국에 인터넷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현재 인터넷 사용자는 매년 100% 이상의 폭발적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연합네트워크 정보중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작년 10월의 62만명 보다 2배가 증가한 117만 5천명에 이르고 전세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64%가 증가한 54만 2천대 라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01년에 가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7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쯤이면 세계 최대의 전자정보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9.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국민 방문

지난 8월 24일로 한중 수교 6주년을 맞아 11월에 이루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중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의 계기로 새로운 좌표가 그려졌다. 김대중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이나 공동커뮤니케 등의 문서를 통해 양국간의 '21세기를 향한 선린·우호·협력관계'로 진입, 그동안 축적한 상호 신뢰와 실리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모색하였다.

#### 10. 올해 개혁개방 돌입 20주년

중국 공산당은 지난 12월 18일 사회주의식 시장경제 이론을 내세워 개혁개방을 결정한 제11기 중앙위 3차 전체회의의 개막 20주년을 맞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다. 장쩌민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는 이 기념식에 참석, 개혁개방의 당위성을 재삼 강조하고 중국의 진로를 밝히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

## 종교

### 중국경찰, 가정교회 신도 140명 체포

중국경찰이 최근 140여 명의 가정교회 신자들을 체포했다고 뉴욕의 중국 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위원회의 데이비드 장 대변인은 지난 11월 5일과 26일 중국 하남성의 난양시와 류완마을에 있는 가정교회에 경찰이 들이닥쳐 예배를 드리고 있던 신자 14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중 적어도 13명이 가정교회 지도자이며 체포된 신자 대부분이 감옥에서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한다.

(국민 98.11.12)

### 북한 대북선교에 냉담한 반응... 교계, 새 틀 모색

북한이 남한 종교계의 북한 내 선교활동에 잇따라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북선교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북한이 남한 종교단체들의 공격적 '북한행'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선교활동에 경고를 해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변과기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김 총장 추방 이유로 ▲자유주의의념 전파 ▲중국식 개혁개방 유도 ▲기독교

교 전파 등을 내세웠다고 한다.(조선 98.11.26)

## 정치·군사·외교

### "중국 국유기업 내년부터 특혜 폐지"

주룽지 총리는 1999년 초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국무원은 최근 주총리의 지시로 국유기업에 특혜를 주고 사기업에 제한을 가한 종전 관행들을 일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사기업 발전을 격려하고 지도하기 위한 지침'이란 제목의 문건을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신문이 전했다.(조선 98.10.25)

### 러 국방부 "中國은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러시아는 중국을 오는 21세기의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러시아 참모본부 작전국장 유리 발루예프스키 대장이 밝혔다. 발루예프스키 대장은 이고르 세르게예프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은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겨레 98.11.5)

### 중국, 국가기관기업 민간이양 전담기구 설치

중국은 인민해방군, 사법 기관들이 운영해온 업체들의 민간이양을 감독할 전담기구로 '국가군·무장경찰 사법기업 이양 관공실'을 설치했다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 대변인이 밝혔다.

(조선 98.11.6)

### 클린턴, 달라이 라마와 전격 회동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만나 중국과 티베트 간 대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중·미 정상회담 결과와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 등에 관해 설명했다고 회담 후 달라이 라마가 밝혔다.

(조선 98.11.11)

### 미-중국, 대만문제 갈등 고조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티베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이베이(臺北)를 방문한 빌 리처드슨 미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미국과 대만 간 각료 교환 방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대만문제를 둘러

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동아 98.11.12)

### 러·중 정상회담…공동선언 2개 채택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장  
쩌민(江澤民) 국가주석 간 비공식  
회담이 지난 11월 23일 옐친 대통  
령이 폐렴으로 입원 중인 중앙병  
원에서 열렸다. 장 주석은 이날  
모스크바 북쪽 교외에 위치한 중  
앙병원을 방문, 옐친대통령과 ‘비  
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러·중 정  
치선언’과 ‘서부국경 획정’ 등에  
관한 2가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고 러시아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  
다.  
(조선 98.11.23)

### 장쩌민 방일…중일 과거사 문제 타결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말 일본을 국빈방문 했다.  
이번 장 주석의 방일은 94년 미국  
과 러시아가 ‘성숙한 전략적 동반  
자관계’를 선언한 이후 미국 러시  
아 일본 중국 등 4대 강국간에 연  
이어 진행돼 온 연쇄 정상외교의  
완결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조선 98.11.25)

### 중일, 정상회담 후 서명 없는 공 동선언 발표

중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  
러싼 입장차로 장쩌민(江澤民) 국  
가주석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정상회담 후 양국은 이번 중국 국  
가원수의 첫 국빈일을 계기로 과  
거사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  
에 따라 그동안 조정을 계속해왔

다. 그러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 표현을 놓고 끝까지 양측의  
주장이 대립, 결국 양국 정상  
의 서명없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98.11.26)

### 베이징, 2001년 하계 유니버시아 드 유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2001년 하  
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선정  
됐다. 대학 1천여 개, 학생수 3백  
40만 명의 중국은 이 대회를 위해  
6천여명의 선수 및 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촌을 새롭게 지을 예  
정이다. 한편 1999년 하계 유니버  
시아드는 스페인 팔마에서 7월 3  
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조선 98.11.30)

### 중국 당정, 기업서 손뎌다. 내년 부터 개혁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 공산당과  
각 행정부처에 대해 이들 당정기  
관이 관할하는 기업과의 관계를  
내년부터 완전 단절할 것을 지시  
했다고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의  
일요판 ‘비즈니스 위클리’가 보  
도했다.  
(조선 98.11.30)

## 경제

### 외채 1년새 16% 급증…국제금융 계 “우려”

중국의 외채가 지난 1년새 두 자  
리 숫자(%)로 급증해 국제 금융계  
에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외채가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인 작년 6월  
말 현재 미화 1,186억 4천만 달러

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1,379억 6  
천만 달러로 집계돼 16.3%가 늘어  
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조선 98.10.30)

중국, 투신사 최고 70% 정리할듯  
중국은 곧 공포할 새 법에 따라 자  
국 투자신탁회사의 최고 70%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위있  
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코  
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EIU)보고서가 전망했다.  
(조선 98.11.14)

중국, 인민은행 대대적 구조조정  
관영 신화통신은 원자바오(溫家  
寶) 부총리의 말을 인용해 “인민  
은행의 기존지점들을 모두 폐쇄  
하고 대신 9개 지역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화  
는 대표사무소가 텐진, 선양, 상하  
이, 난징, 지난, 우한, 광저우, 청  
두 및 시안에 설치된다고 밝혔고,  
베이징과 충칭은 인민은행이 직  
접 통제한다고 덧붙였다.  
(조선 98.11.17)

### 중국, 아시아 국가들에 55억 달 러 지원

중국은 IMF나 양자 채널을 통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  
들에 모두 55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기로 했다고 당귀창(唐國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당귀창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경제지원은  
“금융위기의 악화를 막고 위기 탈  
출을 돕기 위해 중국이 취한 중요  
한 기여”라고 말하고 지원금에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제공하는 10  
억 달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화 98.11.18)

### 향후 10년 간 평균 7% 성장 목표

중국은 향후 10년 간 연평균 7%의 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순정위 대외무역경제합작부부장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오는 2천년까지 1조2천억 달러 이상을 여러 부문에 투자할 계획임을 상기시키면서 재원으로 국내 저축 등이 사용될 것이나 “상당부분 외자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수출이 오는 2000년 4천억 달러에 달하며 2010년까지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 98.11.20)

### 중국, 4개도시 지하철 건설에 72억달러 투입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중국의 20여 도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철과 경철도 건설에 관한 중앙정부의 허가를 요청해놓고 있다고 관영 상해증권보가 보도했다. 이 건설계획은 이미 지하철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하철 공사에 착수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등 4개 도시에서만 향후 10년 동안 6백억 위안(72억 달러)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 98.11.18)

## 사회

### 베이징, 어린이 보호 위해 컴퓨터 게임 금지

중국 베이징 시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문화와 여가시설 내에서 컴퓨터게

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문화부는 인터넷 카페 등 대중에게 컴퓨터훈련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를 설치해 놓은 모든 시설에 대해 컴퓨터게임을 전면 금지토록 명령하는 한편 위반시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 98.10.15)

### 베이징, 자전거 통근 첫 제재 움직임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자전거 통근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자전거가 많은 도시로 알려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전거 없는 거리’가 선포되는 등 자전거 통근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베이징 경찰은 이번주 폭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에 굴복, 동시쓰따제(東西四大街)를 ‘자전거 없는 거리’로 선포하고 승용차 노선을 한 개 더 늘렸다고 보도했다. (조선 98.10.23)

### 천안문광장 7개월 간 보수공사

지난 89년 중국 민주화운동의 주무대였던 텐안문(天安門) 광장이 내년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앞두고 보수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말까지 앞으로 7개월간 문을 닫는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공사기간 중 시멘트로 포장된 광장 바닥이 화강암으로 바뀌고 조명시설과 분수대도 손보게 될 것이라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동아 98.10.31)

‘중국’ 에이즈 감염자 급속 확산 중국의 에이즈가 이미 ‘급속한 성

장기’로 들어서 실제 감염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의 확산추세를 막지 못하면 2000년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85년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이래, 올 9월 말까지 1만 1,170건의 감염사례가 보고됐으며, 그 중 에이즈 환자는 338건, 사망자는 184건이 보고됐다. (조선 98.11.6)

### 바람 피우면 강제노동

중국에서 가장 개방된 도시에 속하는 광저우(廣州)시는 건전한 결혼생활을 권장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바람 피우는 남성들을 강제노역시키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혼 남성이 내연의 처와 동거하거나 생활비를 대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 98.11.6)

### 중국서 북한여성 인신매매 조직 범죄화

지린(吉林)성을 비롯한 중국의 일부 동북지방에서는 최근 밀입국한 북한여성들을 유인 납치해 농촌 총각들의 색시감 등으로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 조직범죄단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서 입수된 현지 신문 보도와 소식통들의 말에 따르면 지린성 연변(延邊) 연지(延吉)시 공안당국은 지난 8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3개월 동안 모두 21명의 밀입국 북한여성들을 팔아 넘긴 조직범죄단 일당 5명을 최근 검거했다. (동아 98.11.18)

## 베이징 "투자회사 폐쇄 피해 보상 하라" 이례적 시위

지난 11월 11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심가에 보기 드문 시위대가 등장했다. 200여 명이 3시간 동안 도심을 행진한 이날 시위는 '지난 89년 천안문사태 이래 가장 대담한 시위였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시위는 베이징의 투자회사 '신국대'에 자금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시위대로 변한 것이다. 회사는 당초 투자자들에게 월 30%의 이율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으나, 타이완 국적의 이 회사 책임자는 돈만 챙기고 지난 8월 회사문을 닫아버려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선 98.11.19)

## 중국, 남서부 연쇄지진으로 1천6백여 명 부상

중국 남서부에서 연쇄 지진이 일어나 2명이 목숨을 잃고, 1천6백여 명이 부상했다고 중국 국가지진국이 밝혔다. 지진으로 통신이 두절, 고립됐던 쓰촨성 옌위엔 자치현에서 밤새 부상자들이 속출, 부상자수가 하루 만에 2백여 명이 나 늘어났다.  
(조선 98.11.21)

## 베이징 법원 재판 내달부터 일반에 공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각급 법원의 재판이 12월달부터 일반인과 언론에 공개된다고 중국관영 차이나 데일리지가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베이징 고등인민법원(BHPC)이 중국 사법체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무회의를 개최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동아 98.11.21)

## 중국, 높이 35m 세계최대 불상 건립

중국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려 24만 1천 달러(약 3억 원)를 들여 세계 최대의 불상을 건립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서부 간쑤(甘肅)성 산단 현의 1천5백년된 사찰 경내에 35m 높이에 금박을 입힌 가부좌 불상을 건립했는데 "불교계"는 이 불상을 세계최대로 평가했다.  
(조선 98.11.24)

## 중국 산아제한정책 변경, 임신허가제 등 없애기로

세계에서 악명 높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낙태 등 강제적 방법에서 다양한 성교육과 경제적 제재 등 보다 유연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산아정책의 여러 폐단을 없애기 위해 중국 가족계획위원회는 쿼터제와 임신허가제를 없앨 계획. 자녀 수와 임신 시기를 가정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진다.  
(중앙 98.11.25)

## 중국, 밀레니엄 맞아 대규모 합동 결혼식 계획

약 2천 명의 중국인, 해외 화교, 외국인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을 맞아 1999년 12월 31일 베이징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그 밖에 중국 전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합동 결혼식이 동시에 치뤄질 예정이라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지가 보도했다. 합동결혼식은 中華

전국부녀 연합회, 중국 부녀자 센터, 중국국가 단결-우의 협회 등이 조직한 것이며 수백명의 명사와 적어도 1백 명의 성(省)정부 지도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 98.11.28)

## 사유재산권 인정 헌법개정 착수

중국은 사유재산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베이징 당국은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일부 도입한 후 지난 20여년간에 걸쳐 나타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제3차 헌법 개정 착수했다.  
(조선 98.11.30)

## 한·중관계

### 아남전자, 중국 광둥성 오디오공장 준공

아남전자(주)는 중국 광둥(廣東)성 동관(東莞)시에 연산 50만 대 규모의 수출 전문 오디오 공장을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두 4백만 달러를 투자, 약 1년 7개월 만에 완공한 아남전자 중국 공장은 아남전자가 수주한 티악(TEAC)사의 리시버와 독일 켈레사의 미니컴포 및 하이컴포, 미국 웰튼의 리시버, 카세트데크 등을 생산하게 된다고 이 회사는 말했다.  
(조선 98.11.5)

### 조선족 심장병 어린이 순천향병원서

무료수술 중국 연변 조선족 3세들 중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순천향병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지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됐

다. 순천향병원은 선천성심장병을 앓고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현지의 불충분한 의료시설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국 연변의 조선족 심장병 어린이들 3명을 초청, 무료로 수술해 주었다. (국민 98.11.7)

### 태평양, 중국 심양 '아모레 미용문화원' 인기

태평양이 지난달 초 중국 선양(瀋陽)시에 개설한 '아모레 미용문화원'이 화장기법을 배우려는 중국 여성들로 매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 1층 판매점, 2층 제품시용장으로 이뤄진 미용문화원에서는 메이크업 전문요원이 상주, 고객들에게 화장품 선택요령을 안내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 98.11.11)

**'한·중 어업협정' 베이징서 가서명**  
한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방중에 맞춰 양국간 어업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공식발표했다. 양국은 제7차 어업실무협상을 열어 배타적 어업수역과 잠정수역의 폭등 핵심쟁점을 일괄 타결짓고,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지난 93년 이후 5년 간 끌여온 어업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조선 98.11.11)

### 재외동포 특례법 대상서 중국조선족 제외키로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 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제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동포 특례법 제정

을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이에 반대하는 외교통상부가 최근 중국 조선족은 별도의 시행령을 뒤 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선 98.11.12)

### 韓·中 건설업체, 양쯔강 교량사업 합작추진

양쯔(揚子)강 교량건설 등 중국이 추진중인 6개 대규모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와 중국 건설업체간 합작으로 추진되고 양국 건설업체의 제3국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된다. (조선 98.11.12)

### 한·중 산업교류 전면확대 합의

한·중 양국은 자동차 부품-HDTV(고화질 TV)-ATM(전전자교환기)-항공기 등 4개 부문에 국한된 산업 교류를 내년부터 전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에너지-정보통신-항공-전자 등 주요 산업과 첨단 지식산업의 기술교류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하고, 자동차부품-석탄 등의 수출입이 늘어들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 98.11.12)

### 삼보컴퓨터, 중국에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

삼보컴퓨터가 중국 선양시와 합작, 선양에 10만평 규모의 컴퓨터 종합생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삼보컴퓨터 이용태(李龍兌)회장과 모수신(慕綬新)선양시장은 서울 여의도 삼보컴퓨터 본사에서 대규모 컴퓨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한·중투자 의향서 조인식을 가졌다. (경향 98.11.13)

**한·중정상, 12개항 공동성명 발표**  
한중 양국은 13일 두나라 관계를 선린우호협력단계에서 '21세기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켜 다방면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는 12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선 98.11.13)

### 김대중 "한중합작 중국기반산업 구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상하이(上海) 신금강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인 초청 연설에서 "한국의 산업기술 능력과 완전 자립한 원전기술 능력, 초고속통신망을 비롯한 정보통신분야 기술력은 한·중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기술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 98.11.14)

### 한-홍콩, 형사사법공조협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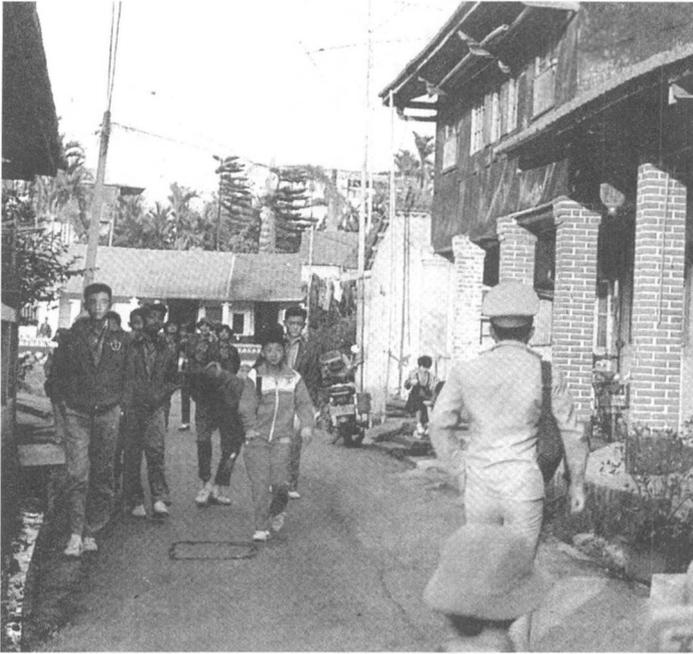
신두병 주홍콩 총영사와 레지나 입 홍콩 보안국장은 홍콩에서 '한-홍콩간 형사사법공조협정'에 서명했다. 체결된 형사사법공조협정은 ▲형사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절차 공조 ▲범죄인의 소재확인 문서송달 증거취득 수색-압수 요청이나 증언에 협조 ▲주권 안전보장 공공질서를 해하는 경우와 정치적 성격의 범죄 및 군법상의 범죄 공조거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98.11.15)

# 어떻게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중국에 나가려고 언어를 준비하고 있는 한 자매입니다. 저는 중국학교를 위해 중국 사람 중 헌신된 남자 크리스천을 만나 결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자 측의 호구(戶口)를 따르기 때문에 중국인과 결혼해도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하면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호구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학교의 비전을 가지고 언어를 준비하고 있는 자매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중 학교 이후 중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여자와 결혼한 중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최근 한국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인과 결혼만 하면 쉽게 중국 국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국적을 얻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중국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 중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중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류증'을 가지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공안국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국 여성과 외국 남자가 결혼했을 경우 아이까지 낳았다 하더라도 외국인 남자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추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중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쉽지



중국 호구제도의 개편으로 이제 자녀의 호구는 부모의 희망에 따라 부친이나 모친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않습니다.

중국의 호구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호구' 라는 말은 우리 나라의 호적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원래 중국은 결혼을 하면 여성 측의 호구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도시에 사는 남자가 농촌에 사는 여자와 결혼하면 농촌 호구를 갖게 되기 때문에 결혼 조건 중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이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어머니의 호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호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만약 남편이 직업을 따라 외지에 거주하게 될 경우 남편은 '임시 거류증'을 소지하게 되지만, 부인과 아이는 호구가 없기 때문에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 유동을 막는 역할을 해 왔지만, 이 때문에 많은 가

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을 기해 중국 국무원에서는 현행 호적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公安부의 건의를 승인하는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모의 희망에 따라 자녀의 호구는 부친이나 모친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다른 지방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도시의 호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의탁하려는 노인이나 도시에 투자, 회사 설립, 또는 상품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에게 도시호구를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이 통지는 장기간 호구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농촌 여성도 도시호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호적 관리상의 문제점이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완전히 해결하기는 불가능 할 듯합니다.

이번 호구제도 개혁은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요지부동'한 것에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원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남녀구분 없이 중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면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55개 소수민족은 숫적으로는 불과 10%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 소수민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호에는 원난성의 소수민족 중 두릉족(獨龍)족과 지닝(基諾)족을 다루었다. 현지 사역자가 전하는 생생한 정보를 통해 선교지 상황을 이해하고,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윈난성의 소수민족(VI)

### 두룽(獨龍)족과 지너(基諾)족



#### 두룽(獨龍)족

**인구:** 약 6천명(1990년 통계). 중국에서는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지만 미얀마에 더 많은 수가 살고 있다.

**분포:** 중국 윈난성(雲南省) 누장주(怒江州) 궁산현(貢山縣)의 두룽강(獨龍江) 양안(90%)과 북부의 누강(怒江) 양안(10%)에 주로 살고 있다.

**언어:** 궁산현(貢山縣) 안에 4개의 두룽족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제1, 제2, 제3촌의 언어는 대부분 같으나, 제4촌의 언어가 약간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며, 궁산현의 누족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문자:** 본래 문자가 없었는데, 1950년대 초기 선교사가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했었다. 이 문자는 소수의 기독교 신자들만 알고 있었다가, 후에 이 문자를 기초로 병음문자를 만들어서 1984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 민족이름의 유래

두룽족은 본래 통일된 이름이 없었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이나 강의 이름 등을 사용하여 부르곤 했다. 두룽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사는 사람들은 “두룽(dulong)”이라고 불렀고, 디마강(迪麻江)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디마((dima)”라고 불렀다. 리쭈족(傈僳族)은 그들을 가리켜 “치우파(傈扒 qiupa)”라 하였고, 한족(漢族)은 “치우즈(傈子 qiuzi)”, 또는 “취즈(曲子 quzi)”라고 불렀다. 1950년대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이름인 “두룽”으로 통일했다.

## 민족역사

공산현의 4개 촌에 있는 두룽족은 누강 지역의 누족과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의 풍습이나 언어는 상당 부분이 같고, 의사소통에도 커다란 장애를 느끼지 않는다.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를 알 수는 없어, 전설을 근거로 하여 알아볼 수밖에 없다. 아주 오래 전에는 누강을 중심으로 하여 아주 넓은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혈연혼, 남매혼, 모계 사회 등의 과정을 겪어 왔다. 이런 역사 속에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 습관도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시간이 흘러서 인구가 많아지고 부락을 형성하게 되고 씨족이 생기게 되자, 씨족이나 부락간에 싸움이 빈번하게 되고 패배하는 민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때 이주하는 씨족은 강을 중심으로 하여 정착하게 되는데, 그 강의 이름을 자기들의 씨족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통일된 민족의 이름도 없었고, 커다란 한 민족을 이룰 수도 없었다.

1950년 이후에 중국정부에서는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이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해 두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4개의 행정구역(촌)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주요절기: 카취와제(卡雀哇節, 11월 또는 12월)

두룽족의 유일한 절기로 '신년'에 해당하지만 정해진 날이 없고, 각 마을에서 스스로 기간을



두룽족 젊은이

정하여 지낸다. 이 절기 동안 각 가정마다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기며, 사람들은 각자 지닌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술과 고기로 잔치를 한다. 절기의 활동 중에 절정에 해당하는 것은 '파오니우(剽牛)'라는 것이다. 소를 묶어 놓고 대나무 창으로 소의 급소를 찔러 죽이는 것인데, 이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소를 찌르기 전에 노래와 춤으로 즐긴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가정의 평안과 농사의 풍년을 보장하고 가축도 번성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제: 주로 농사를 짓지만, 농업이 발달하지 못해 커다란 수입원이 되지 못하고, 사냥과 식물 채집에 의존한다. 그리고 대부분 강가에 거주하



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한다. 농사는 화전(火田)이 위주이고, 옥수수와 감자, 콩 등을 주로 심는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가정용품이나 공구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

**건축:**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동굴 생활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두롱족이 사는 가옥은 장방형으로 크고 길게 지은 집으로 그 안에서 대가족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가정이 늘면 방을 하나 더 늘려 붙여서 크게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가족 생활을 한다.

한 집 안에 가정을 구분하는 것은 온돌(火塘)을 보면 알 수 있다. 장방형의 가옥 속에 온돌이 몇 개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한 가옥에 몇 가정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복장:** 옛날에는 옷이라기 보다는 그저 천으로 왼쪽 어깨를 가리면서 몸을 둘러 옷을 대신했으며, 이렇게 둘러뒀던 천은 밤에 이불로 사용했다. 본래 전통복장이라고 할만한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현대적인 간편한 옷을 입는다.

두롱족의 큰 특징은 여자들이 얼굴에 문신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도 문신을 한 얼굴을 볼 수 있고, 두롱족이라 하면 얼굴에 문신을 한 여자를 떠올리게 되곤 한다.

**음식:** 농업위주의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옥수수나 감자 등을 농사지어 먹는 외에 산이나 들에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채집해서 먹는 편이다. 음식은 국수를 만들어 볶아 먹거나 죽을 끓여서 먹는다. 일반적으로 농사법도 발달하지 못했고, 환경의 영향도 있어서 양식이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술을 좋아해서 평소 먹는 음식 분량의 곡식이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므로 양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루에 두끼만 먹고 산다.

**결혼:** 두롱족은 씨족을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가족이 한 집 안에 거하는 대가족제인데, 결혼은 가족 밖에서 배우자를 찾는다. 마을 안에 젊은 남녀들이 자유롭게 연애했

수 있는 ‘공방(公房)’이 있어, 이 곳을 찾아간다. 이들의 성생활은 질서가 없어서 결혼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혼전의 성생활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유산은 막내에게 물려주는 습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에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젊은 남녀가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자기의 배우자를 찾는데 부모는 거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장례:** 두롱족의 장례법은 토장, 수장, 화장 등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토장을 주로 행한다. 임산부가 난산 중 죽어도 토장을 한다.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죽었을 때에만 수장이나 화장을 한다. 토장을 할 경우 모든 시체의 머리가 북으로 향하게 하고 동쪽을 보게 하여 묻는다. 그 이유는 두롱족의 조상이 동쪽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습관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

화장을 할 경우에는 나무를 탑의 형태로 쌓고 시체를 위에 올려놓은 뒤에 불을 붙여 태운다. 탈 때에는 잘 타도록 주위에 불을 만져주고 완전하게 다 타고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잔재들은 방치해둔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위로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체를 만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술, 계란, 곡식 등을 갖고 와서 장례의 일을 돕는다.

**금기:** 두롱족은 금기가 많은 편이다. 사람이 죽은 후 다음날, 즉 매장하는 날에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 아이를 낳을 때에는 절대로 방에서 낳지 않고 밖에서 낳은 후에 몸을 씻겨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또 친정집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것도 금하고 있다.

무당이 혼이 있다고 말한 지역에서는 누구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일하다가 뱀이 나와 뱀을 죽였다면 잠시 일을 하지 않고 쉰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뱀이 온다고 생각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성의 앞을 지나가면 안 되고 뒤로 돌아



두룽족의 소잡기 행사



얼굴에 문신을 하고있는 두룽족의 여인들

서 지나가야 한다.

**종교:** 두룽족의 전통종교는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자연을 숭배하는 원시적인 종교이다. 두룽족은 하늘에 수많은 혼이 있는데, 그 혼을 “나무(納木)”라고 부르며 땅의 혼을 다스린다고 여긴다. 두룽족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는 무당이 주관하는데, 이 무당을 “나무사(納木薩)”라고 부른다. “사(薩)”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서 곧 ‘나무(納木)의 도움을 입은 사람’ 또는 ‘나무(納木)의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 무당은 계승을 하거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納木)가 어떤 사람의 몸에 임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두룽족(獨龍族)의 사회에서 무당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두룽족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9개의 혼이 몸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 9개의 혼 중에 어떤 하나가 몸을 떠나면 몸이 불편해지고, 여러 개의 혼이 떠나면 몸이 병을 얻으며 많은 수가 떠날수록 몸의 병은 더욱 중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병이 나면 무당을 불러서 혼을 불러오는 곳을 한다. 혼을 많이 불러와야 병이

빨리 낫는다고 여긴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몸에 있던 모든 혼은 사라지게 되고, 사람이 변해서 영이 되는데, 이 영은 자연계에 있는 혼과 구분하고 ‘아시(阿席)’라고 부른다. 이 ‘아시’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만큼의 시간 동안만 존재하다가 남자는 파란색, 또는 하얀색의 나비로 변하고, 여자는 여러 색의 나비로 변했다가 나비가 죽으면 영도 함께 사라진다.

두룽족의 사고 속에는 자연계의 모든 혼은 사람을 돕거나 보호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원시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민족치고 두룽족은 조상을 숭배하지는 않는다.

**기독교:** 이 내용은 다른 어떤 자료들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 국경 내에 있는 두룽족 중에 제일 먼저 목사가 된 ‘이리야(伊里亞)’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두룽강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30년대였는데, 윈난성 누강주 궁산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미국 선교사 모일스



(莫爾斯) 부부였다. 모얼스 선교사는 본래 현재 쓰촨성(四川省)의 파당(巴塘)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장족(藏族)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민족 종교인 라마교를 믿고 있어서 전도하려다 문제가 발생해서 견디지 못하고 미안마로 도망을 하던 중에 궁산현에 있는 두룽족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두룽족의 도움으로 두룽강을 건너 미안마에 도착했다. 1935년에 모얼스 선교사는 국민당 정부가 발행한 선교허가증을 갖고 다시 두룽강 지역으로 왔다. 첫 번째 지역에서는 정착하지 못했지만 두룽강 지역에서는 점차로 교회도 짓고, 전도도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로 복음전파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빠르고 쉽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선교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경을 배우고 온 이웃민족인 리쑤족, 누족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점차로 발전하게 되자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은 마파(瑪拏), 교회 관리인은 미뤄파(密洛拏)라 하며, 미즈파(密支拏)는 교회당 관리를 맡는 등 직분을 두어 일을 분담하게 했다.

중국에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궁산현에 약 3,000명의 신자와 2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민족 사회 속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의 기록은 잠시 중단되었고, 중국 정부가 개방정책을 펼친 이후에 교회들이 복구되었는데, 어떤 통계자료에는 두룽족의 85%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고, 어떤 자료는 25%라고 하기도 하는 등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 그것은 이 지역이 조사하기에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다른 종교를 갖는 것처럼 종교적인 등록만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리쑤족의 전도인이 두룽

족에게 가서 전도하며 도와주는 일이 있다고 들었으나 그 전도인을 만나 보지는 못했다.

### 두룽족의 지역에 가려면

두룽족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려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외부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 홍콩, 베이징, 상하이로 경유하여 쿤밍(昆明)에 도착, 쿤밍에서 리우쿠(六庫)까지 버스로 약 16시간을 간다. 리우쿠에서 다시 버스로 약 8시간 걸려 궁산에 도착하면, 궁산에서부터는 다른 교통편이 없고 가장 가까운 두룽족 마을까지 3일을 걸어서 가야 한다. 물론 가는 길에는 노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식과 장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룽족 지역에는 먹을 것이 적기 때문에 방문한 사람이 가지고 갔던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 기도제목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가는 교통편이 어려워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자들이 나오기 힘들다.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두룽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인 리쑤족 전도인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두룽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시도록.

### 참고서적

1. 云南簡史, 云南人民出版社.
2. 中華民族, 華夏出版社.
3. 中國少數民族禁忌大觀, 廣西民族出版社.
4. 中國少數民族宗教概覽, 中央民族出版社.
5. 云南宗教概況, 云南大學出版社.
6. 西南少數民族風俗志, 中國民間文藝出版社.
7. 中國少數民族節會大觀, 江西教育出版社.
8. 云南少數民族生葬誌, 云南民族出版社
9. 貢山文史資料(第1輯), 政協貢山獨龍族怒族自治縣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10. 怒江文史資料選輯(上), 政協怒江州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11. 高黎貢山的脚印, 云南民族出版社.



## 지뉘(基諾)족

**인구:** 1만 8천 명이 약간 넘는다(1992년 통계).  
**분포:** 중국 윈난성 시쌍판나(西雙版納)의 지뉘산(基諾山)과 부위엔산(補遠山)에 살고 있다.

**언어:** 인구는 적은 민족이지만 두 가지의 방언 여우러(攸樂), 부위엔(補遠)이 있는데, 지뉘산일대에서 사용하는 여우러 방언이 주요 언어로 90%정도의 인구가 이 언어를 사용한다. 부위엔 방언은 10%정도의 인구가 사용하는데, 두 방언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 민족은 교육과정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와 한어(漢語)를 함께 배우며 사용한다.

**문자:** 본래 문자는 없었고, 1983년 라틴자모를 기초로 해서 병음법으로 만들어내긴 했으나 아직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실용성을 시험하는 단계에 있다.

### 민족 이름의 유래

지뉘족(基諾族)은 1979년 9월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소수민족이다. 본래 자기들이 부르던 이름을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또 다른 이름은 '여우러'라고도 부른다. '지(基)'는 외삼촌이라는 의미이고, '뉘(諾)'는

후대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은 합쳐서 외삼촌을 매우 존중하는 민족이다라는 의미도 있다. 아무튼 이런 이름이 모계중심사회를 형성했었던 흔적을 보여주며, 또 그 시기가 길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민족역사

민족의 역사는 몇 가지의 전설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문자로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사인지는 아직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전설에 의하면 지뉘족(基諾族)의 조상이 거주하던 곳은 본래 지뉘산(基諾山)이 아니고, 지뉘산 부근의 주어지에산(卓杰山)의 산등성이었다. 차츰 환경에 의해 이주하여 거주하게 된 곳이 지뉘산으로, 그 산을 지뉘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게 된 것이다. 지뉘족은 혈연사회시기에 모계 중심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살았었고, 약 2~300년 전에 부계중심사회로 전환을 하였는데, 점차로 생산력의 발전함에 따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첫 계단에 발을 딛게 되었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이 지뉘족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청조(淸朝)시대 부터였는데, 직접 관을 세우고 병사를 파견하여 다스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렇지만 청(淸)정부가 다이족(倭族) 세습추장인 '투스(土司)'를 파견하여 다스린 시간은 너무 길었다. 투스는 매년 지뉘족에게 일정한 양의 곡식을 바치도록 했다. 따라서 지뉘족의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1940년대 중화민국 시절에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많아서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1941년부터 1943년 사이에 지뉘족이 봉기하여 생산력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전체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 짧은 역사 속에서 이들은 외부세력에 의한 어려움이 계속되어 왔다.

## 주요절기

### 1) 터모체(特毛切)

터모체는 지뉘족이 신년을 지키는 절기로서 정해진 날이 없으며 다티에제(打鐵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어떤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뱃속에 9년 9개월 동안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갈빗대가 있는 옆구리가 심하게 아프더니 뱃속의 아이가 갈비뼈 7개를 물어뜯고 스스로 나오는데, 남자 아이였다. 이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 한 손에 쇠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불집계를 들고 나왔다. 이 아이는 나오자마자 "탕탕탕" 가지고 나온 것을 두드리서 칼도 만들고, 호미, 쟁이 등 농기구들을 만들어 냈다. 지뉘족은 이때부터 철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날을 '다티에제'라고 부르며 신년으로 지키게 되었다.

지뉘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인 다티에제는 음력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지키게 되는데, 마을마다 지키는 시간들이 다르다. 각 마을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을들이 있는데, 먼저 이 마을들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아들 마을에서 지키게 된다. 마을의 장로들이 농사의 일정을 참고하여 절기의 시간을 정하고 또 마을 행사들도 결정을 한다.

절기가 시작되면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커다

란 나무북을 두드리며 신년을 알리고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두드린다. 이 나무북은 평상시에는 "취바(卓巴-마을의 아버지)", "취성(卓生-마을의 어머니)"의 집에 보관하는데, 절대로 누구도 만질 수 없다.

나무북에 얽힌 전설을 보면 아주 오래 전 산까지 잠기는 홍수가 있었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남매인 남자 아이 마리(瑪里)와 여자 아이 마시(瑪細)만 살아 남았다. 이 남매는 커다란 나무북 속에 들어가서 나무북과 함께 7일 동안 표류하다가 닿은 곳이 여우리산(攸樂山)이었고, 홍수는 차츰 물러갔다고 한다. 이 남매가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지뉘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들은 나무북을 신성하게 여긴다.

### 2) 지따롱(祭大龍)

지따롱은 지뉘족의 시조 중 여인을 기념하는 날로서 일반적으로 6월에 3일 정도 지킨다. 이 시조는 지뉘족이 거하는 지역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데, 이 시조가 죽자 지뉘족은 13일 동안 그를 추모하였다. 이 절기는 이 여인 시조가 죽은 것을 추모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다. 이 날은 모든 마을 사람들의 외출을 금하고,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가서도 안 되며, 마을 안에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춘다든지 큰 소리로 떠들어서도 안 된다. 이는 시조를 무시하는 행위로 지뉘족의 풍속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행위들로 간주한다.

### 3) 신미제(新米節)

중국의 서남민족들 중에는 이 신미제를 지키는 민족들이 많다. 오래 전 지뉘족은 깊은 산 속에 살면서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심어먹을 곡식도 없었다. 그들은 사냥과 야생식물들을 채집하는 등 원시적인 생활을 해나갔다. 어느 날 한 마리의 개가 매우 먼 곳으로부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곡식을 물고 왔다. 한 노인이 보고는 개가



일반적인 개와 다른 것을 발견하고는 한편으로는 개를 기르면서 한편으로는 산둥성이에 개가 가져온 곡식을 심었다. 이때부터 지뉘족은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에 이 신미제를 지키게 되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면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두고, 닭을 담은 광주리를 메고,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과 은전 등이 담겨있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들고 밭으로 간다. 밭에서 갈대상자를 흔들면서 곡식의 혼을 부른다. 밭에서 곡식의 혼을 부른 뒤 집으로 돌아갈 때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뒤를 돌아보면 곡식의 혼이 부끄러워서 주인과 함께 곡식 창고까지 갈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해의 수확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번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꽃을 이쁘게 꽃은 벗겨놓는 길에 놓고 간다. 집에 도착하면 닭과 돼지를 잡고 닭의 머리와 돼지의 머리를 곡식창고의 문에 걸어서 곡식의 혼에게 준다. 곧 내년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 때 젊은이들은 산에 가서 이웃 마을의 젊은이들과 대가(對歌)를 부르며 일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기도 한다.

**경제:** 지뉘족은 옥수수과 콩 등 밭농사를 주로 짓는데, 아직도 화전(火田)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열대 과일과 차잎, 고무 등도 최근 들어 경제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사 이외에 남자는 부업으로 사냥을 하거나 대나무 제품을 만들고, 부녀들은 옷감을 짜거나 야생식물들을

채집한다.

**건축:** 지뉘족의 방은 대나무를 사용하고, 짙은 지붕을 얹어서 2층으로 만든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2층이고 1층은 사방의 벽이 없다. 1층에는 농기구 등을 놓아두거나 가축을 기르는 장소로 사용된다. 2층의 방은 여래 개를 만들어 노인, 부부, 자녀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손님을 위한 방까지도 만든다.

지뉘족이 거주하는 곳은 비교적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을 새로 짓게 되면 꼭 제사를 지내고 이웃들이 함께 축하하는 등 좋은 일로 여기고 즐겁게 지낸다.

**복장:** 남자들이 입는 상의는 꽃을 수놓은 천으로 소매가를 두른 것이 없는 흰색의 마로 만든 옷을 입고, 하의는 흰색, 또는 푸른색의 긴바지를 입는다. 여자들이 입는 상의는 화려하게 수놓은 천으로 장식된 것이 없는 옷을 입고, 하의는 붉은색으로 테를 두른 검은색 짧은치마로서 앞이 트여 있고, 겹쳐있는 형태이다. 근래에 들어서 긴 치마도 입고, 다리를 천이나 끈으로 두르기도 한다. 머리에는 흰색 두꺼운 마로 만든 피라미드 형태의 모자를 쓴다. 남자나 여자 모두가 귀에 구멍을 내는데, 구멍이 클수록 아름답다고 여긴다.

**음식:** 주식은 쌀과 옥수수이고, 찹쌀은 주로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한다. 채소들은 심어서 먹기도 하지만 야생식물들이 많아서 채소를 대신하기도 한다. 이들은 음식을 할 때 대부분 찢어서 만든다. 그래서 이들은 “한족(漢族)은 볶아서 먹고, 다이족(傣族)은 양념을 찍어서 먹고, 지뉘족은 찢어서 먹는다.”고 말한다. 이들의 음식은 맵고, 짜고, 시게 먹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필자가 갔을 때에도 특별한 민족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다.



**결혼:** 지뉘족은 15, 16살이 되면 성년식을 행하는데, 이 성년식을 거쳐야 연애를 할 수 있게 된다. 연애는 자유롭게 하고 부모는 일반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필히 외삼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참고, 민족이름의 유래).

지뉘족의 결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새내혼(塞內婚)-마을 내에서 하는 결혼으로서, 한 마을에 살면서 씨족이 다르거나 가족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마을 밖에서는 배우자를 찾지 않았었으나 지금은 점차로 개방되어 가고 있다.

2) 족외혼(族外婚)-한 씨족 안에서는 배우자를 찾지 않는 것이 통례였으나 지금은 예외도 나타나고 있다.

3) 혼전동거-지뉘족에게 있어서 혼전동거는 관례였다. 혼전동거의 기간은 반년에서 2년까지인데,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자가 혼전 아이를 낳아도 전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가 책임지고 기르게 된다. 최근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0살 이하의 청년들의 72%가 혼전동거를 반대했고, 그 중에 60%가 여자들이었다.

4)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혼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이혼은 양쪽의 외삼촌이 참석하여 주관하고, 재산은 반분하며, 아이는 엄마 쪽에서 양육하게 되는데, 이혼한 여자는 자기의 본래의 집으로 가서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마을의 규례가 엄격한 곳은 이혼율이 비교적 낮고 마을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은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 지뉘족의 장례풍습 중에는 수장제가 일부 남아 있다. 약간의 생산공구와 의류 등을 함께 수장한다. 노인이 죽었을 경우에는 시체를 집에 두는 동안 그의 옆에 부채와 수건을 놓는다. 그 의미는 사자(死者)가 길을 가는 동안 땀을 닦고 식히면서 가라는 것이다.

만약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아들은 당일

에 삭발을 하고 몸에 있는 모든 장식품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3개월 안에 모자 등을 써도 안된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는 “군링부(滾靈布)”라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것은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출상을 할 때는 쌀을 뿌리고 총을 쏘아서 귀신을 쫓는다. 하관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직접 돌아가지 않고, 풀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발자국을 지운다. 만약 발자국이 남으면 귀신이 발자국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해서도 직접 들어가지 않고 집을 한바퀴 돌고 난 후에야 집으로 들어간다.

지뉘족은 모든 마을마다 공동묘지를 갖고 있는데, 이 묘지는 마음대로 확장할 수 없고, 중병을 앓았다거나 비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공동묘지에 묻힐 수가 없다.

**금기:** 지뉘족은 결혼과 관계된 금기가 비교적 많다. 신랑과 신부의 생일과 쌍방 부모의 기일에 결혼을 해서는 안되며, 7과 9가 들어가는 날(7, 17, 27, 9, 19, 29일)과 매월 15일 이후는 피한다. 그리고 남자가 19살인 해와 여자가 17살인 해는 결혼을 할 수 없다. 지뉘족은 남자는 9자를 금하고, 여자는 7자를 금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2층에서 낳을 수 없다. 대부분 아래층의 찻잎을 말리는 방을 이용하



거나 양식창고에서 출산을 한다. 분만이 끝난 후어나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산모는 한달 동안 고기 종류를 먹을 수 없고 오직 야채와 물고기만 먹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난지 꼭 한 달이 되는 날 아기의 부모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야채나 사냥한 동물을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외부인은 절대로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불길한 것들이기 때문이며 해가 지면 이런 금기가 해제된다.

**종교:** 지뉘족은 만물에 영이 있다고 믿으며, 조상과 자연을 숭배하는 원시적인 종교를 갖고 있다. 집안에서 섬기는 신은 아버지의 조상을 섬긴다. 마을의 신은 마을 장로의 부계조상을 섬긴다. 지뉘족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생활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귀신이 있는데, 신과 귀신, 선인 등을 구분하는 개념이 없고, 모든 섬기는 대상을 “나이(乃-일종의 귀신)”라고 부른다.

지뉘족은 일생 동안 여러 번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번은 자신의 배우자와 하고, 그 나머지는 수시로 귀신과 한다고 생각한다. 농사의 각종 절기, 새해를 맞을 때, 결혼, 장례, 출생 등 모든 일에 제사가 우선한다. 지뉘족은 “다리우(達溜-갈대 또는 대나무로 만든 6각형의 접시)”와 생각이 나쁜 귀신을 쫓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제사활동에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 어떤 집에서는 집의 문밖에 걸어두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한다.

###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미전도족속이며, 인구가 소수라는 조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족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잘 알려지지 않은 민족이다. 중국 사람들도 지뉘족을 말하면 이 민족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사람들이 50%를 넘는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민족으로 느껴지지만 지뉘족이 갖고 있는 홍수의 전설을 노아시대의 홍

수와 비교하여 접근하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지뉘족의 지역에 가려면

지뉘족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려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은 외부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문시에 인원을 최대한 소수로 해야 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요한다.

한국에서 홍콩, 베이징, 상하이를 경유하여 쿤밍에 도착. 쿤밍에서 버스로 대략 22시간, 비행기로 1시간 걸려 징홍(景洪)에, 징홍에서 다시 버스로 약 3시간 가면 명양(勐養), 명양에서 지뉘산까지 용달, 뽕차 등을 타고 향(鄉) 정부가 있는 지뉘향(基諾鄉)까지 가서 깊은 마을들은 다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길을 잘 알 경우에는 명양에서 차를 임대해서 직접 산 속에 있는 마을들을 방문할 수도 있다.

### 기도제목

1. 최근에 이들의 이웃민족이며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족인 다이족 신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 복음의 영향이 이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2. 인구가 적어 이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자들이 나오기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복음전도자를 세우시고, 이 사역지를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시도록.

### 참고서적

1. 云南簡史, 云南人民出版社.
2. 中華民族, 華夏出版社.
3. 中國少數民族禁忌大觀, 廣西民族出版社.
4. 中國少數民族宗教概覽, 中央民族出版社.
5. 云南宗教概況, 云南大學出版社.
6. 西南少數民族風俗志, 中國民間文藝出版社.
7. 中國少數民族節會大觀, 江西教育出版社.
8. 基諾族簡史, 云南人民出版社.
9. 基諾族風俗志, 中央民族學院出版社.

중국어 기도문

## 謝飯禱告(식사 기도문)

### Xiè fàn dǎogào

天父，我們感謝你。因為你將萬物厚賜給我們享用，我們也爲着你給我們健康的身體向你獻上感謝，現在是用餐時間。求你潔淨桌上的飲食，讓我們吃了能有力量爲你工作。求你紀念準備植物的同工們的辛勞，賜福給他們。如此禱告奉主耶穌基督的聖名。阿們。

(Tiānfù, wǒmen gǎnxiè nǐ. Yīnwèi nǐ jiāng wànwù hòucì gěi wǒmen xiǎngyòng, wǒmen yě wèizhe nǐ gěi wǒmen jiànkāng de shēntǐ xiàng nǐ xiànshàng gǎnxiè, xiànzài shì yòngcān shíjiān. Qiú nǐ jiējìng zhuōshàng de yǐnshí, ràng wǒmen chī le néng yǒu lìliang wèi nǐ gōngzuò. Qiú nǐ jìniàn zǔnbèi shíwù de tóngōngmen de xīnláo, cì fú gěi tāmen. Rúcí dǎogào fèng zhǔ Yēsū jīdū de shèngmíng. Amen.)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후히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식사시간인데, 정갈한 식탁의 음식을 먹고 우리들이 주의 일을 위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음식을 준비한 동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 罪与救恩 (죄와 구원의 은혜)



A: 圣经上说, 世上没有义人, 你认为你是罪人吗?

shènjīng shàng shuō shì shàng méi yǒu yì rén nǐ rèn wéi nǐ shì zuì rén ma  
(성경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B: 是。(네)

shì

A: 每个人天天都犯罪。但是其中最大的罪是不依靠神。

měi gè rén tiān tiān dōu fàn zuì dàn shì qí zhōng zuì dà de zuì shì bù xìn kǎo shén  
(사람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B: 罪的结果是什么呢?

zuì de jié guǒ shì shén me ne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A: 神说, 罪的代价是死亡。

shén shuō zuì de dài jià shì sǐ wáng  
(“죄의 값은 사망이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B: 那么, 怎么样才能够解决罪的问题呢?

nǎ me zěn me yàng cái néng jiě jué zuì de wèn tí ne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지요?)

A: 靠我们自己不法解决罪的问题。只有耶稣解除我们的罪, 赐给我们永生。

kào wǒ men zì jǐ bù fǎ jiě jué zuì de wèn tí zhǐ yǒu yē sū jiě chú wǒ men de zuì cì gěi wǒ měn yǒng shēng  
(우리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가 없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B: 这是真的真理的话, 我想相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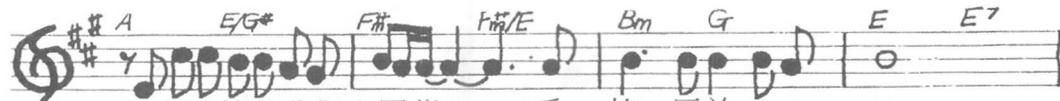
zhè shì zhēn de zhēn lǐ de huà wǒ xiǎng xiāng xìn  
(그 영생이 참 진리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 부흥(复兴)

♩ =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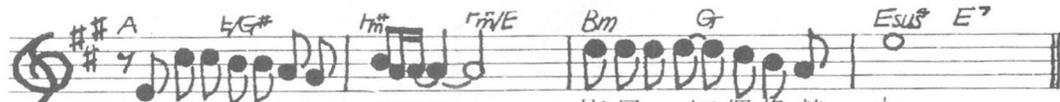
看这地百姓的心灵苦干 天上的父-神 守约施慈爱怜悯的主  
 kàn zhè dì bǎi xìng dī xīn líng kǔ gǎn tiān shàng dī fù shén shǒu yuē shī cí ài lián mǐn dī zhǔ  
 칸 저 디바이싱 디션링 쿠간 텐상 디 푸 셴 서우웨 스 츠아이 렌민 디 주



恳求祢赦免我们众罪孽 垂怜医治这土地  
 kěn qiú nǐ shè miǎn wǒ men zhòng zuì niè chuí lián yī zhì zhè tǔ dì  
 컨취우니셔 멘 위먼중쭈이니에 추이 렌 이즈 저 투 디



如今我们在主里合为同心合意建造 圣城倒塌的根-基  
 rú jīn wǒ men zài zhǔ lǐ hé wéi yì tóng xīn hé yì jiàn zào shèng chéng dǎo tā dī gēn jī  
 루 진 위먼짜이 주 리 허웨이이 통 썬 허이 젠 자오 성 청다오 타 디 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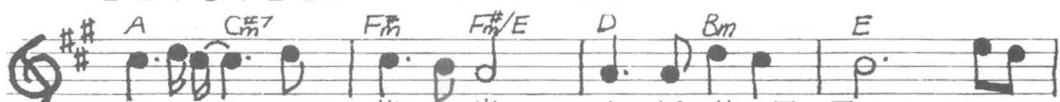
但愿圣灵的火从天而降 烧尽一切偶像势力  
 dàn yuàn shèng líng dī huǒ cóng tiān ér jiàng shāo jìn yī qiè ǒu xiàng shì lì  
 단위엔 성링 디화 총텐 얼지앙 샤오진 이체어우 샹 스 리



求复兴的火不断更新这土地 真理的话语不断更新这土地  
 qiú fù xīng dī huǒ bù duàn gēng xīn zhè tǔ dì zhēn lǐ dī huà yǔ bù duàn gēng xīn zhè tǔ dì  
 지우푸생 디화 부뚜안갱썬저투 디 전리 디화 위부뚜안갱썬저투 디



恩典的江河潺潺涌流不息 愿主的圣灵如风吹起 哦-  
 ēn diǎn dī jiāng hé chán chán yǒng liú bù xī yuàn zhǔ dī shèng líng rú fēng chuī qǐ  
 언덴디 장허 찬 찬용 리우부시 웬주 디 성링 루평 추이치 오



求主赐下荣-光 全新的日子 哦-  
 qiú zhǔ cì xià róng guāng quán xīn dī rì zǐ  
 치우주 츠 샤 룡 광 취엔 썬 디 르 즈 오



愿主国度早日 早日降 临  
 yuàn zhǔ guó dù zǎo rì zǎo rì jiàng lín  
 윈 주 귀 두 자오 르 자오 르 장 린

이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입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땅에 임하소서

중국에 유학한 이래 필자는 회계학을 전공한 관계로 일부 유학생이나 교민들로부터 중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관한 문의를 자주 받곤 한다. 이에 그동안의 경험과 평소 중국 회계학 관련 인사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계사 시험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응시 과목〉

회계학, 회계 감사, 재무관리, 세법, 경제법 등 모두 5과목이다. 다만 과거의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과목이 추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응시 일자〉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보통 매년 4월에 등록을 하고 9월에 시험을 치른다.

### 〈응시 비용〉

중국인은 전과목에 300위안(元=약 4만 7천원, 96년 기준)이나 외국인의 경우는 과목당 80달러 씩으로 전과목에 400달러(96년 기준)나 필요하다. 따라서 전과목 합격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과목을 잘 선택해 응시하는 것이 좋다.

### 〈응시 장소〉

96년 실시 당시 외국인 응시자 수는 약 2천 2백 명으로 홍콩, 마카오, 타이완(臺灣), 일본, 미국 및 동남아 국가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 약 1천 8백 명이 중국 남부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시험 장소 또한 선전(深圳)이나 주하이(珠海) 등 남부 소재도시에서 실시됐다.

### 〈합격 여부〉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한 수준(점수)에 도달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된다. 즉, 3년 이내에 전과목을 통과하면 합격된다. 이는 미국 시험과 비슷한 제도로서 한국과는 시험 과목과 방법 등에서 다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공인 회계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중국은 미국의 1인당 회계사 비율을 고려하고 있음) 앞으로 당분간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

고로, 97년 말 현재 중국 전체의 등록된 공인회계사는 약 14만 명에 달하며 그중 현업 종사자는 약 6만 7천 명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지난 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확정한 이후 기업의 소유구조와 법적 지위에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째, 소유구조상으로 과거의 국유 위주에서 현재는 사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기업과 더불어 집체 기업, 3자기업(합작 기업, 합자 기업 및 외국 독자 기업), 사영 기업, 개체 기업 등이 모두 경제주체인 것이다.

둘째, 기업의 법적 지위상으로 과거의 불완전한(제한적인 경영권과 소유권) 경제실체에서 이제는 독립적인 경제실체로서 경제행위를 하게 되었다. 즉 공사법(公司法)의 제정 실시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제 기업이나 유한책임 회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며 기업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투자자, 채권자, 정부, 세무당국, 소비자 및 기타 잠재적인 투자자 등)가 과거에 비해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회계사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기업의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며 기업 구조 전환의 목표는 현대 기업제도의 확립에 있다. 또 현대 기업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그 제도적 장치로서 기업 회계 기준의 수립이 필연적이다.

지난 93년 '기업재무통칙' 과 '기업회계준칙' 이 제정 실시된 이후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매년 공시하는 것이 기업의 법적 의무가 되었으며 이는 바로 회계인, 특히 공인 회계사의 역할이 필요해진 근본적인 근거이다.

이상식(李相直) / 인민대학 회계학 박사연구생

##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지금은 선교를 바로 해야 할 때! 한국은 전세계 130여 개국에 7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4위의 선교사 파송국이다.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회 선교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승삼 목사(총신대 선교대학원 원장)는 이 책에서 바른 선교행정이나 정책, 전략 없이 열심과 욕심이 앞섰던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하고, 선교사 파송 정책, 위기 관리 정책, 평신도·전문인 선교 정책, 재정 정책, 안식년 정책, 미전도종족 선교정책, 선교사 자녀교육 정책, 단기선교 정책, 외국인 근로자 선교정책 등 여러 부분에서 “정책 있는 선교”를 제시하고 있다.

생명의 말씀사 펴냄, 강승삼 지음, 272면, 7,500원

## 신세대를 위한 선교 길라잡이



이 책은, 선교 전반에 관한 다양한 원리와 비결을 통해 선교 사역의 목적과 동기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 저자는 선교사들을 훈련하거나 세계 도처에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귀중한 조언, 격려, 유용한 정보들과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활기차고 재미있게 제시한다.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나 국내 선교부에서 일하며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던 선교 전반의 다양한 원리와 비결이 이 책의 곳곳에서 튀어나오면서도 균형이 잡혀 있어 매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다. 작지만 알찬 이 책이 한국 교회의 선교적 잠재력을 동력화하고, 헌신된 선교사 후보생들을 올바르게 준비시킬 것이다.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펴냄, 스티븐 코크로저 지음, 김종호 옮김, 272면, 7,500원

## 폴 쉐로우의 중국기행

폴 쉐로우 지음 · 세계순 옮김 · 656쪽 · 18,000원 · 푸른솔



“중국에서는 일기예보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워낙 땅 덩어리가 크다 보니 한 곳에서는 눈이 내려도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찰는 듯한 더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반적으로 맑음”이라는 식의 일기예보는 중국의 날씨를 설명할 수 없다.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중국. ‘12억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그 필요에 걸맞는 중국의 실상에 관한 자료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두리몽실한 일기예보뿐이지 각 지역마다의 정확한 날씨가 전달되지 않는다.

최근 푸른솔에서 펴낸 『중국기행』은 폴 쉐로우가 1년 동안 중국을 기차로 여행하면서 쓴 저작이다. 중국 전역의 날씨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좋은 일기예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뿐 아니라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원시림 등 신비의 위험이 도사리는 오지에서 수일씩 머무르며 관찰한 글들이 들어있다. 너무나 중국적인 글들을 읽고 싶노라면 어느덧 독자들은 중국 속에 들어가 있는 착각에 빠진다.

저자가 직접 맨발로 쓴 만큼 지금까지 소개된 어떤 책보다 중국에 대한 정확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학생, 여행자, 사업가, 신앙인 등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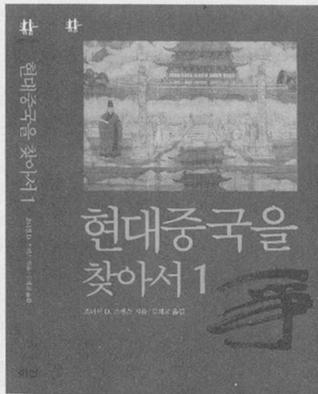
## 현대 중국을 찾아서 1·2

조너선 스펜스 지음 · 김희교 옮김 각권 19,500원 · 500쪽 · 이산출판사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걷는 오늘날의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중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에 대한 인식이 환상과 혼란 가운데 처해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우리는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중국이 근대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난 한 세기 동안 어떻게 투쟁해왔는지를 탐구하게 된다. 역사를 단순히 시대적인 나열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세계사적 시각에서 중국사를 이해하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를 삼국지만큼 재미있게 쓴 중국사 이야기이며, 서양학자가 본 중국을 철저하게 객관화하여 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또한 객관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중국이 겪은 근대화의 길과 우리가 지나왔던 근대의 차이를 느끼며 세계와 미래 사회 가운데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상인의 성공하는 기질 74가지

미래경제연구회/김정우 편저 · 7,500원 · 319쪽 · 선영사



IMF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지금 국가적인 경제파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웃 중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일구었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떠맡고 있는 그들이 오늘날 경제적인 면에서 성공을 하게 된 이면에는 화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화교는 대략 5,500만 명에 이른다. 화교들의 자산은 중국 GNP의 125%를 넘고, 자동차금은 2조 달러에 이른다. 본서는 이처럼 중국 대륙을 이끌어 가는 실질적 경제 주역인 화교들의 성공 비결을 본보기로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숨은 잠재력을 회복하여 현재의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성공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중국 상인의 성공하는 기질 74가지>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처럼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할 때에 경영인들은 이 책에서 중국 상인들을 움직이는 기본 원칙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선교 단체 정보

### '일본에 와서 도우라'

#### -일본자비량단기 비전 트립 모집

예수제자선교회에서는 자비량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자비량선교지를 정탐하며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일본 선교현장을 체험하는 목적으로 여행을 실시한다.

주제: "일본을 그리스도께 훗카이도에서 오끼나와까지"

훈련비용: 65만 원

장소: 동경, 후지산

일시: 99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5박 6일)

문의: 예수제자선교회

전화: 02)786-9916

#### 전문인선교(GPTI) 훈련생 모집

한국 전문인선교훈련원에서는 선교관심자와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창의적접근지역에서 직업을 가진 전문인선교사로서 사역하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99년 2월 말부터 2천년 2월 말까지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

장소: 서초동 영화교회 교육관

접수기간: 99년 2월 말까지

훈련비: 독신-85만 원, 부부-130만 원

문의: 한국 전문인선교훈련원

전화: 02)537-3438 팩스: 02) 595-7809

#### 현장녹음선교사 훈련학교 모집

한국 복음음반선교회(ARM)에서는 미전도종족 복음화에 사명감있는 취록선교사로 헌신할 형제 자매를 찾는다.

네팔 FRTS 훈련이후, 영어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한국인 지원자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한국어(FRTS) 훈련을 개설한다.

국내에서 6주간, 홍콩 중국에서 4주를 이수하게 된다.

문의: 복음음반선교회 한국지부

전화: 02) 408-6959 팩스: 430-4353

#### 세계선원선교회

연변 해양전문대학 교수선교사, 부설 의료진료소에서 사역할 의사와 간호사, 현지 주말학교 운영 교사, 기타 학교 행정사역자 그리고 전문목회자를 찾고 있다.

문의: 연변해양전문대학 서울 사무실

전화: 02) 701-5121, 051) 301-5633

#### '99 인터콥 선교캠프

회복·능력·비전을 주제로 모임을 갖는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므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일시: 98년 12월 31일 ~ 99년 1월 2일

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참가비: 4만 5천원  
문의: 인터콥 서울 본부로  
전화: 02) 796-3541 팩스: 795-9141

## 갈릴리세계선교회 겨울 단기선교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로  
전화: 02) 420-1450 팩스: 415-5466

## 제7차 역라마단 기도운동

이슬람의 금식월인 라마단 기간동안 열리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시작된다.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슬림들의 라마단 금식기간에 역기도운동에 중보기도 운동을 전개한다. 1992년부터 YWAM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은 전세계의 기독교인 3천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간: 1998년 12월 20일~1999년 1월 21일

## 내적 치유 세미나

주제: 아버지의 사랑  
일시: 99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장소: 여전도회관(종로 5가) 14층  
강사: 크리스 해리스 목사  
회비: 6만 원  
문의: 951-7044, 017-341-7044

## BTC 18기훈련생모집

자격: 선교관심자, 헌신자로 제자, 선교, 영적 훈련이 되어진 자  
훈련비: 30만원  
모집기간: 1998년 12월~99년 1월 15일  
접수처: 서울시 관악우체국 사서함 122호  
문의: 887-7159, 875-2635

## 제1회 MK 교사선교사 훈련캠프

최근 늘어나는 한국인 선교사들에 따라 선교사 자녀의 수가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녀로 키우기 위한 시도로 해외에서 한국인 선교사 자녀학교들이 설립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MK전문사역기관인 MK NEST는 이 사역에 부름받은 교사들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99년 1월 11일~1월 23일

장소: 대전 침례신학대학 선교훈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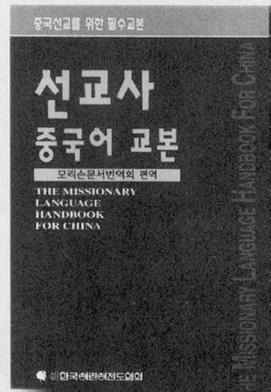
훈련비: 30만 원

문의: 에셀도움선교회

선교사자녀 사역부(MK NEST)

전화: 02)652-3519 팩스: 02)652-3870

## 선교사 중국어교본



발음, 성조, 해석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선교사 중국어 교본이 출간되었습니다. 모리슨 문서번역회 편역, 값 8,000원

구입처: 시내 각 기독교서점, 중국어 문선교회 개척선교부, 중국복음선교회 사역부, 모리슨 문서번역회

문의: 모리슨 문서번역회 (대표: 최은택 목사)  
전화: 02) 308-4935, H.P. 016-202-4935

새 일꾼을 찾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와 훈련원 간사,  
행정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판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출판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Tel 533-5497 석은혜 선교사

선교사 훈련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훈련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Tel 535-4255 이성은 선교사

행정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행정실로 연락해 주세요.

문의: Tel 592-0132 이닛시 간사

유치원 교사를 찾습니다.

장소: 중국 상해

자격: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

급여: 미화 500불(숙식제공)

연락처: 592-4161

(이수교회, 강신덕 전도사)

중국 화북지역에서 사역자를 찾습니다.

분야: 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 중국에 있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자와 유아  
및 보육을 전공한 경력자

피아노나 미술특기가 있으면 더욱 좋음

인원: 4명(남여 구분 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C.C.M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영등포구 대림동 두암종합상가 나동 4층  
<예닮교회>

Tel: 831-1402, Fax: 836-0571

담당: 김유신, 이병숙

베이징 저널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분야: 남·여 편집, 광고, 업무

인원: 각 분야 0명

학력: 가. 편집-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나. 광고·업무-2년제 전문대학 졸업이상

자격: 가. 중국어 및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나. 중국어 및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인

다. 각 분야 경력자·컴퓨터에 능숙한 자 우대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연락처 및 연락 방법 기재)

나. 자기 소개서 (A4 용지 2매분을 워드로 작성)

다. 반명함판 사진 1매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문의: 베이징저널사

전화 (010) 6498-9781/2, 팩스(010) 6498-9780



중국어 찬양 Tape이 나왔습니다.

ORTV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각 교회에서 반행하였습니다.

- ① 회념적시가 - 찬송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수사랑하심은,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등) 총 17곡
- ② 찬미단가 - 경배와 찬양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목마른 사슴, 주는 토기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등) 총 18곡
- ③ 부위명천적우려 - 중국어 성경에 곡을 붙여 만든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오직 성령의 열매는 등) 총 13곡
- ④ 금아진정적지유 - 중국인이 작사작곡한 중국복음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줍니다 등) 총 13곡
- ⑤ 수몽향 - 성경의 이야기들이 중국어 낭송과 함께 노래로 불러집니다(천지창조이야기, 다윗이야기 등) 총 18곡

▶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중국어문선교회나 유명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제작: 금성레코드사. 가격: 개당 4,500원

▶ 다량을 원하시는 분은 진 기획으로 연락주십시오. Tel. 997-9291, 011-688-9992

광저우(廣州)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문건

## 〈광저우시 종교사무 조례〉

광둥(廣東)성 제8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 요청한 〈광저우시 종교사무 관리 조례〉를 심의했으며, 이 조례의 비준을 결정했다. 따라서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의견을 따라 수정한 후 공포 시행한다.

### 광저우시 종교사무 관리 조례

(1997년 9월 26일 광저우시 제10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 1일 광둥성 제8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비준됨)

### 제1장 총칙

**제1조** 공민(公民)의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관련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市)의 실제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사무는 종교와 국가, 사회, 공민간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 공공 사무를 가리킨다.

**제3조** 본 시(市) 행정구역내의 종교사무 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시(市)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이나 기업 단위, 사회단위 및 사회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공민에게는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대우 할 수 없다. 종교를 믿는 공민이나 믿지 않는 공민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공민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해야만 한다.

**제5조** 종교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및 사회안정을 수호해야만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의 행정이나 사법 및 교육에 간섭할 수 없다.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인원과 믿는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다.

**제6조**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마땅히 독립자주와 협력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7조** 시(市)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이하 시 종교사무부서라 약칭함)는 본 시(市) 종교사무 행정의 주관부서이며, 본 조례의 시행을 담당한다. 구(區), 현(縣)의 시(市)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는 소재 구, 현의 시(市) 종교사무 행정의 주관부서이며, 관할지역의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진다. 본 시(市)에 있는 각 급(級)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법에 의하여 각자 직무를 수행하며, 종교사무 부서와 협동으로 본 조례를 실시한다.

## 제2장 종교단체

**제8조** 본 조례가 말하는 종교단체는 본 시(市)의 법에 의해 설립된 시(市)불교협회, 시(市)도교협회, 시(市)천주교애국회, 천주교광주우교구, 시(市)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시(市)기독교협회 및 시(市)와 구(區), 현(縣)의 종교단체를 가리킨다.

**제9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국가의 <사회단체 관리규정>에 의해 등록 신청해야 하며, 등록관리 기관의 등록을 허락받은 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정부의 행정관리를 받으며, 각자의 규정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제11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정부가 관련 종교 법률 및 법규를 관철하고 집행하는데 협력해야 하며, 종교를 믿는 공민에게 애국주의, 사회주의 및 법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종교교직인원과 종교를 믿는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혹은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종교단체는 종교적 문화행사와 학술적 연구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 규정에 따라 종교출판물을 출판, 인쇄, 제본, 발행 할 수 있다.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업을 신청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의 공익사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거행할 수 있고, 종교방면의 대외우호 교류를 전

개할 수 있다.

**제13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종교학교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의해 관리, 운영한다.

## 제3장 종교교직인원 (宗教教職人員)

**제14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교직인원이란, 곧 불교의 비구, 비구니, 도교의 도사, 여도사, 이슬람교의 아랍(阿訇), 천주교의 주교, 신부, 수사, 수녀, 기독교의 목사, 선교사, 전도사 및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기타인원을 가리킨다.

**제15조**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은 시(市)의 종교단체에서 본 종교규정의 조건과 절차에 의해 승인되며, 시(市)종교사무 부서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승인과 비준을 받은 종교교직인원은 본 종교 규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며, 종교활동장에서 종교활동을 집행하고 교회업무를 처리하고 참여하는 민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승인과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와 이미 사퇴한 경우 및 종교교직인원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의 사람들은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제17조** 종교교직인원도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각 항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본 시(市)의 종교교직인원

이 다른 지역의 초대를 받거나 외부 종교인사를 본 시에 초청하여 종교활동을 거행하려고 할 때에는 본 시(市)의 관련 종교단체의 동의와 본 시(市)의 종교사무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종교활동장소

**제19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활동장소는 종교를 믿는 공민이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분교사원, 도교관(宮觀), 이슬람교의 사원(清真寺), 천주교와 기독교의 예배당 및 종교사무 부서가 승인하는 기타 고정적인 장소를 가리킨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구(區)나,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비준해야 하며, <종교활동장소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를 정지, 합병, 이전 및 등록변경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원래의 등록기관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관리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각 항의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유지해야 한다.

**제22조** 종교활동장소는 자발적으로 내는 개인과 단체의 연보나 헌금 및 기타 종교성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종교활동장소는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업을 신청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공익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국가관련 규정에 의거한 종교용품, 종교 예술품 및 종교 출판물을 경영 판매할 수 있다.

**제24조** 종교활동장소에서 상주하는 인원과 잠시 머무르는 외부인원은 반드시 국가의 호적관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종교활동장소내에서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를 촬영하거나, 상업이나 서비스업을 개설하거나 진열 및 전람 활동들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된 각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또한 관련지역 종교사무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종교활동장소내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에 대한 선전과 쟁론을 할 수 없다.

**제27조** 종교활동장소내에서 점괘, 운명, 관상을 보거나 제비뽑아 점치는 것, 축귀나 신유활동 등을 할 수 없다.

**제28조** 비준받지 않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원, 공관, 예배당, 사찰, 옥외 신상 및 불상을 건축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가 사원, 공관, 및 교회당을 철거 개조 및 신축하거나, 옥외에 있는 신상과 불상을 보수할 때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소속 처리해야 한다.

## 제5장 종교활동

**제29조** 본 조례가 말하는 종교활

동은 종교를 믿는 공민이 종교교리와 규정 및 종교전통과 관습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0조** 종교활동은 반드시 종교활동장소나 종교사무 부서가 인가한 장소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종교를 믿는 공민은 자기 집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제31조** 종교를 믿는 공민이 거행하는 단체 종교활동은 반드시 종교교직인원 혹은 규정 조건이 부합되는 사람이 주관해야 한다.

**제32조** 비정규적인 종교활동을 거행할 때는 반드시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을 사전에 시(市)종교사무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비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을 거행할 수 없고,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종교성 증여를 받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는 받을 수 없으며, 아직 비준되지 않은 종교용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없다.

**제34조** 종교활동은 사회질서, 생산질서 및 생활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민의 심신건강을 해쳐서도 안되며,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해서도 안된다.

## 제6장 종교재산

**제35조** 본 조례가 말하는 종교재산이란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가 법에 의거하여 소유 또는 관리 사용하는 부동산, 건축물, 묘지, 각종 시설, 사용품, 문물(文物), 공

예품, 종교수입, 소속기업, 사업 및 기타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과 수입을 말한다.

**제36조** 종교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침범하거나 점유 및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종교재산 관리기구와 관리제도를 설치하여 건전하게 운영하며, 종교사무 부서와 관련 부서의 지도를 받는다.

**제38조** 종교 부동산과 묘지는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이 부동산 등록기관에 등록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비준을 받은 후 부동산 권리증서를 수취하고, 또한 시(市) 종교사무 부서에 비준을 받는다.

**제39조** 도시행정 건설의 필요 이외에 종교부동산과 묘지가 징발 및 철거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市)관련 종교단체와 시(市) 종교사무 부서의 동의를 구하고 합리적 보상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40조** 모든 문물(文物) 보호 단위(單位)나 중점보호 단위(單位)인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시(市)계획 부서가 보호범위 및 건설제한 지역을 확정한다. 징발이나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국가관련 문물 보호의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제7장 종교출판물

**제41조** 본 조례가 말하는 종교출

판물은 종교서적, 종교인쇄물, 종교카세트, 종교비디오 및 기타 종교선전품을 말한다.

**제42조** 출판, 인쇄, 제본 및 발행되는 종교출판물은 반드시 시(市) 종교사무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가관련 부서의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해야 한다.

**제43조** 종교출판물은 반드시 국가규정 및 조건에 부합된 인쇄공장에서 인쇄해야 한다.

**제44조** 비준을 받은 출판, 인쇄, 제본된 종교출판물은 반드시 인가된 수량과 범위내에서 발행해야 한다.

**제45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학교가 외국종교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종교출판물을 증여받을 때는 국가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6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적으로 인쇄하거나 불법으로 들어온 종교출판물을 운송, 판매, 제본 및 배포할 수 없다.

## 제8장 대외 교류

**제47조** 종교단체와 종교인사가 외국 종교계와의 우호 교류와 문화 학술 교류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반드시 자주독립, 상호존중, 상호불간섭, 평등 우호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48조** 종교단체와 종교인사가 종교 교류를 이유로 출국하거나 외국 종교단체와 종교인사의 방문을 필요로 할 경우, 또는 종교단

체가 종교유학생을 파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9조**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가 외국 종교조직과 개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반드시 종교 증여접수에 대한 국가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으로부터 종교수당이나 전도 경비를 받을 수 없다.

**제50조** 본 시(市)의 비종교조직이나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제, 과학, 문화, 교육, 관광, 위생 및 체육 등 교류활동을 하거나 사회공익 사업을 실행할 때, 종교적인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시(市) 비종교조직이나 개인이 외국 종교조직이나 종교인사의 방문을 받거나 혹은 외국 종교조직이나 종교인사로부터 방문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市) 종교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1조** 외국인은 본 시(市)가 비준 및 등록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을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시(市) 종교사무 부서가 인가한 장소에서 외국인이 참여한 종교활동을 거행할 수 있으며, 시(市) 종교교직인원이 세례, 혼례, 장례, 및 법회 등 종교의식을 거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 외국인은 본 시(市)에서 종교조직을 설립하거나 종교사무기관,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학교등을 설립해서는 안되고, 중국 공민 가운데서 신도를 증가시키거

나 종교교직인원을 위임할 수 없다. 또 사적으로 종교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으며, 종교 출판물 배포와 기타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3조** 외국인이 본 시(市) 종교활동장소의 초청에 따라 설교, 설법 및 기타 종교적인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진행할 때 반드시 국가관련 중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4조** 외국인은 본인 용도의 종교출판물과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다.

## 제9장 법률 책임

**제55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아래와 같이 행했을 경우 종교사무 부서는 활동 정지 및 경고와 사건의 엄중에 따라 종교활동장소의 등록을 폐지할 수 있으며, 조직에 대한 책임이나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5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 비준받지 못한 본 시(市) 종교교직인원이 다른 지역에 가거나 다른 지역의 종교교직인원이 본 시(市)에서 종교활동을 집행할 경우.

(二) 종교활동장소내에서 점괘, 운명, 관상, 제비뽑는 것, 축귀 및 신유의 활동을 행할 경우.

(三) 종교교직인원이 비준, 등록 및 인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집행할 경우.

(四) 비준되지 않은 종교학교를 개설할 경우.

**제56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행했을 때, 종교사무 부서는 활동 정지 및 경고와 사건의 엄중에 따라 종교활동장소의 등록을 폐지할 수 있으며, 조직에 대한 책임이나 직접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一)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간섭 및 방해하는 경우.
- (二) 종교를 믿는 공민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강압하거나 경시하여 좋지않은 결과를 조성할 경우.
- (三)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행정, 사법 및 교육을 간섭할 경우.
- (四) 종교활동이 사회질서, 생산질서 및 생활질서를 방해하거나 공민의 심신 건강에 해를 입히거나,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할 경우.
- (五) 비종교조직과 개인이 섭의할 동등 종교적인 부대조건을 받아들인 경우.

(六) 아직 비준되지 않았거나 사퇴했을 경우, 혹은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을 박탈당한 사람이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했을 경우.

**제57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행했을 경우, 종교사무 부서와 관련 부서는 활동정지 및 경고를 명하여, 동급(級) 인민정부에 허가를 얻은 후 단속할 수 있고 불법 소득과 불법 물품에 대한 몰수와 불법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동시에 조직에 대한 책임이나 직

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0,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一) 비준 및 등록되지 않은 종교조직이나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 (二) 비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종교 조직과 개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三) 비준되지 않은 사찰, 공관, 교회, 절, 옥외 신상이나 불상을 건축하는 경우.
- (四) 비종교 조직이나 개인이 종교활동을 집행하는 경우.
- (五) 비종교 조직이 종교시설을 설치하여 수취 혹은 다른 명목의 종교성 증여를 받는 경우.
- (六) 비종교 조직과 개인이 허가되지 않는 종교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 (七) 외국 종교단체로부터 수당이나 경비를 받는 경우.

**제58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종교재산을 침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종교사무 부서와 관련 부서는 월권활동에 대한 정지, 반환, 및 원상회복을 구분하여 명령하고 경제적인 손실은 법에 의거하여 배상해야 한다.

**제59조** 국가 공무원이 종교사무를 관리하던 중에 본 조례 관련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 그 소속 단위(單位)나 상급(級) 주관부서는 수정을 명령하고 행정 처분하며, 범죄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와 기타 법규를 위배한 경우, 공안국과 관련 부서는 규정에 의해 처벌하며, 범죄했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61조** 당사자가 처벌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복의조례(行政復議條例)>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2조** 외국인인 본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종교사무 부서는 활동 정지 및 경고를 명령한다. 또 출입국 관리 규정이나 치안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안국은 법에 의해 처벌하며, 범죄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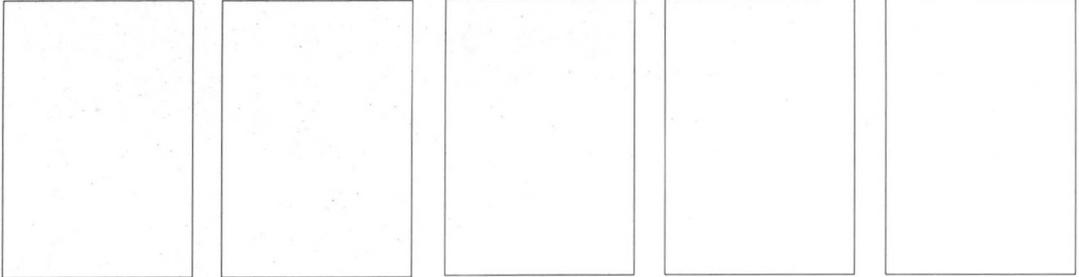
## 제10조 부칙

**제63조** 본 시(市) 종교조직과 종교인사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대만의 종교조직과 종교인사와의 교류 및 종교활동을 행할 때,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과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대만의 주민이 본 시(市)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4조** 본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광저우시 종교사무국에서 해석에 책임을 진다.

**제65조** 본 조례를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선교도서안내



##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 |                                      |        |
|--------------------------------------|--------|
| 1. 만남(중국성도 간증 소책자)/ 中國語文宣教會 번역       | 2,000원 |
| 2.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Tape:1,000원) | 1,500원 |

## 중국어 학습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信仰讀本                            | 5,000원  |
| 6. 구약성경 이야기 (Tape 25개)             | 25,000원 |
| 7.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트 출판사) | 900원    |
| 8. 중국어 신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 35,000원 |
| 9. 중조양어 대조와 오류분석                   | 18,000원 |
| 10. 중국어 찬양 Tape                    |         |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4,000원  |
|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 4,000원  |
| ◆是愛(사랑은)                           | 3,000원  |
| ◆奉主耶穌的名                            | 3,000원  |
| 11. 종합선교중국어                        | 8,000원  |
| 12. 讚美歌                            | 5,0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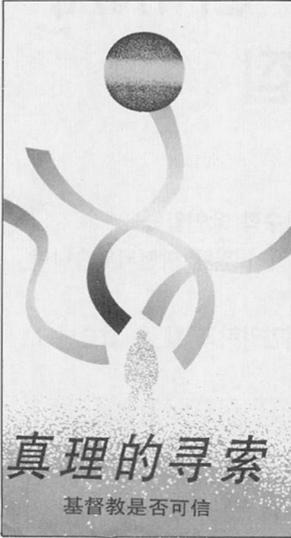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소책자 소개

## 眞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틀(J.R.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틀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총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책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심영아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1999년도 1학기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M.T.I for CHINA)**  
**제14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b>대 상</b>	교회,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b>참가인원</b>	20명 내외.
<b>선 발</b>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b>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b>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 능력 배양.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 구체화.

〈교육기간 매년 3월, 9월 개강〉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98년 12월 15일~99년 1월 30일**

구비서류/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 1통, 위탁서(소정양식)-1통

원서대금 및 접수비/ 원서대금 2,000원, 접수비 10,000원

문의 및 접수처/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535-4255, 594-8038 FAX : 599-2786 담당: 이성은 주임

**개강예배 99년 3월 2일(화) 오전 9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훈련원(원장:박성주 장로)은 중국선교를 위한 언어 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1999학년도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2차 학생모집

## 특전

1. 본 훈련원 졸업시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 Mission Seminary)의 인준학위인 중국선교학석사(Master of Christian Studies in China Ministries), 중국선교학중서(Diploma of Christian Studies in China Ministries)를 수여함.
2. 각종 장학혜택(성적, 애화, 생활, 근로) 있음.

## 일정

1. 훈련 및 교육기간:  
1999. 3. 2~2001. 2. 28(2년4학기-국내교육, 해외실습)
2. 일 시:

매주 화~금 오전 9시~오후 4시30분(평일주간)

3. 교육장소 :

본원(서울 중구 정동 25번지)

4. 전형방법 :

서류/필기/면접시험

5. 제출서류 :

본원지원서 /신앙고백서 /최종학교졸업 성적증명서 /사진2매(3\*4) /추천평가서2통(담당목사, 교우)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 2. 6까지 접수마감

7. 시험일자 : 논술(1999. 2. 8), 면접(1999. 2. 9)

8. 합격자발표 : 1999. 2. 13

9. 개강일자 : 1999. 3. 2

## 초대의 글

본 훈련원에서는 중국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하여 현지사역에서 필요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현지훈련을 통한 중국 현장 적응능력등을 적절하게 갖춘 전문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예비 중국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훈련 및 교육내용

영성 및 인격훈련/ 선교사로서의 인격형성 및 영성, 경건의 훈련  
공동체훈련/ 공동체 삶 속에서의 개인성장 훈련  
온사 및 사역의 개발/ 개인의 온사 및 사역의 개발  
사역실습/ 현장 적응능력 향상과 실제사역의 실시  
중국어/ 기초부터 자유로운 언어 구사와 설교능력배양  
중국선교사역학/ 전문적인 중국선교 지식과 사역이해 도모  
중국어/ 개괄적인 중국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  
일반선교사역학/ 폭 넓은 세계선교와 선교문제에 대한 식견향상

## 대상

1. 중국선교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전문대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2년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이상 근무한 자

## 문의

중국선교사훈련원 (Center for China Mission Training) 100-120 서울 중구 정동 25 (TEL: 318-3956, 755-5415 Fax: 773-6278)

중국선교 전문지

## 중국을 주제로

1999년 1.2월호 (통권55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박성주

발행, 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 김중선, 김중하, 김피득

왕쓰웨이, 지인성, 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 이민선, 최귀례,곽숙, 박정희

편집디자인/ 박정영

### 중국을 주제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8년 12월 20일

인쇄처/ 친구인쇄 ☎ 02) 264-5354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4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30,000원)

###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답동 44- 24 원지당 약국 3층

전화: 032) 762-0748

###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시시오

☆ 인터넷 홈페이지

www.Dadream.co.kr/~sinim

☆ E - mail

sinim@chollian.net

☆ PC 통신 천리안

sinim

## 편집후기

1999년 새해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그 어느 해의 그것과는 다른, 남다른 감회로 새해를 맞는다. 준비 없이 몰아닥친 거국적인 경제한파로 인해 실업자 증가, 이로 인해 무너지는 가정들이 상처와 아픔의 얼룩 속에서 맞이하는 새해이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소나무의 푸름은 흰 눈 내리는 겨울에야 더욱 드러나고, 병기의 날카로움은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돋보이는 법.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는 이 영적 전쟁 중국을 주제로 드리는 나사렛의 서력에게 잠식당하도록 두느냐의 기로에서, 우리가 당하는 경제적 한파는 우리의 믿음과 충성의 여떠함을 선명히 드러내 주는 배경이 될 뿐이다.

바라기는, 새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 영적 전선에서 분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 국의 정기구독료(1년)

####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30,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42,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7,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30,000원, 우편료 23,400원, 합계 53,4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61,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제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잡지입니다.

##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8.4.1 ~ 2000.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보내는 사람

전화  
□□□ -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8.4.1 ~ 2000.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보내는 사람

전화  
□□□ -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 독자카드 1999년 1·2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신규구독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1년 30,000원(6권)    2년 60,000원(12권)    3년 90,000원(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우 - )		( 통 반)	출석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			( 통 반)

**전화신청 및 문의 02) 533-5497, 02) 592-0132**

# '중국을 주께로' 월례 중보기도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 3)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로써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선교의 모든 문들이 닫힌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

『중국을 주께로』 월례 중보기도가 98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양 팔을 붙들고,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로 후원하실 여러분들을 향해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저녁 7:00~9:00)**

**장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잠깐 !! 그 외,

매주 첫째, 둘째, 넷째 월요일은 저녁 6:30~8:30  
"중국을 주께로" 기도함주회가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장소: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137-069  
전화: 02)592-0132, 594-8038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합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 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02)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